

석사학위 논문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창 일

2001학년도

#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지도교수 류 종 목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창 일

김창일의 문학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인준함

2002년 6월

위원장 최 두 식 인

부위원장 권 우 행 인

위원 류 중 목 인

국문초록

##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Research on the Narrative Style of Egonbonpuri Type

국어국문학과 김창일  
지도교수 류종목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전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방향은 몇몇 작품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구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II장에서는, 서사단락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일곱 편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가 단지 석가모니 전생담을 모방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 서사구조의 틀 안에서 재창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인의 주인공에 의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주인공이 순차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III장에서는,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로서의 사라수대왕, 수난기의 주동인물로서의 원앙부인, 제2노정기의 주동인물로서의 안락국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IV장에서는, 비현실계로서의 서천꽃밭은 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현실계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서천꽃밭은 주인공의 최종목적지가 아니라 신으로 좌정되기 위해 거쳐야할 중간단계로 보았다. 서천꽃밭이 생명의 공간으로 설정된 것은 우리는 이미 고대시대부터 꽃과 인간의 생명을 관련지어 생각하였는데 이 오랜 사유체계 속에 잠재

되어있던 것의 발현으로 보았다.

V장에서는, 무가로서의 ‘이공본풀이’와 ‘신선세턴님칭배’는 이미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이전에 형성되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안락국태자경’이 실제로 고려시대에 강창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이 ‘사라수구탱’인데 이것의 제작시기를 밝혀냄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라수구탱’이 1576년 ‘사라수탱’으로 모사될 당시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모되어 있었다는 기록에만 근거를 두어 2~3백년을 거슬러 올려 잡고 있어 막연한 추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장에서는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과 화면의 크기, 사라수탱이라는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라수구탱’의 제작시기를 고려 중~말까지 올려 잡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락국태자경’은 두 계통의 서사체로 전승되었는데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으로 이어지는 불교계 서사체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공본풀이’, ‘신선세턴님칭배’, ‘악양국왕자노래’로 이어지는 서사무가가 그것이다.

‘이공본풀이’ 무가는 다른 동계 서사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제주도 무가만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주요어 : 에피소드 단위의 연망, 불교계 서사체, 본풀이, 노정기, 수난기, 좌정기, 강창문학, 본생담.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4
II. 서사구조의 대비	8
1. 서사단락의 비교	8
2. 영웅 일대기 구조의 원용	23
3. 에피소드 단위의 連網	30
III. 등장인물의 기능과 성격	35
1.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35
2. 조력자	45
IV. 공간구조와 의미	49
1. 善·惡의 공간	51
2. 신격화를 위한 예비공간	53
3. 생명의 공간	60
V.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승 양상	64
1. 불교계 변문과의 관련성	69
2. 사라수탱의 실상과 서사체와의 관계	75
3. 사상적 배경	90
4. 이공본풀이 무가의 지역적 특성	102
VI. 결론	118
참고문헌	123
ABSTRACT	131

## 그림목차

沙羅樹幀 .....	83
沙羅樹幀 .....	85

# I. 서론

## 1. 연구 목적

‘이공본풀이’, ‘신선세턴님청배’, ‘악양국왕자노래’, ‘오구대왕풀이’는 서사무가이고, ‘안락국태자전’은 僞經, ‘안락국전’은 국문소설, ‘기림사사적<sup>1)</sup>’은 사찰연기설화이다.

‘안락국태자전’을 수록하고 있는 〈석보상절〉·〈월인석보〉는 〈釋迦譜〉의 증수·국역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저본으로서 ‘안락국태자경’이 〈석가보〉에 편입되어 있다가 ‘안락국태자전’으로 전개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2)</sup>. 이 ‘안락국태자경’은 彌勒三尊의 본생담을 담은 불전으로서 그 서사성이 뚜렷하여 한국불교 사회에 널리 유통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大藏經譜의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정식경전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점에서 僞撰經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소설수준의 서사문학성을 지닌 면에서 여타의 위찬경과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sup>3)</sup>. 이러한 점 때문에 사재동은 〈석보상절〉·〈월인석보〉 소재 ‘안락국태자전’을 소설작품으로 보고 있다<sup>4)</sup>. 그의 말대로 작품내적으로 보면 소설수준의 서사문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생·문학사적인 면에서 볼 때 〈석보상절〉 소재 ‘안락국태자전’은 위경인 ‘안락국태자경’을 저본으로 하여 정책적으로 찬역되었기 때문에 창작성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위경으로 보고자 한다.

위의 모든 작품이 내용 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울타리에 넣어 비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서대석<sup>5)</sup>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이공본풀이”를 비교연구한 것<sup>5)</sup>이 있

1)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別本祇林寺事蹟’을 ‘기림사사적’이라 약칭하도록 하겠다.

2) 사재동, 「안락국태자경의 연구」,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pp.300~301.

3) 사재동, 앞의 책, p.299.

4) 사재동, 「안락국태자전의 연구」, 『한국문학유통사의 연구』 II, 중앙인문사, 1999.

5)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 『국문학연구』, 국문학연구회, 1968.

는데 이것이 ‘이공본풀이’ 비교연구의 선편을 잡고 있어 이 방면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사무가의 일반적인 사항을 개괄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라 하기는 힘들다. 서대석 이후 윤찬주가 “이공본풀이, 안락국전, 안락국태자전”을 비교연구 하였다<sup>6)</sup>. 그러나 서대석의 연구에서 많은 부분을 원용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전된 점을 찾기 힘든 아쉬움이 있다. 이에 비해 최진봉은 연구대상을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이공본풀이, 악양국왕자노래, 오구대왕풀이, 신선세턴님청배”로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락국전’의 형성과정에서 이들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조명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sup>7)</sup>. 그러나 등장인물의 명칭과 플롯전개, 공간의 단순 비교에 의존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펼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재동은 문학유통사적인 면에서 강창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교계 서사문학 중심으로 연구<sup>8)</sup>하였기에 무가에까지 관심을 갖지는 못했다.

이전의 연구에 비해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는 김진영의 연구<sup>9)</sup>를 들 수가 있다. 그는 한국서사문학은 불교계 변문의 문학사상적인 영향과 더불어 한국서사문학의 형성·연행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전제로 하여 한국불교계 변문을 사적 계통에 따라 고찰하고, 작품의 실상을 규명하여 장르적 전개양상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안락국태자전, 이공본풀이, 안락국전”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서사무가, 위경, 고소설, 사찰연기설화에 이르는 동일계통의 작품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명하지는 못하였다.

최근의 것으로 장주근의 글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안락국태자전’과 ‘이공본풀이’, ‘안락국전’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정도이다<sup>10)</sup>.

서사무가란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무가”를 말하며 그것은

6) 윤찬주,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1.

7) 최진봉, 안락국전의 형성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1.

8) 사재동, 한국문학유통사의 연구 I·II, 중앙인문사, 1999.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9) 김진영, 한국서사문학의 연행양상, 이회, 1999.

10)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특정 인물의 이야기일 것과, 발단, 전개, 결말의 구성요소를 갖춘 사건의 서술일 것을 필요로 한다<sup>11)</sup>. 이와 같은 서사무가의 내용은 우주의 개벽과 우주개벽후의 인간 출현을 비롯한 삼라만상의 근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우주를 포함한 우주 안의 모든 존재를 밝히는 것으로 집약된다<sup>12)</sup>. 이러한 서사무가는 특히 제주도에서 “본풀이”로 불리며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공본풀이’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꽃을 관리하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의 본풀이이다. 그런데 ‘이공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의 무가로 ‘신선세턴님청배’, ‘악양국왕자노래’, ‘오구대왕풀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 수록되어 있는 ‘안락국태자전’과 국문소설 ‘안락국전’ 그리고 사찰연기설화로 ‘기림사사적’도 ‘이공본풀이’와 내용 면에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이제 본고에서는 서사무가인 ‘이공본풀이’, ‘신선세턴님청배’, ‘악양국왕자노래’, ‘오구대왕풀이’, 석보상절에 수록되어 있는 위경인 ‘안락국태자전’, 그리고 국문소설 ‘안락국전’과 기림사사찰연기담인 ‘기림사사적’을 통칭해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연구대상의 수적인 면에서 무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비중 또한 무가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사무가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중 제주도 서사무가인 ‘이공본풀이’가 자료 면에서 풍부하게 남아 있는 관계로 ‘이공본풀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되는 작품 모두가 일정한 인물과 사건을 갖춘 이야기로 된 서사성을 지닌 문학이라는 점에서 ‘서사체’라는 통칭어를 붙이기로 한다.

지금까지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 ‘이공본풀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된 성과물은 더러 있으나 위에 나열된 전체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이 그저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막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서사구조와 인물대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밝혀냄과 동시에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

11) 서대석, 앞의 책, p.116.

12) 김태곤, 한국구비문학개론, 민속원, 1996, p.258.

나아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연원과 전승계맥을 밝혀내고, 다른 동계서사체와 변별되는 ‘이공본풀이’만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를 논함에 있어 논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본 고지현 좌천정의 청산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사라수탱<sup>13)</sup>’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사체들간의 상호 대비연구를 한 후에 이들과 ‘사라수탱’를 비교하여 그 실상과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범위와 방법

제주도 서사무가인 ‘이공본풀이’는 秋葉隆 채록본, 장주근 채록본, 진성기 채록본, 현용준 채록본 등 많은 이본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고산옹본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다음으로 평북강계의 서사무가인 ‘신선세턴님칭배’는 손진태의 ‘청구학총22호’에 수록된 것 외의 채록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김해의 서사무가인 ‘악양국왕자노래’는 ‘한국구비문학대계8-9’에 채록되어 있는 강분이본이 있으며, ‘오구대왕풀이’는 최길성에 의해 채록된 김경남본이 있다. 부산 동래에서 채록된 ‘오구대왕풀이’는 ‘바리공주’무가를 일컫는 또 다른 명칭이며 내용 또한 ‘바리공주’ 무가와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본격적인 바리공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오구대왕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부분은 바리공주 일대기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김진영·홍태환의 <바리공주전집>에서는 오구대왕 즉위 전의 이야기는 생략한 채 수록하기도 하였다. 서사무가 전체 텍스트로 보았을 때 ‘오구대왕풀이’는 ‘바리공주’무가를 母胎로 하여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일부 화소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라 보기는 어렵다. 다른 여섯 편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와는 등장

---

13) ‘안락국태자경 변상도’라는 명칭으로 현재 널리 알려져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일본인 학자 熊谷宣夫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다. 이 그림의 상단부에 분명히 ‘사라수탱’이라 표기되어 있다.

인물의 명칭뿐만 아니라 서사구조 자체가 다르다<sup>14)</sup>. 하나하나 대비시켜 볼 필요조차 없이 이공본풀이계 무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포함시킨 것은 앞의 여섯 작품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5)</sup>. 이공본풀이계 서사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승 분포되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리공주’무가에 전승된 과정과 다른 무가에 수용되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부산 동래 김경남본 ‘오구대왕풀이’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묶어 연구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sup>16)</sup>와 동계 서사물로 알려져 있는 〈월인석보〉에 수록된 ‘안락국태자전’이 있다. 그리고 ‘안락국태자전’에서 다시 분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문소설 ‘안락국전’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경주 함월산 기림사의 사찰연기담으로 전하는 것으로 ‘新羅 含月山 祇林寺事蹟’과 ‘別本祇林寺事蹟’이 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別本祇林寺事蹟’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절에는 그절이 세워지게 된 유래를 말하는 연기설화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찰연기설화는 새롭게 창작되는

14) 이 뿐만 아니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불교적 신으로 좌정하는데 반해 오구대왕풀이에서는 북두칠성, 조물성별, 삼태성, 견우직녀성과 같이 별이 되었다고 하여 좌정하게 된 대상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오구대왕풀이는 오구굿(장자굿, 오구물림, 셋김굿 등으로 불림)에서 죽은 영혼을 위해 저승에서 새 생명을 구해 오는 의식으로 거행되고 있으며 불교에서 망자의 영혼을 깨끗이 씻는 의식으로서의 천도제(관육제)와 그 의미가 유사한 제의이다. 이렇게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제의에서 구송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별로 좌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고유신앙에서 일곱 살까지는 삼신이 그 후에는 칠성신이 돌봐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오구대왕풀이는 그 성격에서 이공본풀이계 무가와와는 전혀 다른 무가라 하겠다.

15) 김진영은 〈한국 서사문학의 연행 양상〉, 이회, 1999, pp.45~46, p.228, p.297에서 ‘오구대왕풀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안락국태자전은 이공본풀이, 악양국왕자노래, 신선세턴님청배, 오구대왕풀이 등의 서사무가로 전개·활용되면서 그 연행물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하여 안락국전승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윤찬주는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1, pp.6~8.에서 ‘오구대왕풀이’를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진봉도 〈안락국전의 형성연구〉, 숭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1.에서 二公本계 무가에 포함시켜 연구를 하였다. 조홍윤은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5, p.8.에서 안락국태자전 관련본이 18종이라고 하고 이에 ‘오구대왕풀이’를 넣고 있다. 이수자도 역시 ‘오구대왕풀이’를 이공본풀이와 유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6) 대체로 제주도 서사무가인 ‘이공본풀이’가 자료 면에서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공본풀이’를 포함한 ‘신선세턴님청배’, ‘악양국왕자노래’, ‘오구대왕풀이’를 통칭해서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라 지칭하도록 하겠다.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에 불교적 윤색을 가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림사는 원래 신라시대까지는 임정사로 불리어졌으나 원효에 의해 기림사로 개칭되었다. ‘안락국태자전’에서 광유성인이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는 곳이 바로 범마라국 임정사인데 임정사라는 명칭의 동일함 때문에 1740년 기림사연기설화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공본풀이’, ‘신선세턴님청배’, ‘악양국왕자노래’, ‘오구대왕풀이’는 서사무가이고 ‘안락국태자전’은 위경이며, ‘안락국전’은 국문소설이며 ‘기림사사적’은 사찰연기설화이다.

연구대상의 다양성과 사사무가, 위경, 국문소설, 설화라는 장르상의 차이로 인해 이들을 동시에 연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공본풀이 무가의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련성이나 선후관계 등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연구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접근해 가고자 한다.

첫째, 소설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계 변문이나 사찰연기설화 그리고 서사무가도 역시 완전한 서사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작품들에도 일정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 있으며, 그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서술일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사전개를 구성단계별로 나눈 후 각 단계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을 추출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각각의 서사체를 대비시켜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들 텍스트들이 모두 영웅일대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어떻게 영웅일대기 구조를 원용 혹은 변용, 탈락 시켰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서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에피소드 단위의 連網에 따른 주동인물의 변화와 노정기의 되풀이라는 독특한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둘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구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각각 개성적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각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의 명칭과 주동인물, 반동인물, 조력자의 기능과 성격 등

을 대비시켜봄으로써 이들 작품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규명해 낼 것이다.

셋째,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善·惡의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다른 서사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인 “신격화를 위한 예비공간”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은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꽃이 자라고 있는 “생명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넷째,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연원과 전승에 대해 연구된 기존학설을 제시한 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연원을 중국 불교계 변문인 강창문학에까지 소급시켜 불교문학과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사라수탱’의 실상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와의 관련성을 밝혀 서사체의 연원과 전승계맥을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상의 습합양상을 살펴보고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선후관계는 물론이고 그 전승과정을 추적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와 탐라국의 역사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고고학적·문헌학적·언어학적 자료들을 제시하여 제주도무가와 함경도·평안도 무가의 유사성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이공본풀이’ 무가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짓고자 한다.

## II. 서사구조의 대비

본장에서는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서사구조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서사구조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각각의 텍스트를 순차적 구조에 의해 서사단락을 나누고 각 단락별로 드러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석가모니의 일대기가 불교의 본생담으로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바, 이것이 우리 서사문학의 전통 위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토착화되었는가를 밝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모여서 텍스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에피소드 단위들이 일관성을 유지한 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적인 구조에 대해 그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서사단락의 비교

서대석은 〈서사무가연구〉에서 제주도의 서사무가 ‘이공본풀이’와 평안도의 서사무가 ‘신선세턴님청배’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제주도는 우리나라 가장 남단에 위치한 지방이며, 또한 島中이므로 전파나 영향이 비교적 적은 곳이며, 평안도는 우리나라 가장 북부지방이라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북 양단의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서사무가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서사무가가 전국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에서 발견되지 않은 무가가 제주도와 평안도에서 전파되고 있음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sup>17)</sup> 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평북지방의 서사무가 ‘신선세턴님청배’와 제주도의 서사무가 ‘이공본

---

17)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어국문학회, 1968, pp.39~40.

풀이'만이 채록되어져 있었으나, 이후 경남 김해지방에서 '악양국왕자노래'가 채록됨에 따라 그 해당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중부지방에서는 아직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석보상절> · <월인석보>에 수록되어 있는 '안락국태자전'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부(신선세턴님청배) - 중부(안락국태자전) - 동해안(기림사사찰연기설화) - 남부(악양국왕자노래) - 제주도(이공본풀이)에 걸쳐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장르로 전승되고 있는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주요내용과 배경 · 등장인물 등에서 정형성을 띤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일곱 편은 동일 장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사무가, 위경, 고전소설, 사찰연기설화라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장르에 속해 있는 각각의 작품을 동일 계통의 서사체로 묶은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구성단계에 따라 각각의 작품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들 상호 간에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서사단락을 나누어 각각의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친연성이 강한 작품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작품들을 변별하고자 한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도입 · 발단 · 전개 · 위기 · 해결 · 좌정의 여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어머니를 살려내는 장면인 해결부에서 신으로 상승하는 좌정부로 바로 이어지고 있어 둘을 함께 묶을 수도 있겠으나 연구의 편의를 위해 해결부와 좌정부를 분리하여 고찰한다.

우선 각 단계별로 핵심사건을 제시하여 해당항의 유무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하여 서사체들을 대비하고자 한다.

## 가. 도입

본격적인 이야기로 전개되기 전에 공간, 인물 등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도입부이다. 이제 서술의 편의상 먼저 단락별로 약호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18) '오구대왕풀이'를 남부지방에서 제외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리공주' 무가이지, 이공본풀이계 무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A. 공간설정(“어느 나라에”)

B. 인물의 구성

1. 가족의 등장

2. 비현실계의 신성한 인물의 등장

C. 자식이 없어서 아이 갖기를 기원함

이러한 단락들이 각 서사체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공본풀이 : A, B1, C

안락국태자전 : A, B2

안락국전 : A, B2

악양국왕자노래 : A, B1, C

기림사사적 : A, B2

오구대왕풀이 : A, B1, C

도입부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는다면 각 서사체에서 시간의 경우에는 모호하게 나타나거나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공간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다.

B단락을 보면 서사무가는 주인공의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등장하는데 반해 불교계 서사체인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은 비현실계의 신성한 인물 즉 주인공을 꽃밭으로 불러들이는 인물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 巫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불교계 서사체는 C단락이 나타나지 않는데 비해 서사무가는 C단락이 나타나고 있다. 무가의 기복신앙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이공본풀이’는 특이하게 주동인물<sup>19)</sup> 이전에 주동인물들의 부모가 먼저 등

---

19) 여기서 말하는 주동인물은 사라도령, 원강암, 할락궁을 일컫는다.

장하고, 주동인물을 낳게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반면에 나머지 동계서사체는 주동인물의 부모와 탄생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는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그 원인을 제주도 서사무가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의 시작은 주인공의 부모가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주인공을 낳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공본풀이’는 제주도에 전승되면서 일반신본풀이의 공식적인 형식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다른 여섯 편과 상이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나. 발단

발단부는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꽃밭 물감독관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길을 떠나는 과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시 각 단락별로 다음과 같이 약호를 부여한다.

D. 직책을 부여받음

E. 길을 떠남

각 서사체별로 이들 단락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공본풀이 : D, E

안락국태자전 : D, E

안락국전 : D, E

악양국왕자노래 : D, E

기림사사적 : D, E

오구대왕풀이 : E

여기서 보면 D·E단락이 거의 모든 서사체에 포함되어 있으나 ‘오구대왕풀

이'만이 D단락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대왕이 몽은사에 물 공양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직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을 목적으로 간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가고자하는 목적지가 몽은사라는 절인데 이곳은 현실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서사체와는 상이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길을 떠나는 과정은 있으나 그 목적과 목적지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다. 전개

전개부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는 서천으로 향하던 중 부인이 발병이 나서 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오구대왕풀이'에서는 부인이 몽은사로 향하던 도중 산적의 집에 붙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도적은 방해자로서 다른 서사체의 방해자인 장자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 모티브의 변형으로 볼 수 있겠다. 각 단락별로 기호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F. 부인이 발병이남

G. 가해자가 사는 곳으로 감

H. 부인이 종으로 팔림

I. 태어날 아이 이름을 정해줌

이들 단락이 각 서사체별로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두 작품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공본풀이 : F, G, H, I

안락국태자전 : F, G, H, I

안락국전 : F, G, H, I

악양국왕자노래 : F, G, H, I

신선세턴님청배 : I

기림사사적 : F, G, H, I

오구대왕풀이 : G

전개에서는 ‘신선세턴님청배’, ‘오구대왕풀이’를 제외한 다섯 편 모두 F~I항을 지니고 있어 동일한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큰 흐름은 위에서 보다시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왕과 부인이 장자의 집에서 헤어질 때 부인이 왕에게 왕생계를 외우도록 한다. 이때 ‘안락국태자전’에서는 왕생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안락국전’에서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소설이라는 장르에는 불필요한 요소이며 ‘안락국전’의 흥미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신선세턴님청배’, ‘기림사사적’에서는 대왕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떠나는 반면, ‘악양국왕자노래’에서는 왕후가 직접 이름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보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거의 동일한 전개과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라. 위기

여기서 위기라 함은 부인과 안락국이 장자로부터 받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우선 부인이 장자의 동침요구를 거절하여 크게 화가 난 장자로부터 죽음에 처할 위기 혹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게끔 강요받는 장면이 있으며, 안락국이 장자의 집을 탈출하다가 붙잡혀 화가 난 장자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 혹은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장면을 위기부로 설정하였다. 단락별로 기호를 부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J. 가해자의 동침요구

K. 가해자에 의한 노역

1. 부인
  2. 부인과 아들
- L. 안락국의 탈출 시도  
M. 가해자의 종에게 붙잡힘  
N. 가해자에 의한 부인의 죽음

각 서사체별로 위기부의 단락구성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공본풀이 : J, K2, L, N  
안락국태자전 : L, M, N  
안락국전 : J, K2, L, M, N  
악양국왕자노래 : L, M, N  
기림사사적 : J, K1, L, M, N  
오구대왕풀이 : J, L, N

다른 서사체와는 달리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는 J·K항이 없어 둘 사이의 친연성을 알 수가 있는데 둘 사이의 친연성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L·N단락은 모든 작품에 나타나고 있어 안락국의 탈출과 부인의 죽음은 이야기 전개 과정에 필수항목을 알 수가 있다.

M단락은 불교계 서사체에는 빠짐없이 있는 반면 서사무가 쪽에는 ‘악양국왕자노래’만이 해당된다.

위기부에서의 공통점은 아버지를 찾아 탈출하는 것이며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 ‘기림사사적’에서는 탈출하다가 붙잡히며, 특히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는 잡힌 뒤 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 유사하다.

위기부에서는 안락국이 장자의 집을 탈출하여 붙잡힐 위기 상황에 놓이거나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공본풀이’와 ‘기림사사적’은 부인의 위기도 함께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공본풀이 : 위기1(母) - 장자가 원강암에게 동침할 것을 재차, 삼차 요구 하지만 그때마다 거절하여 죽이려 하나, 셋째 딸의 만류에 따라 母子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킨다.

위기2(子) - 할락궁은 천리통, 만리통을 따돌리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한다.

안락국태자전 : 위기1(母) - 장자가 부인에게 첩살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한사코 거절하여 노한 장자가 노역을 시킨다.

위기2(子안) - 안락국은 밤에 몰래 탈출하다가 붙들려 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만 다시 탈출한다. 그러나 안락국은 강을 만나게 되고 이에 왕생계를 위위 범마라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안락국전 : 안락국은 아버지를 찾아 탈출하지만 붙잡히게 되고 다시 탈출하여 통천의 도움으로 바다를 건너 부동의 추격을 따돌린다.

악양국왕자노래 : 악양국은 탈출하다가 문지기에게 잡혀 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만 다시 탈출하고 이를 눈치챈 장자에게 어머니는 죽게 된다.

신선세턴님청배 : 위기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

기림사사적 : 위기1(母) - 장자가 부인을 범할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해내기 어려운 일을 시키고 못할 경우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데 천녀(天女)가 모든 일을 대신 해준다.

위기2(子) - 장자가 항상 죽이고 싶어하다가 여섯 살 때 함정 속에 가두어 말라죽게 하였으나 어머니와 땅강아지, 개미의 도움으로 살아 남는다.

위기3(子) - 탈출하였으나 붙잡히게 되고 이에 장자는 죽이려다가 다시 이전에 다하지 못한 일을 재촉한다.

오구대왕풀이 : 위기1(母) - 산적의 두 차례에 걸친 동침요구를 채치로서 모면하고 옥단춘과 아들을 탈출시킨 후 자신은 목매어 죽는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공본풀이’에는 크게 두 번의 위기가 있다. 제1위기는 원강암이 장자의 동침요구를 제차, 삼차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 장자로부터 원강암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고, 제2위기는 할락궁이 도망친 것을 알고 장자가 보낸 천리통, 만리통의 추격을 받는 할락궁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런데 ‘안락국태자전’에는 안락국이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다시 탈출하여 강을 만난다는 위기의 순간은 있지만 원앙부인의 위기의 순간은 탈락되어 있다.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같지만 사건 진행과정이 다르다. 이를 두고 이현수는 “《태자경》에서 장자는 원앙부인을 종으로 삼고자 황금을 주고 사서 원앙부인과 장자는 주인과 종, 선과 악의 대표자로 제시되었을 뿐 결정적인 대립과 갈등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위기감을 조성하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안락국전〉에서는 첩을 삼으려고 사서 부인의 몸을 범하려는 장자의 음욕과 음흉한 마수로부터 벗어나려는 부인의 저항이 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sup>20)</sup>”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안락국태자전’에서 ‘안락국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학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기교들인 것이다.

‘악양국왕자노래’는 ‘안락국태자전’과 마찬가지로 장자의 동침요구가 없으며 부인의 수난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있어 ‘안락국태자전’과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반면에 ‘기림사사적’에서는 유난히 위기부가 강조되어 있으며 특히 안락국의 수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구대왕풀이’에서는 부인의 아들이 아직 어리므로 종이 안고 탈출한다.

## 마. 해결

해결부에서는 장자의 집에서 탈출한 안락국이 아버지를 만난 후 다시 어머니에게로 되돌아와 죽은 모친을 생명의 꽃으로 살려내거나 아니면 죽은 어

20) 이현수, 「불교설화의 소설문학적 수용」,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불교사상과 한국문학』, 아세아문화사, 2001, p.37.

머니가 이미 신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다. 단락별로 기호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O. 생명의 꽃으로 어머니를 재생시킴

P. 부인은 죽임을 당한 후 신됨

역시 서사체별로 단락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공본풀이 : O

안락국태자전 : P

안락국전 : O

악양국왕자노래 : P

기림사사적 : O

‘신선세턴님청배’와 ‘오구대왕풀이’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편은 어머니에게 되돌아가지만 이미 어머니는 죽어 있는 장면에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들로 나눌 수 있다. ‘이공본풀이’,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에서는 죽은 사람을 꽃으로 재생<sup>21)</sup>시키는 것이 동일하고, ‘안락국태자전’, ‘악양국왕자노래’는 이미 어머니가 부처(안락국태자전) 혹은 신선(악양국왕자노래)이 되었음을 하늘에서 알려 오는 것이 동일하다. 여기서도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위기부에 이어 해결부에서도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가 동일한 단락구성을 보이고 있어 서사무가 중 ‘악양국왕자노래’가 ‘안락국태자전’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생모티브는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승분포를 보이는 ‘바리공주’ 무가에서 바리데기가 아버지를 살려내는 모티브뿐만 아니라,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에서 3형제가 죽어있는 자신들의 어머니 ‘자지

---

21)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재생이란 다시 살아난다는 말로서 영육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

명아기'를 살려낸다는지, '문전본풀이'에서 일곱째 아들이 물 속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다가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도환생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내 조왕신으로 좌정케 한다는 재생 모티브 이외에도 바리공주가 구해온 약수물과 환생꽃에 의한 아버지의 재생 등에서 흔히 찾아 볼 수가 있다. 불교에서는 환생적 사고관이 지배적이라면, 우리 고유의 신앙관은 재생적 사고관임을 여기에서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의 해결부를 보면 할락궁의 복수와 어머니의 재생 장면이 극적으로 펼쳐지는 반면 '안락국태자전'이나 '기림사사적'에서는 복수의 장면이 없다. 이것은 巫와 佛의 사상적 차이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안락국태자전'은 안락국의 위기 장면만을 제시하고 있음에 비해 '이공본풀이'에서는 할락궁과 원강암의 위기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결부에서도 '이공본풀이'는 할락궁의 복수와 원강암의 재생 장면이 있어 '안락국태자전'에 비해 극적인 흥미를 한층 배가 시켜줄 뿐만 아니라 문학성에 있어서도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락국전'은 '안락국태자전'과 대비했을 때 거의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결부에서 보면 '안락국태자전'에서는 아버지를 만난 후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 왔을 때 어머니가 부처가 되었음을 하늘에서 알려 오는데 비해 '이공본풀이'와 '안락국전'에서는 죽임을 당한 사체를 모아 놓고 꽃으로 재생시키는 것이라든지, 현세에서 장자일당이 징치되는 것이 일치하고 있어 '안락국전'은 '안락국태자전' 뿐만 아니라 '이공본풀이'와도 상당한 친연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꽃으로 어머니를 재생시키는 것과 장자일당의 현세적 징치는 '이공본풀이'와 '안락국전'이 유사하고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고 있으니 하늘에서 어머니는 이미 신선 혹은 부처가 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이 오히려 유사함을 알 수가 있다.

'기림사사적'은 어머니의 주검을 찾기 위해 목동에게 다시 노래를 들려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목동이 이를 거절을 한다든지, 장자 집에서 키우던 99마리의 개가 물고 갔던 뼈를 다시 가져다 준다는 점, 어머니를 살려내자 큰 홍수가 졌다는 것들은 다른 서사체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며 흥미로운

사건들이다. 특히 홍수가 저서 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 밤을 지새는 내용은 홍수설화 모티브의 수용으로 보인다.

## 바. 좌정

좌정부에서는 ‘오구대왕풀이’를 제외한 여섯 편에서 한결같이 누가 무엇으로 좌정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오구대왕풀이’에서 전반부 오구대왕의 부모 이야기 부분에 좌정기가 없는 것은 ‘바리공주’무가에 이공본풀이계 서사체가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본격적인 바리공주 일대기에 신의 좌정기가 나오기 때문에 좌정기가 두 번 나올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단락별 기호를 Q로 하면 다음과 같은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Q. 신으로 좌정됨

1. 토착적
2. 불교적

신으로 좌정하는 내용은 동일하나 각 서사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공본풀이 : Q1

안락국태자전 : Q2

안락국전 : Q2

악양국왕자노래 : Q2

신선세턴님청배 : Q1

기림사사적 : Q2

여섯 편의 서사체 모두 신으로 좌정되면서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신의 성격에서 서사무가와 불교계 서사체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유독 ‘악양국왕자노래’는 서사무가임에도 불구하고 좌정된 모습

이 부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 불교적 색채가 강함을 알 수가 있다. 이 또한 ‘안락국태자전’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신으로 좌정된 모습이다.

이공본풀이 : 할락궁은 꽃감관을 하고, 원강암은 저승어미가 되고, 사라대왕은 저승아버가 되었다.

안락국태자전 : 광유성인은 지금의 석가모니불이고, 사라수대왕은 아미타불이고, 원강부인은 지금의 관세음보살이고, 안락국은 대세지보살이며, 승열바라문은 문수보살이고, 오백제자는 오백나한이며, 자현장자는 무간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안락국전 : 사라수대왕은 아미타불이 되고, 승여래바라문은 미륵보살이 되고, 팔시녀는 팔금강이 되었다.

악양국왕자노래 : 아버지는 부처님이 되었고, 자인장자는 천상에서 벼락을 내렸다.

신선세턴님청배 : 산아수대왕이 죽은 혼이 세턴님으로 이때부터 꽃이 다시 피게 되었다.

기림사사적 : 광유성인은 석가이고, 원광부인은 관음보살이고, 안락국은 대세지이고, 팔채녀는 팔대보살이다.

오구대왕풀이 : 부인의 사체를 찾지 못하다가 오작의 도움으로 뼈만 남은 부인을 꽃가마로 모셔와서 능을 크게 하여 모신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3명의 주인공이 모두 신으로 좌정을 하게 되지만 그 과정은 사뭇 판이하다. 사라도령은 큰 어려움 없이 옥황의 사자를 따라 서천으로 가서 꽃감관을 하게 되고 순조롭게 신직을 부여받는데 반해 할락궁과 원강암은 그렇지 못하다<sup>22)</sup>. 할락궁의 고난은 이미 우

22) 본 연구대상이 된 각각의 작품마다 등장인물의 명칭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주도 서사무가 ‘이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주동인물의 명칭인 ‘사라도령’, ‘할락궁’, ‘원강암’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 필요하게 되고 ‘이공본풀이’를 그 중심작품으로 설정하였기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공본풀이’의 명칭을 대표형으로 삼도록 하겠다.

리 신화의 예를 보면 예측 가능한 일이다. ‘동명왕 신화’에서 주몽이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지내다가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고 결국 부자가 상봉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할락궁의 아버지 탐색모티브와 너무도 유사하다. 우리의 신화에서 이러한 고난은 주몽이나 할락궁과 같은 영웅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다.

원강암 또한 김장자에게 술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몇몇 선행연구에서 원강암을 여성영웅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영웅으로 보기에 너무나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 안락궁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웅성도 없고, 옥황으로부터 천상의 꽃감관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음으로서 이미 신직이 보장된 사라수대왕과도 그 처한 상황이 다르다.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원강암이 신으로 좌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신으로 좌정되기 위해서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강암은 장자로부터 고초를 당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다시 재생하게 된다. 원강암의 재생은 단순히 다시 살아남이 아니라 신성의 자격을 얻은 재생이며 상승을 위한 하강(장자의 종이됨)이 되는 것이다. 즉 원강암은 죽음이라는 제의적 상징을 거쳐 완전하고 좀 더 높은 자격을 지닌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제의나 신화가 융성하던 시대에 인간은 ‘영구한 존재’ 속에서 살기를 회구했다. 그들은 제의를 통해 창조의 반복과 순환을 재현하고 그 상징성을 통해 역사의 흘러가는 속성을 폐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의 입사상징으로는 죽음과 재생, 여행과 귀환의 回歸모티프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sup>23)</sup>. 이것으로 보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신화시대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겠다.

‘신선세턴님청배’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선세턴님청배’는 내용의 생략됨이 많아 이야기로서의 짜임새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의 여섯 작품에 비해 현격히 짧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건 전개에 있어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23) 김열규, 朱鉦, 「민담과 문학에 있어서의 입사식담」, 『민담학개론』, 일조각, 1997, p.232.

인물의 명칭뿐만 아니라, 사건과 기본 줄거리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공 본풀이계 서사체의 다른 작품들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신선세턴님청배’ 내용의 빈약함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짧은 스토리 속에서 신의 내력을 풀이하자니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공통되게 하고, 중간 부분은 축소·생략하여 핵심 사건만을 간추려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구대왕풀이’를 제외한 앞의 다섯 편에서는 옥황님, 광유성인 혹은 부처님이 살고 있는 천상계의 꽃감관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임에 반해 ‘신선세턴님청배’에서는 꽃수레일을 맡았으나 꽃을 죽게 하는 죄를 지어 잡혀간다는 사건의 설정임으로 길을 떠나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또한 주인공의 노정기가 완전 생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일을 도와 주거나 방해하는 반동인물과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 서사체의 주인공 중의 한명이라 할 수 있는 안낙동(할락궁, 악양국 또는 안락국)은 등장하지조차 않는다.

신선세턴님청배의 구성단계 보면 다음과 같다.

발단 : 옥황님의 분부로 꽃수레를 하였는데 가뭄과 홍수로 꽃이 죽는다.

전개 : 옥황님이 금부나장으로 하여금 원앙성부인과 산아수대왕을 잡아오도록 하매, 산아수대왕은 잡혀가지만 원앙부인은 태모가 되어 가지를 못한다.

결말 : 산아수대왕이 죽은 혼이 세턴님으로 이때부터 꽃이 다시 피게 되었다.

‘신선세턴님청배’는 “꽃이 죽어감 → 옥황님이 있는 곳으로 잡혀감 → 세턴님으로 좌정함”이라는 핵심사건의 제시만 있을 뿐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서사적인 인과논리에서의 일탈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야기로서의 흥미를 주는 위기와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는 이야기로서의 흥미성과 문학성의 결여를 초래하여 세턴님으로 좌정하게 된 경위의 단순 제시에 머물고 있다.

손진태가 채록한 평북지방의 무가<sup>24)</sup> 대부분이 ‘신선세턴님청배’와 거의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신선세턴님청배’는 평안북도 무가로 수용되면서 그 지방의 무가 형식에 맞도록 새롭게 재구성되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2. 영웅 일대기 구조의 원용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서사작품화한 본생담류이다. 사라수대왕<sup>25)</sup>이라는 명칭으로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석가모니는 동서남북에 각각 한 쌍씩 서 있는 사라수나무 사이에서 열반에 들었다. 따라서 원래의 사라수는 불교적 세계를 표상하는 나무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의 사라수는 사라수나무에 둘러싸여 열반한 대왕, 즉 석가모니를 일컫는 명칭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이러한 성격은 석가모니전생담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석가모니의 전생담<sup>26)</sup>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기 전의 이름은 선혜였다. 선혜는 부처가 될 공덕을 수도 없이 쌓았기에 앞의 부처의 뒤를 이어 다음 생애에 부처가 된 것이다. 석가모니의 전생인 선혜 때의 일이다. 선혜가 꽃

24) 손진태, 청구학총22호, 경인문화사, 1982.

25)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에서는 ‘사라수대왕’으로 신선세턴님청배에서는 ‘산아수대왕’, 이공본풀이에서는 ‘사라도령’ 그리고 악양국왕자노래, 오구대왕풀이에서는 ‘대왕님’이라고 명명되고 있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선세턴님청배에서의 ‘산아수대왕’은 발음상의 문제이지 ‘사라수대왕’에 다름 아니다.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도 ‘대왕’에서 ‘도령’으로 바뀌긴 하였으나 역시 ‘사라수대왕’이 변이·전파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악양국왕자노래, 오구대왕풀이에서의 ‘대왕님’도 ‘사라수대왕’을 축약한 명칭일 듯하다. 그런데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전승된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은 ‘사라수대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서사무가로 전승되고 있는 신선세턴님청배, 이공본풀이, 악양국왕자노래, 오구대왕풀이에서는 약간씩 변형되어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전승물과 무가의 차이점을 엿볼 수가 있다.

26) 《석가여래십수행기》의 10지 〈실달태자전〉과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에 수록된 석가모니의 일생을 바탕으로 하였다.

파는 소녀 구이에게 오백 은전으로 꽃 다섯 줄기를 사서 보광불님께 바치고 싶다고 하자 구이는 자신도 꽃을 보광불님께 바치고자 하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선혜가 “너는 보광불께 그 꽃을 공양하여 너 자신의 공덕을 쌓고자 하지만, 나는 보광불께 그 꽃을 공양하여 중생들이 모두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니, 어느 것이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한다. 이에 구이는 선혜에게 자신의 꽃을 모두 바치게 된다. 여기에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와의 유사점을 찾았다면 꽃으로 공덕을 드린 결과 나중에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처음에는 8채녀를 꽃밭 수레로 보냈으나 광유성인이 누구를 위하여 물을 길는가 하고 묻자 자신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자 이에 사라수대왕을 직접 청하여 꽃감관이 되게 한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석가모니 일대기에서도 구이는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 보광불께 꽃을 바치겠다고 하자 선혜는 자신이 꽃을 보광불께 공양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구제코자함이기애 구이의 꽃을 모두 받아 자신이 직접 바친다. 이렇게 볼 때 ①꽃이 나중에 부처가 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점과 ②8채녀가 자신들의 공덕을 위해 꽃수레 일을 한다고 하여 결국 사라수대왕이 직접 꽃수레 일을 하게 되듯, 구이가 자신의 소원성취를 위해 꽃을 바치는 것보다는 선혜 자신이 모든 중생들을 위해 꽃을 공양하는 것이 큰 공덕이라 하여 구이의 꽃을 받아 직접 바친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처럼 많은 공덕을 쌓은 선혜는 오랜 세월 뒤에 정반왕의 아들인 실달태자로 태어난다.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떠나고 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 사라수대왕 역시 일국의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공덕을 쌓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고 결국 부처가 된다.

마야부인은 태자를 낳은 지 이레만에 죽는다. 그것은 출산에 따른 산고 때문이 아니다. 과거 수많은 부처의 어머니들이 모두 부처의 출생 이레만에 죽었던 것이다. 그것은 태자가 자라서 출가하게 되면 그 이별의 아픔으로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기 때문이며, 또 보살을 낳은 후의 어머니는 너무나 고귀한 몸이라서 속세의 다른 어머니처럼 세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앙부인 역시 아들 안락국을 떠나 보낸 후 장자

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죽음의 이유가 다른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마야부인이 죽은 이유는 첫째, 이별의 아픔 때문이며, 둘째, 세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원앙부인 역시 안락국이 장자의 집을 탈출하는 사건 즉 아들과의 이별이 그 원인이 되었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장자의 꿇질 긴 동침요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장자의 종이 된 신분이지만 자신의 몸을 함부로 허락할 수 없는 고귀한 몸이었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실달태자가 부처가 되는 과정을 그린 불교적 신화와도 부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악양국왕자노래’의 조사 기록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sup>27)</sup>. 무녀는 ‘악양국왕자노래’를 ‘經’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음보살 전생록”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가 석가의 전생담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전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 서사구조에 맞게 재창작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웅의 일대기구조이다. 물론 실달태자전도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각 부분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며 작품 전체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구조이다. 구조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레비슈트로스에 의해 개척된 병립적 구조이다. 이것은 이야기의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이야기에 내포된 삶/죽음, 남성/여성 등의 기본적인 대립을 찾아내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프에 의해 개척되고 던테스에 의해 계승된 순차적 구조이다<sup>28)</sup>. 이야기를 순서에 따라서 부분으로 나누고, 부분들의 근본적인 성격과 그 관계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순차적 구조분석을 기본 연구 방법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7) 어린것을 두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주로 부르는 경으로 제보자가 이 노래를 책자로 본 적은 없으나 “관음보살 전생록”을 다만 굿마당에서 듣고 외워하는 것이라 말했다. 조사자가 “악양국 왕자 노래”라 이름을 붙여봤는데 “안락국태자경”이 무가화한 노래이다.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8-9(경상남도 김해시·김해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어문연구실, 1983, p.123.

28) 장덕순의 공저,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8, pp. 65~66.

조동일은 영웅의 일생이라는 傳記유형이 한국서사문학의 근간이 된다는 것에 착안해서 신화, 서사무가, 고전소설, 신소설 등의 주인공들의 일대기를 대비·검토한 바 있다<sup>29)</sup>.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 B. 비정상적으로 태어나,
- C. 어려서부터 비범했으나,
- D. 일찍 기아가 되거나 고난에 부딪혀,
- E. 구출·양육자를 만나 살아나고,
- F. 다시 죽을 고비에 이르렀으나,
- G. 투쟁에서 승리해 영광을 차지했다.

영웅의 일생은 이처럼 일정한 유형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A~G까지의 각 요소에 연구대상으로 삼은 일곱 편의 작품을 대입시킨 후 원용, 변용, 탈락 등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풀이는 맞이곳을 할 때 의례의 정당성과 원초적 질서로 회귀·갱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신화의례인 본풀이 재차에서 신을 출현시키고 의례효험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래 불려지고 있다<sup>30)</sup>.

제주도 서사무가 ‘이공본풀이’는 불도맞이곳과 큰곳의 이공맞이제에서 구송되며 심방은 청한 신과 구경꾼들에게 동시에 곳에서 청한 대상신의 일생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공본풀이’는 엄숙한 제의의 한 요소로서 노래 불려지는 신성한 무속 주체신의 일생담이라 할 수 있으며, 서사양식으로서도 소설 못지 않은 견고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서사무가이다. 탄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신격화되는 과정에서, 비범한 탄생과 파란만장한 고난의 중첩과 그 극복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는 줄거리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공본풀이’는 영웅의 성취담과도 같은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영웅일대기 유형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영웅의 일대기구조에

29)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학교동아문화연구소, 1971.

30)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299.

맞아떨어지는 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김정국과 임정국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애태우다가 수록불공을 드린 후에 낳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의 자식이기에 “A. 고귀한 혈통”임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 없이 종이 된 홀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에 “B. 비정상적인 출생”이라 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험난함을 무릅쓰는 활락국의 모습에서 “C. 비범성을 암시” 받을 수 있으며, 김장자에 의한 혹독한 노동과 핍박을 당하는 것에서 “D. 일찍이 기아가 되거나 고난에 부딪힌다”는 것과 일치한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장자의 집으로 갔을 때 장자가 죽이려 하는 것은 “F. 다시 죽을 고비에 이르러는 장면”이고, 셋째 딸만 살리고 나머지 김장자 일가를 모두 죽인 후 신으로 좌정한다는 것은 “G. 투쟁에서 승리해 영광을 차지한다”는 것에 일치된다. 그러므로 ‘이공본풀이’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락국태자전’은 〈월인석보〉 제8 월인곡 기(其) 220에서부터 250까지 총 31곡에 해당하는 상절부로서 狹註細字로 수록되어 있으며 세 가지 형태의 저본<sup>31)</sup>을 가지고 있는 불교계 강창변문 체제를 구비한 僞經이며 불타의 일생인 본생담으로서 서사성이 뛰어나며 줄거리에 있어 제주도 서사무가 ‘이공본풀이’와 아주 유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상이함을 보인다. 인물의 명칭과 기능이 다르거나, 기능은 같지만 명칭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상술 할 것이다. 사건진행은 ‘이공본풀이’와 마찬가지로 단순·평면적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공본풀이’가 무속대상신의 일생담이었다면 ‘안락국태전’은 불타의 일생담이라 할 수 있다.

‘안락국전’은 〈석보상절〉의 ‘안락국태자전’을 소설화한 불교계 국문소설이므로 기본구조는 동일하다. 인물명칭에서나 기본구조 면에서 ‘안락국태자전’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으나 극적 전개를 위한 장치는 오히려 ‘이공본풀이’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장자가 부인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장면이라든지, 꽃으로 어머니를 재생시킨다든지 목동이, 부동이, 장자가 현세에서 징치되는 장면은 ‘안락국태자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

31) 〈석가여래십지수행록〉의 부록으로 전하는 ‘안락국태자경’과 〈함월산기림사사적〉의 일부로 전하는 ‘기림사록기문’, 그리고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부록으로 필사된 ‘기림고적’이 그것이다.

공본풀이'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이들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 역시 영웅의 일대기 유형에 대입시켜본 결과 F항만 빠졌을 뿐 '이공본풀이'와 다를 바 없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악양국왕자노래' 역시 F항의 생략과 투쟁 없이 바로 영광을 차지했다는 G항의 변용이 있어 다를 뿐 전체적으로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안에 있다.

'신선세턴님청배'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신선세턴님의 근본이 깊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안낙동 역시 고귀한 혈통이 될 것임을 알 수 있고, 아버지 없이 태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비정상적인 출생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외에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부합되는 부분이 없다. 그나마 A, B항마저도 그러할 것이라는 암시만 있을 뿐 뚜렷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안낙동의 일생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림사사적' 또한 '이공본풀이'와 마찬가지로 영웅의 일대기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오구대왕풀이'를 보면 영웅의 일대기와는 전혀 무관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을 오구대왕의 부친으로 상정하든, 모친으로 상정하든 마찬가지이다. 단지 꽃밭의 설정, 물 공양 모티브, 부인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惡의 공간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 아들은 악의 공간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와 만나게 된다는 모티브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바리공주'무가에 편입되면서 대폭적으로 변이 된 것에 불과하다. 이상의 결과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A	B	C	D	E	F	G
이공본풀이	○	○	○	○	○	○	○
안락국태자전	○	○	○	○	○	×	○
안락국전	○	○	○	○	○	×	○
악양국왕자노래	○	○	○	○	○	×	○
신선세턴님청배	○	○	×	×	×	×	△
기림사사적	○	○	○	○	○	○	○
오구대왕풀이	○	×	×	×	×	×	×

(원용:○, 변용:△, 탈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한국서사문학의 근간이 되는 영웅의 일대기구조에 들어맞고 있어 본생담류를 그대로 모방했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 본생담은 석가의 출생연유를 강창형식으로 밝힌 작품으로 내용상으로 볼 때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서사화한 작품인 것이다. 그런데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사라수대왕(석가모니) 1인의 일대기가 아니라 사라수대왕-원앙부인-안락국이 순차적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락국이나 원앙부인이 오히려 사건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안락국태자경’이 경전의 체재를 충실히 따랐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서사문학적 영향도 상당히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려조 창창문학으로서의 ‘안락국태자경’은 사라수대왕 1인의 전생담이었으나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부친탐색담과 결합한 결과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서사문학에 부친탐색담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제석본풀이<sup>32)</sup>’, ‘동명왕신화’, ‘초공본풀이’, ‘칠성본풀이’등 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몽의 아들 유리는 사람이 정한 아버지가 없이 무슨 낫으로 살겠느냐며 자살을 하려하자 부친이 숨겨 둔 신표를 찾아내어 졸본으로 가서 왕 노릇을 하는 부친을 만나보라고 한다. 이에 길을 떠나게 되고 결국 아버지를 만나 아들임을 인정받게 된다. 이공본풀이에서도 활락궁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어머니에게 끈질기게 묻게되고 결국 어머니는 사라도령과 헤어질 때 신표로 나누어 가진 물건을 주며 서천에서 꽃감관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한다. 이에 활락궁은 아버지를 찾아 서천으로 떠나고 결국 아버지를 만나 신표를 보여 아들임을 인정받는다.

이것으로 위경으로서의 ‘안락국태자경’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우리 서사문학의 영향을 받아 토착화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주인공은 보통의 사람들과 차별되는 것은 틀림이

32) 토굴에 갇힌 딸아기는 삼형제를 출산하고 아들들을 양육하며 동점들에게 아버지는 자식이라고 기롱을 당한 아들 삼형제가 부친의 근본을 묻자 아들들을 데리고 스님을 찾아간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러나 서남지역에서는 임신한 몸으로 추방당한 딸아기가 바로 스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p.258.

없으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양식이 너무도 평범하다. 조선조 소설에서 흔히 보는 그러한 이야기 양식과 다르지 않다. 활락궁이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서천꽃밭의 주술적인 꽃 때문이라는 점 외에는 일상적인 사건 그대로이다<sup>33)</sup>. 석가여래십지수행기·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에서 보이는 마귀를 물리치는 신이한 행적과 웅장한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조선조 일반적인 영웅소설류의 이야기 수준에서 그들의 일생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불교의 본생담이 우리 서사문학으로 동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3. 에피소드 단위의 連網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 ‘기림사사적’의 화소를 다시 재구성해 보면 전체 작품이 두 개의 서사적 줄거리로 전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34)</sup>.

우선 ‘이공본풀이’부터 살펴보면 전반부는 사라도령이 원강암과 함께 꽃감관을 하기 위해 서천으로 가는 노정기가 그 중심 내용이며, 후반부는 활락궁이 아버지를 찾아서 서천으로 가는 노정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전반부를 제1노정기, 후반부를 제2노정기라 한다면, 노정기의 반복에 의해 전체 줄거리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안락국태자전’이나 ‘안락국전’, ‘기림사사적’도 다를 바 없다. 전반부는 사라수대왕과 원강암이 서천으로 향하는 제1노정기, 후반부는 안락국이 아버지를 찾아 서천으로 가는 제2노정기로 이루어져 있어 ‘이공본풀이’와 같이 노정기의 되풀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악양국왕자노래’ 역시 대왕님이 부처님 국토로 향하는 제1노정기와 악양국이 아버지를 찾아 부처님 국토로 향하는 제2노정기로 이루어져 있다. ‘기림사사적’ 역시 제1, 2노정기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선세턴님청배’는 이공본풀이계 무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정기의 되풀이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신선세턴님청배’는

33) 현길언, 「제주 무속 설화의 장르적 성격」,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p.660.

34) ‘신선세턴님청배’와 ‘오구대왕풀이’는 서사구조면에서 대폭적으로 생략·변모되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동계 무가와의 구성단계나 영웅일대기구조의 대비에서도 유사점보다는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이유를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 할 수 있다. 즉, “꽃이 죽어감 → 옥황님이 있는 곳으로 잡혀감 → 세턴님으로 좌정함”이라는 핵심사건의 서술만 있으며, 안낙동의 일대기가 완전히 탈락되어 있기 때문에 노정기의 되풀이구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선세턴님청배’는 지나친 탈락과 핵심 사건만의 서술 등으로 표층구조상에 나타나는 긴밀성 즉, 문장 간의 응집성의 결여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이공본풀이계 무가 혹은 ‘안락국태자전’을 모태로 해서 변형·탈락·재구성된 것이 ‘신선세턴님청배’라고 본다면 생략된 부분의 추론은 충분히 이루어 질 것이며, 변형·재구성된 부분 또한 함축적 재수용으로 해석 가능해 질 것이다.

‘신선세턴님청배’가 이렇게 많은 변형·탈락·재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 과정 → 좌정”이라는 일관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서사무가라는 상황성과 의도성에 묶여 있다는 것과 이공본풀이계 무가 혹은 ‘안락국태자전’과의 상호텍스트성에 기인하는 바이다.

‘오구대왕풀이’는 오구대왕의 부친이 물 공양을 하기 위해 몽은사로 힘겹게 가는 장면 이후로는 부인이 줄곧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 몽은사로 가는 노정과 산적 집에서 수난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남편과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한 여인의 비극을 보여 주고 있다.

제1노정기와 제2노정기의 되풀이 구조는 주인공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즉 ‘이공본풀이’의 제1노정기의 주인공은 사라도령이고, 제2노정기의 주인공은 활락궁이다. 그런데 제1노정기와 제2노정기의 중간에 원강암이 김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려 장자의 끈질긴 동침요구와 죽을 위기,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수난기가 있다. 이 수난기의 주인공은 원강암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공본풀이’에서는 사라도령이 주인공인 시기, 원강암이 주인공인 시기, 활락궁이 주인공인 시기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주인공이 함께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좌정기가 있다. 그렇다면 ‘이공본풀이’는 “제1노정기 - 수난기 - 제2노정기 - 좌정기”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들 각각의 단

위들은 일관된 서사성을 가지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제1노정기에서의 중심인물은 사라수대왕이고, 수난기의 중심인물은 원강암이며, 제2노정기에서는 할락궁이 된다. 그리고 좌정기에 이르러 세 중심인물이 神으로 격상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공본풀이’는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무가가 아니라 3명의 중심인물이 순차적으로 부각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구조 즉 에피소드 단위의 연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안락국태자전’도 ‘이공본풀이’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공본풀이’의 수난기에서 원강암이 장자로부터 받는毘박은 구체적이어서 장자의 악행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안락국태자전’에서는 원앙부인이 장자에게 받는毘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공본풀이’에 비해 수난기가 약화되어 있다.

‘이공본풀이’와 ‘안락국태자전’에서의 사라도령과 사라수대왕은 제1노정기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반면, ‘안락국전’의 제1노정기는 급격히 약화되고 오히려 석가세존이 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인물로 부각된다. ‘이공본풀이’와 ‘안락국태자전’에서의 옥황이나 광유성인은 꽃감관을 시키기 위해 천상으로 부르는 역할만 잠시하고 숨는데 반해 ‘안락국전’의 전반부에서의 석가세존은 사건을 주도해 가는 주동인물로 부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라수대왕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그런데 ‘안락국태자전’은 원앙부인의 수난기가 미약한데 반해 ‘안락국전’에서의 수난기는 오히려 ‘이공본풀이’보다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원앙부인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안락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제2노정기도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공본풀이’나 ‘안락국태자전’의 구조로 파악된 “제1노정기 - 수난기 - 제2노정기 - 좌정기”라는 구조를 ‘안락국전’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희미하게나마 위의 4단계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1노정기와 제2노정기가 약화되고 수난기가 강조됨으로써 이 작품 전체의 주인공은 원앙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신선세턴님청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구조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

다. 안낙동은 등장하지도 않으며 원앙성부인도 미약하게 등장할 뿐이다. ‘신선세턴님청배’의 핵심 내용은 세턴국의 꽃이 다시 피게된 것은 산아수대왕의 죽은 혼이 세턴님이 되면서부터이고 이러한 세턴님이 되게 된 연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때문에 노정기나 수난기는 있지도 않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산아수대왕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인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세턴님청배’의 주인공은 산아수대왕인 것이다.

‘기림사사적’에서는 노정기에 비해 수난기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원광부인보다도 안락국이 장자로부터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살펴본 II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입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불교계 서사체와 서사무가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사무가는 주인공의 가족이 먼저 등장하는데 반해 불교계 서사체는 비현실계의 신성한 인물이 먼저 등장한다. 또 서사무가에서는 자식이 없어서 아이 갖기를 기원하는 장면이 있는데 반해 불교계 서사체는 이러한 모티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성단계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이 발견되었는데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의 친연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위기·해결·좌절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신선세턴님청배’의 서사전개 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내용의 지나친 축소·생략에서 찾았다.

‘오구대왕풀이’는 ‘바리공주’무가 전반부에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내용이 편입된 것이다. 오구대왕 부부와 바리공주 일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대폭적인 변이의 과정을 거쳐 수용되었으므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석가모니의 전생담인 실달태자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달태자의 일대기구조로 전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 서사구조에 맞게 재창작되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1인의 주인공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

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주인공이 순차적으로 부각되면서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라도령이 천상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제1노정기, 원강암이 장자로부터 고통받는 수난기, 할락궁이 아버지를 찾아 탈출하여 길을 떠나는 제2노정기 그리고 세 주인공이 함께 신으로 상승되는 좌정기로 나누었다. 이들은 각각의 단위가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을 에피소드단위의 연망이라 하였다.

### Ⅲ. 등장인물의 기능과 성격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들 각각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비교만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그 기능 또한 다층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인물의 기능과 성격을 밝혀내는 것은 작품의 실상을 파악하는 기초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석보상절에 수록된 ‘안락국태자전’을 제외한 다른 작품들의 경우 주인공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서 초월적·이상적으로 그려져 있으며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어진다. 그리고 이 주인공에 의해 주제가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경우 사라수대왕·원앙부인·안락국이 사건전개에 있어 일정부분을 분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중심인물로 보느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진다. 즉 사라수대왕을 중심인물로 보면 석가모니의 전생담이 되고, 원앙부인을 중심으로 보면 여성의 희생과 수난으로 볼 수 있고, 안락국을 주인공으로 보면 영웅의 일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주인공을 3명으로 보고 이를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 수난기의 주동인물, 제2노정기의 주동인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가. 주동 인물

‘신선세턴님청배’는 산아수대왕이라는 주인공 1인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어 나가지만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 ‘기림사

사적’, ‘오구대왕풀이’는 각각의 삽화마다 중심인물이 다르게 나타남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각 삽화마다 순차적으로 부각되는 중심인물에 의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상황 혹은 인물 등을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신선세턴청배’는 1인의 주동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선세턴님청배’의 산아수대왕은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에 편입시켜 대비하도록 하겠다.

(1)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은 사라수대왕이다. 대왕은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꽃밭에 물공양을 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즉 이야기가 사라수대왕에 의해 전개되어나갈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의 시작이 바로 사라수대왕의 길떠남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 왕자노래	신선세턴님 청배	기림사 사적	오구대왕 풀이
주동인물 명칭	사라도령	사라수대왕	사라수대왕	대왕님	산아수대왕	사라수 대왕	대왕님
부여받은 직책명	꽃감관	유나	꽃밭수레	물감독	꽃수레	꽃밭수 리	.
목적지	서천	범마라국	서역국	부처님 국토	옥황님 있는 곳	범마국	몽은사
좌정된 모습	저승아비	아미타불	아미타불	부처님	세턴님	.	.

‘이공본풀이’는 이름 끝에 ‘-도령’이 붙지만 나머지는 ‘-대왕’이 붙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공본풀이’의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은 신분상의 차이점을 보인다. 사라도령은 김정국이라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서천꽃밭에서 삼차사가 왔으나 쌀이 없어 점심 대접을 하지 못하여 삼차사에게 혼이 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때문에 대왕으로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던 다른 여섯 편의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과는 신분상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락국태자전’과 ‘기림사사적’의 사라수대왕은 4백의 작은 나라와 408명의 부인을 거느린 서천국의 대왕이었고, ‘안락국전’의 사라수대왕 또한 문무백관을 거느린 대원국의 대왕이다. ‘악양국왕자노래’의 오구대왕은 불라국의 대왕이고, ‘신선세턴님청배’의 산아수대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삼십삼턴 이십팔숙이 본이라 하여 그 근본이 깊고 높은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오구대왕풀이’ 역시 천지개벽 초에 일국의 왕이었다.

이처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처음부터 신성성을 획득한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유독 ‘이공본풀이’만은 완전한 신성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신성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공본풀이’는 이러한 신분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부름을 받고 떠나가는 성격 또한 상이함을 보인다.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은 서천꽃밭으로 와서 꽃을 지키라는 옥황의 명을 세 번이나 받고도 가질 않다가 서천꽃밭에서 삼차사가 잡으러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떠난다. 그러나 ‘안락국태자전’의 사라수대왕은 기뻐하며 기꺼이 길을 나선다. ‘안락국전’의 사라수대왕 역시 만조백관과 백성들의 통곡을 뒤로 한 채 꽃밭 수레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서며, ‘악양국왕자노래’의 대왕님도 두 말없이 떠날 것을 결심한다. ‘기림사사적’에서는 세속적 고뇌를 하는 부분이 있어 이채롭다. 바라문이 대왕에게 가서 성인의 말을 고하니 왕이 이르기를 “일이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하의 주인이기에 쉽게 그 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에 부인이 성인을 뵙고싶다고 하자 그때서야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오구대왕풀이’에서 오구대왕의 부친은 몽은사에서 물 공양을 드리면 일곱태자를 본다는 말에 기꺼이 길을 떠난다.

이렇게 ‘이공본풀이’가 다른 동계 서사체와 차이가 나고 심지어 동계 서사 무가와도 다른 것은 제주도 무가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의 무속신의 일생담들은 대체로 본토의 무가에 비해 다분히 현실적이고 초월성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강정식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본토에서 무가는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으므로, 굳이 여러 사람의 관심사를 반영해 줄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토무가는 무가 자체의 맥락에서 이야기되면 그것으로 족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본풀이가 중심적인 문학장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신의 이야기에 범인의 이야기를 반영하게 된 것이고, 특히 문학창작의 주체가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본풀이에 가난의 문제가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이것이 ‘이공본풀이’가 신성성이 약화되고 현실적 측면이 강화된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한다.

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은 신이면서도 보통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이는 신앙민의 자기동일시 욕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고, 본풀이의 세계는 신앙민의 현실을 이상화해 놓은 세계라 할 수 있다<sup>36)</sup>. 제주사람들에게 무속은 종교적 의미보다 오히려 삶의 현장성과 역사성에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의미 있는 한 양식이었을 것이다<sup>37)</sup>.

‘오구대왕풀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은 죽어 가는 꽃을 살리기 위해 천상으로 가지만 ‘신선세턴님청배’의 산아수대왕은 이미 꽃수레를 하다가 꽃을 죽이는 죄를 지어 천상으로 잡혀가는 사건 전개를 보여 그 성격 면에서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공본풀이’에 있어서의 주동인물이 신분상으로는나 길을 떠나는 성격상으로는나 나머지 작품과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공본풀이’가 사상적인 면에서 다른 작품들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

35)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부속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7, p.29.

36) 강정식, 앞의 책, p.39.

37) 현길언, 「제주 무속 설화의 장르적 성격」,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p.664.

(2) 수난기의 주동인물

수난기의 주동인물은 도중에 발병이 나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자신을 종으로 팔아 그 돈으로 공양을 한다. 사라수대왕은 차사와 꽃밭으로 떠나고 장자의 종이된 부인은 장자의 집에서 안락국을 낳는다. 부인은 안락국과 함께 장자로부터 온갖 고초를 겪게 되고 아들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보낸 후 결국은 장자로부터 죽게된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	기림사사적	오구대왕풀이
주동인물 명칭	원강암	원앙부인	원앙부인	왕후	원광부인/ 안락국	대비마마님
수난기를 초래하게 된 동기	발병	발병	발병	발병	발명/관상	발병, 추위, 배고픔
수난의 구체적 사례	김장자의 동침 요구, 혹독한 노역, 죽음	죽음	죽음	죽음	노역, 죽음/ 죽을 위기, 노역	강제역류, 산적의 동침요구,
좌정된 모습	저승어미	관세음보살	.	신선	관음보살/ 대세지	.

수난기의 주동인물의 공통점은 모두가 한결같이 희생적이라는 것이다.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과 동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남편과 함께 험한 길을 따라 나서며<sup>38)</sup>, 도중 발병이 났을 때는 남편에게 자신을 장자의 종으로 팔 것을 애원한다. ‘안락국태자전’에서는 “내 몸을 종 삼으시어 장자의 집에 데려 가셔서 내 몸을 파시고 내 몸값과 내 이름을 가져다가 성인께 바치소서”라고 하며, ‘안락국전’에서도 자신을 장자에게 팔아 그 값을 장자에게 드릴 것을 애원한다. ‘악양국왕자노래’에서도 자신을 팔아 부처님께 보시하겠다고 하는

38) ‘오구대왕풀이’의 대왕마마님은 남편과 같이 길을 떠나지 않고 남편을 모셔오기 위해 시녀와 길을 떠난다.

희생과 봉양정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기림사사적’에서도 바라문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만류하나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장자의 종이 된다.

‘이공본풀이’와 ‘안락국전’에서는 원강암과 원양부인의 수난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서 장자의 악행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작품의 후반부에 극적인 전환을 일으켜 흥미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는 수난 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극적 전환의 묘미가 덜하다. 그런데 ‘기림사사적’의 수난기에서 장자의 악행이 극에 달해 다른 서사체에 비해 수난기가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안락국태자전’과 같이 마지막 부분에 장자의 징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구대왕풀이’의 대비마마님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재치 있는 행동으로 모면하여 산적으로부터 받는 수난 장면은 적다. 끊임없이 탈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아들과 옥단춘만 탈출시킨 채 자신은 자살을 하고 만다. 다른 서사체에서는 장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데 반해 ‘오구대왕풀이’에서는 자살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더욱 비극성을 심화시켜 주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부인을 여성영웅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일반적으로 영웅이 가지는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적극적·진취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강암은 남편과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남편과 아들 그리고 결국은 자신까지도 신으로 좌정하게 만드는 구원의 여인이며 희생과 정절, 인고의 미덕을 갖춘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이 아닌가 한다.

### (3) 제2노정기의 주동인물

안락국은 아버지를 찾아 떠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가 죽임을 당한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돌아왔다가 재생시킨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등장인물들 중 유일하게 현실계와 비현실계를 2회에 걸쳐 넘나드는 인물이다. ‘오구대왕풀이’와 ‘신선세턴님청배’에서는 안락국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	기림사사적
주동인물명칭	할락궁	안락국	안락국	악양국	안락국
탈출모티브	첫 시도에 성공	두 번째 시도에 성공			
노정의 목적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만남
위기모면 방책물	범벅	왕생계	왕생계	.	갈대 즐기
좌정된 모습	꽃감관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	.	대세지

위 표를 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을 찾을 수가 있다.

첫째,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은 완벽하게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어 제2노정기의 주동인물에 있어서는 ‘안락국전’이 ‘안락국태자전’을 그대로 원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주동인물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를 모면하는 방법이 다르다.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의 위기를 모면하는 방책물은 주문을 외는 것으로 다분히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기림사사적’에서도 갈대 즐기에 의지해 하늘과 신령의 도움으로 하안(河岸)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 기적적인 방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반해,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은 천리통, 만리통이 추격해 올 것임을 미리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적 영웅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 제주도 무속신의 성격이 대체적으로 인간적 영웅의 모습에 가까운데 이러한 제주도무가 성격이 ‘이공본풀이’라는 서사무가가 다른 서사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성격이 상이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V장에서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신선세턴님청배’와 ‘오구대왕풀이’에서는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의 아들의 태어나기는 하지만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최초의 사라도령과 원강암이 길을 떠나게 되는 원인은 던데스의 말을 빌리자면 결핍, 즉 영원성에 대한 결핍인 것이다. 이 영원성의 결핍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서천에서 꽃감관을 잘 수행하여 덕을 쌓고 중국에는 신으로 좌정되는 것이다. 던테스에 의하면 결핍 상태로 어떤 문제가 제시되면, 주인공은 결핍의 회복을 위해 길을 떠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반동인물과의 투쟁이 있으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여 결핍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사라도령과 원강암은 영원성의 결핍 때문에 길을 떠나고 결국에는 신으로 좌정되기에 영원성을 보장받는 결핍의 해소를 이루게 된다<sup>39)</sup>. 이것이 결핍-회복의 큰 틀이라면 할락궁은 이 큰 틀 안에서 결핍-회복을 2회 반복하는 작은 틀을 이루고 있다.

할락궁이 1차로 길을 떠나는 이유는 아버지의 결핍 때문이며 도중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나 조력자의 도움<sup>40)</sup>을 받아 아버지를 만남으로서 1차 결핍의 상태에 대한 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핍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할락궁이 아버지를 만난 대신에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또 다른 결핍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할락궁은 어머니의 결핍을 회복하기 위해 2차 여정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또 여기서 조력자의 도움<sup>41)</sup>을 받아 장자를 징치<sup>42)</sup>하고 어머니를 재생<sup>43)</sup>시켜 2차 결핍의 회복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39) '오구대왕풀이'에서 길을 떠나는 이유는 자식의 결핍 때문이다.

40) 이 상황에서 조력자가 등장하여 도움을 주는 작품은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 '기림사사적'으로 다섯 편이 이에 해당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15세 된 수두된 아이가 꽃감관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의 중간에서 서로에게 의사전달을 해주고 할락궁을 꽃감관에게로 데려간다. '안락국태자전'에는 팔채녀가 있고, '안락국전'에서는 안락국이 두 번째 탈출하여 동천 바닷가에 가 닿았으나, 배가 없어 건널 수가 없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부자 상면하게 해 주기를 애원하니 천동(天童)이 운대(雲臺)에 안락국을 태워서 건너게 해준다. '악양국왕자노래'에는 일곱시녀가 있으며, '기림사사적'에는 천인, 하늘, 신명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41) '이공본풀이'의 청태국 마귀할망과 장자의 셋째딸 얘기, '안락국태자전'의 소먹이는 아이의 노래와 극락세계에서 보낸 48용선, '안락국전'의 팔시녀, '악양국왕자노래'의 나뭇꾼과 열 살 먹은 처녀의 노래 그리고 하늘에서 보낸 꽃가마, '기림사사적'의 목동의 노래와 99마리의 개가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42) '이공본풀이'에서는 장자의 셋째딸을 제외한 장자의 일족을 멸망꼴으로 죽이게 되고, '안락국태자전'에서는 무간지옥으로, '안락국전'과 '악양국왕자노래'에서는 벼락에 맞는다.

43) 재생모티프는 '이공본풀이',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공본풀이'에서는 살오를 꽃, 뽕오를 꽃, 말할 꽃, 숨칠 꽃, 오장육부 만들 꽃으로 살려내고, '안락국전'에서는 백련화로 뼈를 적련화로 살을 만들고, 홍련화로 숨을 쉬게 하여 재생시킨다. 그리고 '기림사사적'에서는 오세옹화 중 첫째는 혈기, 둘째는 골절, 셋째는 피육, 넷째는 명진, 다섯째는 능언으로 이 다섯 색의 꽃으로 어머니를 재생시킨다. 그런데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에서는 어머니 재생모티프가 없다. 그대

다. 이것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父의 결핍→父를 찾아 떠남→조력자의 도움→결핍의 회복(父와의 만남) //

《1차 결핍-회복》

→母의 결핍→母를 찾아 떠남→조력자의 도움→결핍의 회복(母와의 재회)//

《2차 결핍-회복》

할락궁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의 영원성에의 결핍에 대한 회복 과정 속에 작은 주기의 결핍-회복의 반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할락궁의 결핍-회복의 반복 역시 결국에는 신으로의 좌정을 통한 영원성의 획득이라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 나. 반동 인물

‘오구대왕풀이’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편에서 반동인물의 명칭에서 모두 ‘장자’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는 장자못 전설에서의 장자와 같이 민중들의 부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정적인 인물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동인물의 3명이었으나 반동인물은 장자 1인에 국한되어 있고 그를 도와주는 보조반동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사건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흥미를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신에 ‘안락국태자전’에서는 이미 어머니가 부처가 되었음을 극락세계에서 알려주고, ‘악양국왕자노래’에서는 어머니가 신선이 되었음을 천상에서 알려온다. 이 부분에서도 ‘악양국왕자노래’가 ‘안락국태자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두 작품간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	신선세턴님청배	기림사사적	오구대왕풀이
반동인물	김장자	자현장자	자현장자	자인장자	.	자현장자	산적
보조반동인물	첫째 딸, 둘째 딸, 천리통, 만리통	장자의 중	목동이, 부동이	문지기	.	사십리를 보는자와 뛰는 자	산적의 부하와 여중
주반동인물의 징치된 모습	죽음	무간 지옥행	벼락에 맞음	벼락 맞음	.	.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공본풀이’의 김장자와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에서의 자현장자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서술됨으로써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에 비해 악행이 강조되어 있다.

주반동인물의 징치된 모습에서 ‘안락국태자전’만이 무간지옥행이라고 하여 내세관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죽었다’, ‘벼락에 맞았다’, ‘나무처럼 굳었다’라고 하여 죽음이후의 내세관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것은 ‘안락국태자전’이 위경을 문자화한 것이기에 불교적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무속신앙에서 내세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징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무속적 현세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이공본풀이’의 보조반동 인물에 사람 외에 천리를 보는 천리통과 만리를 보는 만리통이라는 개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안락국전’에 등장하는 목동이, 부동어도 천리를 보고 만리를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들은 사람이다.

‘이공본풀이’와 ‘안락국전’은 이들로 하여금 제2노정기의 주동인물을 추격하게끔 하여 스릴감을 한층 배가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구대왕풀이’에서는 산적은 후환이 두려워 깊은 산중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하여 대비마마의 억울한 죽음의 한이 풀리지 않은 채 끝을 맺는다.

## 2. 조력자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등장하는 주동인물·반동인물은 모든 면에서 유사함을 보인 반면 조력자는 각각의 작품마다 명칭·숫자·조력정도 등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공본풀이	안락국 태자전	안락국 전	약양국왕자 노래	신선세턴님 칭배	기림사사적	오구대왕 풀이
조력자 명칭	셋째 딸, 수두된 아이, 마귀할망	팔채녀	천동 팔시녀	일곱시녀, 나뭇꾼, 처녀아이, 하늘	.	천녀, 천인, 땅강아지, 개미, 하늘, 신령, 목동, 99마리 개	옥단춘, 오작들
조력 정도	소극적	수동적, 일회적	수동적, 일회적	수동적, 일회적	.	각 조력자마다 성격이 다름	적극적, 능동적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암의 발병으로 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리기 위해 갔을 때 첫째·둘째딸은 종으로 들이기를 거부했으나, 셋째딸이 집안을 다스림직 하니 종으로 살만하다고 하여 장자의 종이 된다. 그리고 후반에 다시 한번 등장하여 활락궁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잡히면 죽을 테니 달아나라고 일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락궁을 도우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활락궁이 탈출하여 천리통·만리통을 범벅을 먹여 따돌린 후 배나무 위에서 손가락을 잘라 글을 지어 물위에 띄우는 주술적 행위로서 꽃을 시들게 만든다. 이를 이상히 여긴 꽃감관이 수두된 아이(우두머리아이)에게 영문을 묻게되고 그 이유가 활락궁의 주술적 행위 때문인 것을 알고 수두된 아이에게 활락궁을 데려 오라 한다. 이것으로 보아 수두된 아이 역시 수동적이고 일회적 조력자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명의 조력자로 마귀할망이 등장하지만 셋째딸을 불러주는 역할만을 하여 이 역시 소극적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안락국태자전’에서는 안락국이 탈출하여 임정사에 다다라 채녀를 만나 사라수대왕이 있는 곳을 묻자 대왕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 이는 안락국의 물음에 단순히 답변한 것이기에 수동적 조력자에 해당된다. ‘안락국전’에서

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탈출하여 바닷가에 가 닿아 부자 상면케 해 주기를 빌어 천동이 안락국을 雲臺에 태워 건너게 해 주고 다시 백년화, 적련화, 흥련화를 가지고 되돌아가서 어머니를 살린 후 안락국이 원앙부인과 함께 흥천 바닷가에 다다라 서역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팔시녀의 배를 타게되는데 이 역시 일회적, 수동적 조력자라 할 수 있겠다. ‘악양국왕자노래’의 일곱시녀는 ‘안락국태자전’의 팔채녀와 마찬가지로 악양국의 물음에 답변을 해주는 수동적이고 일회적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악양국이 죽은 어머니를 찾아 되돌아 갈 때 나뭇꾼과 열 살 먹은 처녀아이가 노래를 불러 보리수 밑에 어머니의 주검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 역시 소극적, 일회적 조력자라 할 수 있다. ‘기림사 사적에서의 조력자는 다양하며 성격 또한 각각이다. 천녀와 천인은 적극적, 능동적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도와 준다. 땅강아지와 개미도 역시 죽을 위기에 처해있을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와주며 하늘과 신령은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목동과 99마리의 개는 조력 성격이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다. 목동의 경우 노래를 부름으로써 안락국의 어머니 주검이 어디에 있다는 단서를 주는데 안락국이 다시 한번 불러 줄 것을 요청하자 거절한다. 그리고 99마리의 개는 부인의 뼈를 하나씩 물고 갔다가 다시 안락국에게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닌 조력자들이라 할 수 있다.

‘오구대왕풀이’에서의 대비마마의 시녀 옥단춘은 아주 충직한 시녀로서 대비마마의 곁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오작들은 대비마마의 사체를 찾는 데 어떤 부탁이 없었음에도 능동적으로 도와 준다.

‘악양국왕자노래’는 ‘이공본풀이’와 동일계통의 서사무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공본풀이’에 비해 무가적 사상이나 색채가 불분명하고 ‘안락국태자전’의 불교적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리는 현세구복적인 모습은 ‘이공본풀이’와 동일하다. 이러한 것은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에는 없다. 또한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에는 왕생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림사사적에도 왕생계를 부르는 장면이 있지만, 두 서사무가에는 왕생계라는 소재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외의 두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락국태자전’이나 ‘안락국전’

에 오히려 더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즉 ‘악양국왕자노래’와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에서는 광유성인, 석가세존 혹은 부처님의 부름에 왕과 그 부인은 모든 현세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이공본풀이’에서는 차사에게 점심 대접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며 서천 꽃감관으로 세 번이나 오라는 명을 받고도 가지 않고 있다고 차사가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다. 또한 부인의 발병으로 장자에게 팔리는 대목에서도 ‘악양국왕자노래’와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그리고 ‘기림사사적’에서는 자신을 판돈으로 보시를 하겠다는 희생봉양정신이 있는 반면 ‘이공본풀이’에서는 발병의 고통으로 어쩔 수 없이 팔리게 되지만 자신을 봉양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악양국왕자노래’에서 악양국은 보리수 밑에 있는 어머니 사체를 부둥켜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데 어머니는 벌써 천상에 올라앉아 신선이 되었다는 말이 하늘에서 들려온다는 내용은 ‘안락국태자전’과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이공본풀이’에서 보이는 어머니를 꽃으로 살려내는 것이라든지 장자일당에 대한 현세적 징치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악양국왕자노래’는 ‘이공본풀이’와 동일 계통의 서사무가임에도 불구하고 무가적 색채보다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는 느낌을 준다. 여기에 대해 강정식은 ‘악양국왕자노래’는 ‘안락국태자경’이 經巫들에 의해 수용되어 오늘날까지 불려온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로 “이 노래는 어떤 곳에서 꼭 한다고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린것을 두고 세상을 떠난 어미가 있는 가정에서 주로 부르는 경으로 체보자가 이 노래를 책으로 본 적은 없으나 관음보살 전생록으로, 다만 곳마당에서 듣고 외워하는 것이라 말했다”라는 조사기록을 들고 있다. 무녀도 ‘악양국왕자노래’를 經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로 시작하여 ‘나무관세음보살’로 끝내는 것으로 보아 ‘악양국왕자노래’는 ‘안락국태자경’을 經巫들에 의해 수용되어 오늘날까지 불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sup>44)</sup>.

다음으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조력자의 성격이 대체로 소극적·수동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주동인물의 영웅성을 부각시키

44)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부속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7, p.55.

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만약 조력자의 성격이 적극적·능동적이라면 주동인물의 영웅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Ⅲ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노정기는 꽃밭에 물 공양를 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길 떠남으로 시작된다. ‘이공본풀이’도 역시 이러한 길 떠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성격과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의 신분에서 다른 동계 서사체와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공본풀이’에서의 사라도령은 쌀이 없어 차사에게 점심 대접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 반면에 동계 서사체의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들은 한 나라의 대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고귀한 신분이었다. ‘이공본풀이’는 이러한 신분적 차이뿐만 아니라 천상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성격에서도 아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사라도령은 옥황의 명을 세 번이나 받고도 회피하다가 삼차사가 잡으러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떠난다. 그러나 다른 동계 서사체는 대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길을 떠난다.

수난기의 주동인물인 부인은 한결같이 남편과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웅이 지니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적극적·진취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 여성영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2노정기의 주동인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공본풀이’의 활락궁의 성격이다. 다른 동계 서사체의 주동인물의 위기 모면책은 다분히 주술적·기적적인데 반해 활락궁은 천리통·만리통이 추격해 올 것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여 탈출에 성공한다. 이것은 활락궁을 인간적 영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반동인물의 명칭에서 한결같이 ‘장자’라고 불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민중들의 부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정적 인물에 투영된 것으로 보았다.

조력자의 성격은 대체로 소극적·수동적이었는데 이는 주동인물의 영웅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 IV. 공간구조와 의미

인간에게 있어 죽음의 문제는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다. 인간에게 죽음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며 알 수 없다는 것은 암흑의 세계와 맞닿음을 의미한다.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어둠의 세계는 곧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가지기도 한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인식은 또한 이승과 저승이라는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죽음이 반드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 전통의례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우리의 喪葬禮에는 죽음과 놀이의 만남 그리고 이 둘의 공존과 어우러짐이 있다.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는 것은 조상신이 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처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조상신은 산자들과 늘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산자의 세계와 혼의 세계가 끝없이 연관을 짓는다는 것은 巫의 세계관과도 상통한다. 그래서 조상신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巫에서 억울하게 죽으면 이승을 떠도는 귀신이 되듯이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처녀 역시 몽달귀신, 처녀귀신으로 이승을 떠돌게 된다. 이들의 원을 풀어 주는 동시에 조상신으로 승격시켜 주는 의례가 바로 死者의 결혼식이다. 곧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조상신의 세계에 안주하는 길이며 그 세계 속에서 자손들을 돌보는 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를 전승하는 길은 외롭고 우울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고 화려하다<sup>45)</sup>. 상여를 밝고

45) 권우행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죽음을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高句麗의 葬禮 風習은 노래하고 북 두드리고 춤추면서 葬送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한 새로운 세계로의 移行을 축하하는 의미이며 이승의 생활이 死後의 세계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高句麗인들의 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우행, 「삼국유사에 나타난 죽음 설화 연구」, 『죽음의식 연구』,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제1회인문과학연구소학술세미나 유인물, 1994, p.1.

화려한 오색 꽃으로 꾸미고 놀이와 노래로 전송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세계에서 문상을 간다는 것이 반드시 엄숙하고 슬픈 것만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생전에 환갑을 지나면 수의를 마련해 놓는 것을 흐뭇한 일로 간주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련의 의례들은 죽음에 맞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이다.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정으로 다가오며 현실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만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히려 죽음에 맞대응하는 긍정적 사고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종말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 주었다.

죽음과 놀이가 만나는 예는 시신이 장지로 옮겨지기 전날 치르지는 상여놀이뿐만 아니라 진도 지방의 다시래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다. 현재 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다시래기는 그야말로 놀이판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래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상간 조문객들도 한데 어우러져 질펀한 연극판에 동참하게 되고 이들은 다 함께 배꼽을 잡고 즐긴다. 심지어는 상주까지 잡혀 와서 억지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 상주는 웃음을 참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시래기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것은 죽음이 단절을 뜻한다거나 有에서 無로의 전환이 아니라 죽음의 빈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산자의 죽음을 소화해 내는 방식인 것이다. 죽음은 죽은이의 문제가 아니라 산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고서도 놀이를 통하여 죽음의 길을 밝게 단장하는지도 모른다. 죽음의 빈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씨를 뿌림으로서 소멸의 흔적을 지우고 삶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문제는 간단하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장르의 다양성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종교와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저승관 혹은 타계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복잡한 다단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죽음을 타계관, 사후세계관, 내세관 등의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sup>46)</sup>. 그러나 본장에서는 타계를 죽음 이후에 가야할 저승이 아니라 현실 공간이 아닌 또 다른 세계로서의 공간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에 대응되는 공간이 저승이고 저승은 죽음 이후의 세계이다. 그런데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는 현실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닌 제3의 중간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죽음관, 사후세계관, 내세관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며 이들 용어와 변별되면서도 이들의 범주를 포함할 수 있는 타계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간의 타계관은 그 지역의 문화와 삶의 터전에 따라 결정된다<sup>47)</sup>. 그렇기에 우리 민족은 고유의 타계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불교·도교·유교 등의 외래종교가 전파되어 깊숙이 파고듦에 따라 자연히 타계관 또한 다양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의 타계로는 서천꽃밭이 설정되어 있다. 이곳은 현실계도 죽음후의 세계도 아닌 제3의 세계이며 공간이다. 그런데 이 서천이라는 공간은 선의 공간이자 신격화를 위한 예비공간이며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1. 선 · 악의 공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타계라는 공간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동 공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공본풀이’에서 사라도령과 원강암이 살고 있는 곳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현실계의 가치 중립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원강암과 할락궁이 종살이를 하며 고난을 당하는 장자의 집은 현실계의 악의 공간으로, 사라도령과 원강암의 목적지인 서천꽃밭은 선의 공간으로 그리고 서천꽃밭에서의 선업을 통한 神으로의 승격이 있다. 이를 현실계와 비현실계로 구분하여 보면 사라도령과 원강

---

46) 표인주, 「호남지역 상장례와 구비문학에 나타난 죽음관」, 『한국민속학』 32, 민속학회, 200.6, p.21.

47) 표인주, 앞의 책, p.25.

암이 사는 공간과 장자의 집은 현실적 공간이고 서천꽃밭은 비현실적 공간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서천꽃밭은 옥황과 차사가 살고 있는 神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죽지 않은 인간, 즉 현실계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안락국태자전’은 더욱 복잡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라수대왕이 4백의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가치중립의 현실계인 서천국과 악의 공간으로서의 현실계인 장자의 집 그리고 사라수대왕과 원앙부인의 목적지인 광유성이 있는 선의 공간인 범마라국은 ‘이공본풀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신으로 좌정되어 가는 극락세계와 사후 자현장자가 들어가게 된 무간지옥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사후세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안락국태자전’이 고려시대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화청문학인 ‘안락국태자경’을 문자화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의 막연한 타계보다는 선업을 쌓으면 극락세계로 가고 악업을 쌓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구체적인 사후세계의 모습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안락국전’에서는 사라수대왕과 원앙부인이 있는 가치중립적 공간인 대원국, 악의 공간인 장자의 집, 선의 공간인 석가세존이 삼천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서역국으로 나뉘어져 있어 ‘안락국태자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안락국태자전’이 소설화한 것이 ‘안락국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소설화 과정에서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 주기 보다는 흥미성의 강조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

‘악양국왕자노래’는 대왕님과 왕후가 사는 가치중립의 현실계와 현실계로서의 악의 공간인 자인장자의 집, 비현계로서의 선의 공간인 부처님 국토, 그리고 신의로 좌정된 후에 가는 천상이라는 공간으로 나뉘고 있어 여기에서도 역시 ‘이공본풀이’보다는 ‘안락국태자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신선세턴님청배’는 현실계로서의 산아수대왕과 원앙성부인이 꽃수레를 하는 세턴국과 비현실계로서의 옥황님이 있는 곳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선·악의 관념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기림사사적’은 현실계로서의 사라수대왕과 원광부인이 있는 가치중립의 공간인 범마국, 현실계로서 악의 공간인 자현장자의 집이 있는 죽림국 그리고 비현실계의 선의 공간인 광유성인이 오백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범마국의 임정사로 되어 있다.

‘오구대왕풀이’ 역시 가치중립적 공간으로서의 궁궐, 악의 공간으로서의 산적의 집, 선의 공간으로 몽은사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몽은사는 비현실계도 아니고 신으로 좌정하기 위한 예비공간도 아니다. ‘오구대왕풀이’에서의 모든 공간은 현실계로 설정되어 있다.

‘신선세턴님청배’와 ‘오구대왕풀이’를 제외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다섯 편의 공간이동을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현실계의 가치중립적 공간 → 현실계의 악의 공간 → 비현실계의 선의 공간”으로의 이동이 그것이다.

대왕과 부인은 동일한 현실계의 가치중립적 공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은 선의 공간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반면 부인은 악의 공간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대왕은 선의 공간에 거주하는 神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기에 고난으로부터의 면제부를 받았으나 부인은 사정이 다르다. 부인은 가치중립적 공간에서 선의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세적 공간에서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부인은 장자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침으로서 완전하고 좀 더 높은 자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신격화를 위한 예비공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안락국태자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라수대왕의 궁에서 출발하여 장자의 집을 거쳐 꽃밭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안락국도 역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장자의 집을 탈출하여 강을 건너간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죽어 있다. 계를 지어 노래를 부르니 그의 부모는 이미 서방에서 부처

가 되었음을 하늘에서 전해준다. 이에 자신도 48용선을 타고 허공을 가르며 극락세계로 간다. 여기에서 안락국의 부모와 안락국이 간 극락세계는 분명 꽃밭은 아니다. 서천 꽃밭은 강건너 저편에 있는 수평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죽림국과 범마라국의 두 나라 사이에 강이 있는데<sup>48)</sup>”라는 구절로도 확인이 된다. 그런데 안락국이 48용선을 타고 그의 부모님이 있다는 서방 극락세계는 수직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악양국왕자노래’ 역시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모두 나타나있으나 꽃밭이 강이나 바다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밧날 밧일이 지나가고 거다(거기에다) 밧백리를 걸음을 걸고 가는 도중에 어느 한곳을 지나가니 시녀일곱이가 나막신을 다리신고 물동이를 물을 길러 꽃밭에 물을 주며 왕생가를 외우네<sup>49)</sup>”라는 구절로 보아 꽃밭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수평적 공간이다. 악양국은 꽃밭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으나 어머니는 이미 죽어있다. 대성통곡을 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악약국아. 악약국아. 신체를 보고 슬허마라. 너거 어머니는 벌써부터 천상에 올라 앉아 신선이 되었는데 신체보고 슬러마라. 그말 외치는 소리가 천상에서 들려오는 지라. 천상을 쳐다보고 있느니 꽃가매를 하나 내려 주면서러 악양국아. 악양국아. 이 가마를 니가 타고 하늘로 올라오라. 카는 령(令)을 받고 울다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 꽃가마를 집어타고 천상을 올라가니 자기모친이 신선이 되어서러 있는지요<sup>50)</sup>”라는 구절을 통해 수직적 이동을 볼 수가 있다. 이것도 역시 ‘안락국태자전’과 마찬가지로 서천꽃밭과는 또 다른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기림사사적’ 역시 사라수대왕궁에서 장자집 그리고 물건너 저쪽 河岸이 있는 곳이 꽃밭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평적 공간임을 알 수가 있다. 안락국은 어머니의 뼈를 모아 놓고 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내자 홍수가 나서 나무 위로 올라가 밤을 지낸다. 이때 아미타불이 諸天 보살들과 함께 용선을 타고 내

4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안락국태자전」, 『역주월인석보제7·8』, 천풍전산인쇄사, p.108.

49)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8-9(경상남도김해시·김해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142.

50) 김승찬, 앞의 책, p.146.

려와서 데려간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사라수탱’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다. 사라수대왕과 차사가 광유성인이 계신 꽃밭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화면 중앙부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상단부 ‘안락국’이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왔다가 48용선을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꽃밭과 마지막에 신으로 좌정되어 가는 공간은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이 확실해졌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수평적 공간으로만 설정된 것이 있는데 “이공본풀이, 안락국전, 오구대왕풀이”가 이에 해당한다. ‘이공본풀이’에서의 서천꽃밭은 여러 번의 물을 건너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고 활락궁이 어머니를 살려서 가는 곳 역시 서천꽃밭이다. 신으로 좌정된 후에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안락국전’에서는 ‘안락국태자전’과 그의 동일한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마지막에 안락국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곳이 아버지가 있는 바다 건너 꽃밭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평적 이동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수평적 이동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오구대왕풀이’가 있다.

‘신선세턴님청배’는 “세턴님 오실적에 삼십삼턴 올라가 이십팔숙 내려 올적에51)”, “옥황님전올나갈적52)” 등의 구절로 보아 수직적 공간이동은 보이고 있으나 수평적 이동을 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선세턴님청배’는 앞에서 줄거리의 대폭적인 축약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였다. 때문에 사라수대왕의 노정기, 원강암의 수난기, 안락국의 노정기가 모두 생략되고 오로지 사건의 요약적 제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공간이동의 과정이 생략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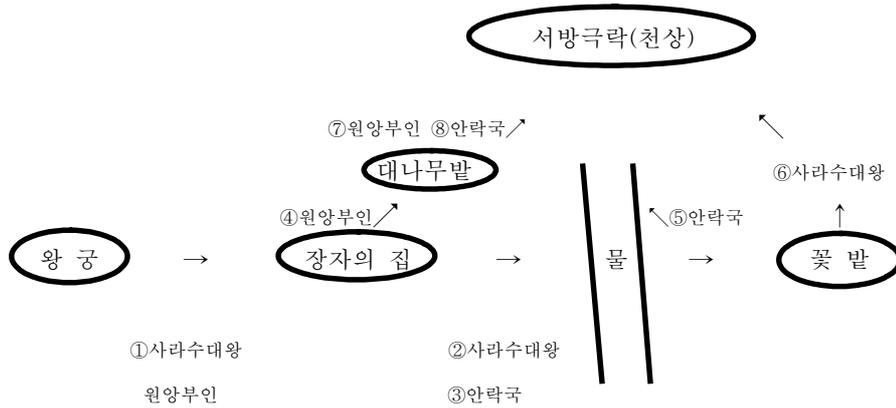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공간 이동은 크게 두 계열로 나눌 수가 있겠다.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모두 나타나는53) “안락국태자전, 약양

51) 손진태, 「신선세턴님청배」, 『청구학총』 22호 其二, 청구학회, 경인문화사, 1982, p.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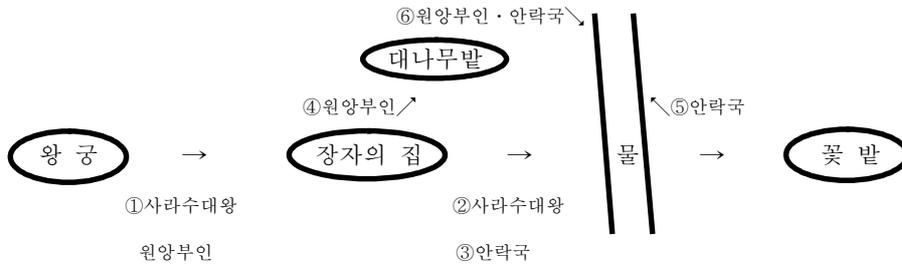
52) 손진태, 앞의 책, p.197.

53) 여기에 ‘신선세턴님청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국왕자노래, 기림사사적”과 수평적 이동만 나타나는 “이공본풀이, 안락국전,<sup>54)</sup>”가 그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안락국태자전 · 약양국왕자노래 · 기림사사적》



《안락국전 · 이공본풀이》

54) 오구대왕풀이도 수평적 공간 이동을 하고 있으나 제외 시켰다. 이들이 길을 떠나는 목적과 목적지의 성격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왕과 대비가 목적지로 삼은 몽은사는 ‘신격화를 위한 예비공간’도 ‘생명의 공간’도 아니며 일상의 현실적 공간에 다름 아니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꽃밭인 비현실계로서의 신의 공간은 ‘바리공주’무가에서의 서천과도 다르고 불교에서의 극락도 아닌 독특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서천꽃밭<sup>55)</sup>은 신의 공간이면서 인간이 사후에 가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공본풀이’에서 사라도령과 악양국은 살아서 도달하게 되고 원강암은 비록 죽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환생꽃에 의해 소생한 후에 살아서 서천꽃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안락국태자전’에서도 사라수태왕과 안락국은 범마라국 임정사에 살아서 도달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원앙부인이 죽어서 간 곳은 범마라국 임정사가 아니라 극락세계라는 다른 차원의 비현실계인 것이다.

‘안락국전’에서 역시 사라수대왕님과 안락국은 서역국에 죽음이라는 과정 없이 도달하게 되고 원앙부인 역시 생명꽃에 의해 소생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도달하게 된다.

‘악양국왕자노래’에서 대왕님과 악양국은 부처님 국토에 현실적 생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왕후는 죽음 이후에 천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안락국태자전’의 원앙부인 이 간 곳과 마찬가지로 다른 차원의 공간인 것이다.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악양국왕자노래’는 ‘안락국태자전’과의 친연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신선세턴님청배’에서 산아수대왕은 금부나장에 의해 옥황님이 있는 곳으로 잡혀간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산아수대왕님의 죽은 혼이 세턴님으로 이때부터 꽃이 다시 피게 되었다”라고 했으므로 여기에서의 옥황님이 있는 곳은 저승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다른 서사체와는 이질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림사사적’에서 사라수대왕과 안락국은 죽음 없이 현실계에서 바로 범마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다른 서사체와 동일하며 원광부인은 죽음을 맞이 하긴 했으나 역시 생명의 꽃에 의해 소생된 후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임정사

55) ‘이공본풀이’에서는 〈서천〉으로, ‘안락국태자전’에서는 〈범마라국〉으로, ‘안락국전’에서는 〈서역국〉, ‘악양국왕자노래’에서는 〈부처님 국토〉, ‘신선세턴님청배’에서는 〈옥황님 있는 곳〉, ‘기림사사적’에서는 〈범마국〉으로 그 명칭에 있어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처음부터 대표형을 ‘이공본풀이’로 잡았기 때문에 〈서천〉이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로 가게 된다.

‘오구대왕풀이’에서도 비현실적 성격의 꽃밭이 잠시 등장한다. 대비마마님이 소실대실문을 열고 꽃밭에 물을 주고 돌아 나오다가 스님과 만나는 장면에서 “새짐승도 과연 거기는 못 날아가는 곳<sup>56)</sup>”이란 표현이 두 번 나온다. 이것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꽃밭에 물주는 모티프를 수용하기는 했으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리공주’ 무가에서도 서천이라는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곳 역시 현실계의 생명을 유지한 채 도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서천은 신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의 서천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의 서천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이 가고자하는 목적지였으나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종착점은 아니다. 사라도령과 원강암이 서천에 가고자한 것은 서천꽃밭에서 꽃감관의 직책을 맡아 선행을 쌓아 결국은 신으로 좌정하는데 있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은 신으로 좌정되기 위해 거쳐야 할 중간 단계로서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리공주’ 무가에서의 서천은 바리데기가 출발지로 다시 되돌아오는 전환점의 구실을 하고 있다. 즉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의 서천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상승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공간이었다면 ‘바리공주’ 무가에서의 서천은 왔던 곳으로 회귀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두 공간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사라수대왕의 궁전으로부터 대왕부부는 사자를 따라 걸어서 장자의 집에도착하게 되고 대왕은 걸어서 서천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안락국 역시 아버지를 찾아 온갖 역경을 헤치고 도달하는 꽃밭은 지상세계에 설치된 선계로서의 수평적 공간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락국이 어머니를 재생시킨 후 올라가는 하늘을 수평적 공간이 아니다<sup>57)</sup>. 사자좌를 타고 하늘로 올

56)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상남도편), 민속원, 1999, p.230.

57) 이공본풀이에서는 수평적 공간으로서 서천꽃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락국 태자전에서는 사자좌에 올라 허공을 타고 극락세계로 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약양국왕자노래에서는 어머니가 있는 천상에 꽃가마를 타고 올라가며 기립사사적에서는 아미타불이 제천 보살들과 함께 용신을 타고 내려와 임정사로 데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걸어서 갈 수 있는 수평적 공간이 아니라 수직적 공간으로서의 천상계인 것이다. 안락국전은 꽃밭이 통천바닷가 건너 편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변모한 형태로 보면 될 것이다.

라가는 수직적 공간으로서 신으로 좌정된 후에야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천상계로 설정되어 있어 상이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서천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유사한 것으로 불교의 세계관을 들 수가 있다. 불교에서는 윤회의 轉生處를 六道로 나눈다. 천·인·아수라를 三善道라 일컬고, 아귀·축생·지옥을 三惡道라 일컬지만, 삼악도나 삼선도조차 결코 영원한 세계는 아니며, 여기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이다<sup>58)</sup>. 인간의 죽음에서부터 환생하기까지 7일에서 49일간의 대기 장소로서 중음계(중유·명부)가 설정되어 있다. 불교의 세계관은 크게 윤회하는 세계와 윤회하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가 있다. 윤회하는 세계란 인간이 죽으면 중음계에서 재판을 거쳐 죄의 유·무, 경·중에 따라 육도 중 한곳에 환생하는 순환의 세계이며, 윤회하지 않는 세계란 해탈한 자만이 가는 깨달음의 세계이자 피안·열반의 세계이다. 즉 윤회의 세계에서는 중간단계인 중음계를 거친 후 환생을 하게 되고 윤회하지 않는 세계는 깨달은 자, 해탈한 자는 중간과정 없이 바로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의 서천이라는 공간은 불교의 중음계가 변모되어 새롭게 창조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윤회하지 않는 해탈의 세계로 가는 과정에 아무런 중간단계가 필요 없으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신으로 좌정되기 위해서는 서천이라는 선의 공간에서의 공덕을 쌓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서천꽃밭은 인간의 경험으로 미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생의 세계가 아니다. 신으로 좌정된 세계가 어떠한 괴로움도 없는 생사윤회하는 三界를 뛰어넘은 영원한 낙원이라면 서천꽃밭은 생사윤회를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통로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국은 서천꽃밭에서 장자집으로 갔다고 죽을 위기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는 안락국이 생사를 초월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이 생사윤회하는 三界를 뛰어넘은 영생의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수대왕은 왕생계를

58) 석당전통문화연구원 공저, 한국인의 죽음관, 『석당논총』 제29집, 동아대학교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0, pp.146~147.

되며 꽃밭에 끊임없이 물을 길어 나르는 무한한 인고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공덕을 통해서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계와 내세를 연결하는 서천꽃밭이라는 중간계는 한국인의 특유의 관념<sup>59)</sup>에 불교의 중음계<sup>60)</sup>가 합쳐져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생명의 공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활락궁이 서천꽃밭에서 생명의 꽃을 가져와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는 장면<sup>61)</sup>이 있다.

인간의 생명을 꽃과 관련지어 생각한 것은 특정 지역, 특정 서사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랜 사유체계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나타나는 생명의 꽃을 불교적 영향으로 본다가나 제주도 큰굿집단만의 특징적인 모습<sup>62)</sup>만으로 볼 것은

---

59) 淸原 舊石器時代 사람들의 매장 의식에 나타난 영·육 관념은 영육 미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형성된 영육 미분의 관념은 우리나라의 원초적·본원적 관념이라 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자연관을 바탕으로 영혼의 소생·재생을 기원하고 있었으므로 지속 순환론적 관념도 상정하고 있었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편저, 한국인의 죽음관, 『석당논총』 제29집, 동아대학교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0, p.29. 비단 구석기 시대 유적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고유의 사상 속에 영육 미분을 바탕으로 한 지속 순환론적 관념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바리공주무가에서의 대왕의 생명꽃에 의한 재생이라든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재생모티브를 가진 수많은 설화들에서 우리민족의 영육 미분의 지속 순환론적 관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때문에 ‘원앙부인’이 죽어 영혼만 천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생하여 육체와 영혼이 결합한 상태로 가는 것은 영육미분화 상태로서 우리 고유의 영혼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60) 불교에서의 중음계는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인데 반해 서천꽃밭은 산자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며 ‘이공본풀이’에서의 원강암은 죽었다가 생명꽃에 의해 재생한 후에 서천으로 간다. 이것 역시 우리 민족의 영육 미분의 사고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61) 서천꽃밭에서 생명의 꽃을 가져와서 어머니를 살려내는 모티브는 ‘이공본풀이’,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에만 나타나고 있다. ‘신선세턴님청배’는 서사내용의 지나친 요약과 변형으로 빠져있고, ‘오구대왕풀이’에는 꽃밭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재생모티브는 없다. 여기에서의 꽃밭은 내용에서 빠지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서사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꽃밭의 기능이 대폭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는 재생모티브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둘 사이의 친연성을 확인 시켜주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아니다.

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피었다가 지는 것을 무한히 반복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은 사람들에게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성스러운 존재로서 꽃을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이미 구석기시대에도 존재했다는 증거물이 발견되고 있다. 구석기인들은 매장한 시신을 야생의 꽃으로 장식하거나 자토를 시체 위에 뿌려 재생을 기원한 점<sup>63)</sup>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우리에게 꽃의 주술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미의식의 표현임과 동시에 봄이면 꽃이 다시 피듯이 죽은 사람의 영혼도 소생·재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였다<sup>64)</sup>.

우리의 설화 중에 首插石柁가 있다. 신라의 최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랑하는 첩과 20년을 해로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설화 속에 최항이 죽어 첩을 찾아가 석남 가지를 나누어주는 장면과 첩이 관을 열자 시체 머리 위에 석남 가지가 꽃혀 있는 장면이 있다. 여기에서의 석남은 진달래꽃과의 철쭉꽃이다. 청원 구석기시대사람들 역시 진달래나무를 꺾어다 살림집인 동굴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였던 미의식의 표현도 하였으며, 기원과 주술의 표현도 행하였다<sup>65)</sup>는 것이다. 또한 수로부인 이야기에서의 절벽에 피어 있는 척촉화<sup>66)</sup> 역시 진달래꽃과의 철쭉꽃이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진달래꽃을 주술적 매개물로 인식을 하였던 것 같다.

이외에도 꽃이 재생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히 서사무가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가의 주술성과 꽃의 상징적 주술성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바리데기’ 무가

62) 이수자는 인간의 생명을 조절할 수 있는 꽃들과 이와 같은 꽃들이 피어 있는 곳을 따로 설정한 것에는 제주도 큰굿을 형성한 집단이 가진 특징으로 보았다.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9, pp.122, 186~204.

63) 석당전통문화연구원, 한국인의 죽음관, 『석당논총』 제29집, 동아대학교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0, pp.14~15.

64) 석당전통문화연구원, 위의 책, p.29.

65) 이용조·우종윤 편저, 선사유적 발굴도록, 충북대 박물관, 1998, pp.10~12.

66) 연구자는 수로부인 이야기에서의 척촉화가 피어 있는 절벽을 신화적 공간으로서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설정되어 있는 꽃밭과 동일공간으로 보았다. 즉 척촉화가 피어 있는 절벽은 인간의 생명원천 장소로서 형상화해 낸 신화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서 아버지를 살려내는 생명의 꽃, 창세신화<sup>67)</sup>에서 인세차지를 위해 석가와 미륵의 꽃피우기 경쟁, 삼승할망본풀이의 産神의 환생꽃,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의 생불꽃, 세경본풀이의 도환생꽃, 문전본풀이의 도환생꽃 등에서 인간의 생명과 꽃이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런데 특히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생명의 꽃이 자라고 있는 서천<sup>68)</sup>이라고 하는 생명의 공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서천꽃밭에는 생명꽃들이 피어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꽃들이 시들기 시작하고 죽어 가는 생명의 꽃에 물을 주어 다시 살려내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불러 가는 것으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창세신화에서 석가와 미륵의 꽃피우기 시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세상을 관장할 신으로서 필수적인 능력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시들어 가는 꽃을 물공양으로 살려내는 행위는 신으로 좌정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나타나고 있는 꽃밭은 인간의 생명을 저장해 놓고 관리하는 생명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善·惡의 공간인데 장자의 집을 악의 공간으로, 서천꽃밭은 선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간이동의 순서는 “현실계의 가치중립적 공간 → 현실계의 악의 공간 → 비현실계의 선의 공간”으로 진행된다.

67) 창세신화는 우리나라 전역에 전승분포하고 있는 신화로서 강계(창세가, 초두부님), 함흥(창세가, 생곳), 평양(삼태자풀이), 강릉(당고마기), 오산(시루말), 울진(순산축원), 영해(당금야기), 제주도(베포도엽침, 초감제, 천지왕본풀이)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를 통칭해서 창세신화라 하기로 한다. 이 용어는 일찍이 김현선이 사용하였다.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68) 명칭에 있어서는 이공본풀이 <서천>, 안락국태자전 <범마라국>, 안락국전 <서역국>, 악양국왕자노래 <부처님국도>, 신선세턴님청배 <옥황님이 있는 곳>, 기림사 사적 <범마국> 이라 하여 각기 다르게 불려지고 있으나 생명의 꽃이 피어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둘째, 공간이동 경로에 따라 두 계열로 나누었다. 수평적 공간이동과 수직적 공간이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안락국태자전, 악양국왕자노래, 기림사사적”, 수평적 공간이동만 보이는 “이공본풀이, 안락국전, 오구대왕풀이”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비현실계로서의 서천꽃밭은 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현실계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었다. 이곳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의 최종지향점은 아니다. 이들의 목적은 서천꽃밭에서 선행을 쌓아 결국은 신으로 좌정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은 신으로 좌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기착지인 것이다. 또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의 서천이라는 공간은 불교의 증음계가 변모되어 새롭게 창조된 공간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천이라는 공간은 인간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꽃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서 생명의 공간으로 상정하였다. 이렇게 꽃과 인간의 생명을 관련지어 생각한 것은 우리의 오랜 사유체계 속에 잠재되어 있었음을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여 증명하였다.

## V.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승 양상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전승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로서의 보편성을 토대로 하여 장르에 따른 혹은 이본에 따른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특히 무가와 소설에서 다양한 이본을 형성하고 있다. 실정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는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이공본풀이”의 비교연구 또는 석보상절 소재 ‘안락국태자전’이나 ‘안락국전’ 중심의 연구 혹은 강창문학에서 그 연원을 찾는 연구 등에 치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장에서는 기존의 편향된 연구방향에서 눈을 돌려 무가에 그 중심에 두고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연원과 전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연구에 앞서 선학자들의 연구방향과 학설을 살펴본 후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쏟아낸 학자는 단연 사재동이다<sup>69)</sup>. 그는 석보상절·월인석보는 한문저본 〈釋迦譜〉의 증수·국역임에 틀림없으며 때문에 월인석보 제8권에 수록된 ‘안락국태자전’은 한문저본의 국역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 저본으로서 ‘안락국태자경’이 〈석가보〉에 편입되어 있다가 ‘안락국태자전’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태자경’이 석보상절·월인석보 이전에 실존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태자경’의 형성계보를 변문을 비롯한 중국의 불교계 서사문학과 결부시켰다. 그는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淨土三部經·〈觀無量壽經〉을 信衆에게 쉽고도 재미있게 강설하는 마당에서 ‘안락국태자경’을 제작했을 가능성. 둘째, 정도신앙을 재중에게

69) 사재동, 「안락국태자경의 연구」,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사재동, 앞의 책,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사재동, 「국문소설의 형성기 작품」,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사재동, 앞의 책, 「안락국전의 연구」.

사재동, 「월인석보의 실상과 문학사적 위상」, 『한국문학유통사의 연구』 I, 중앙인문사, 1999.

사재동, 「국문소설의 형성·전개」, 『한국문학유통사의 연구』 II, 중앙인문사, 1999.

사재동, 앞의 책, 「안락국태자전의 연구」.

효과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彌陀三尊의 본생담을 연설할 때 이런 ‘태자경’을 찬성해 낼 가능성. 셋째, 불교의 각종 追薦齋儀에서 그 효능과 영험을 동참 대중에게 실감시키려는 법화본으로 이 ‘태자경’같은 작품이 허구·연설되었을 가능성. 넷째, 미륵삼존이나 관음보살을 모신 사원에서 그 명예와 寺勢를 높이기 위하여 당해 사원의 연기설화로서 이런 ‘태자경’을 찬성해 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70)</sup>. 이 네 가지 가능성 모두 불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는 ‘안락국전’은 형성·전개의 계맥이 가장 확실한 작품 중의 하나라고 하고 정토계 불경설화를 이어 미타삼존 변문 ‘안락국태자경’과 15세기 국문소설 ‘안락국태자전’을 개변·계승함으로써 ‘안락국전’이 형성·전개되고 나아가 여러 이본을 남기기까지, 그 계보가 선명하게 연속되어 왔다<sup>71)</sup>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락국전’은 追薦齋儀와 함께 유통되면서 무속제의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불교의 추천재의는 그대로 무속의 추도의식 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이 무속제의로 흡수·변이 됨으로써 서사무가로 변성되었다고 보아진다. 이른바, ‘이공본풀이’와 ‘신선세턴님청배’가 바로 그것이다<sup>72)</sup>. 즉 안락국태자경 → 안락국태자전 → 안락국전 → 이공본풀이계 무가로 전파·전승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락국태자경’에서 ‘안락국태자전’으로 다시 ‘안락국전’으로의 계맥<sup>73)</sup>은 타당한 견해라 여겨지나 무가가 가장 후대에 전파·전승되었다고 하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서대석 역시 석보상절 소재 ‘안락국태자경<sup>74)</sup>’에서 안락국전, 이공본풀이, 신선세턴님청배가 파생되었다고 하여 ‘안락국태자경’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70) 사재동, 「안락국태자경의 연구」,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pp.300~312.

71) 사재동, 「안락국전의 연구」,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p.267.

72) 사재동, 앞의 책, p.269~271.

73) 사재동, 앞의 책, pp.254, 267.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p.120.

사재동, 「국문소설의 형성·전개」, 『한국문학 유통사의 연구』 II, 중앙인문사, 1999, p.113.

74) 「서사무가 연구」, 『국문학연구』 제8집, 국문학연구회, P.83. 각주 3).에서 “ ‘안락국태자경’은 소설이라는 데는 아직 많은 문제가 있으며 宗經이거나 僞經이거나 간에 불경의 翻說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아 「經」字를 붙이고자 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저본으로 삼았다<sup>75)</sup>.

‘안락국태자경’이 소설화한 것이 ‘안락국전’이고 또 한편으로는 설화화라는 과정을 거쳐 이공본풀이계 무가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다<sup>76)</sup>. 또는 ‘안락국전’이 설화화되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단지 ‘이공본풀이’의 형성 연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설과 무가의 선후관계는 확인하기 곤란하다<sup>77)</sup>고 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김진영은 〈한국 서사문학의 연행양상〉에서 한국서사문학 장르의 형성·전개과정에서 불교의 강창문학이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불교계 서사문학을 중심으로 그들이 연행·전개된 실상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특히 신라시대에도 중국에 못지 않은 변문이 존재하여 각개 장르의 형성·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음을 실증하여 한국문학사에 괄목할 만한 성과물을 내놓았다.

그런데 김진영 역시 불교문학에 중심을 둔 연구이었기에 앞의 두 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안락국태자전’에서 이공본풀이계 무가가 파생되었다는 것이다<sup>78)</sup>.

이공본풀이계 무가는 전승양상에 따라 두 가지 계열로 나누었다. ‘안락국태자전’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이공본풀이계열과 설화화 과정을 겪은 후의 기본 서사문맥만을 간요하게 수용한 ‘신선세턴님청배’, ‘오구대왕풀이’, ‘악양국왕자노래’가 그것이다<sup>79)</sup>. 설화화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한 서대석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기림사연기담<sup>80)</sup>’과 ‘이공본풀이’의 서사내용 비교를 통해 ‘기림사연

75) 서대석, 앞의 책, pp.18, 83, 91~99, 167, 참조할 것.

76) 서대석, 앞의 책, pp. 91~92, 95~96, 98~99, 167.

77) 서대석, 앞의 책, p.96.

78) 김진영, 한국서사문학의 연행양상, 이회, 1999, pp.46, 91, 179~180, 227~228, 260~314. 참조할 것.

79) 김진영, 앞의 책, pp.226~267.

80) 김진영은 그의 책 전체에서 祇林寺緣起文을 ‘지림사연기문’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祇’字를 ‘祇’字로 착각했거나, ‘祇(기)’字를 ‘지’라고 읽은 데서 온 오기인 듯하다. ‘祇’字는 땅귀신기, 편안할기 이외에도 마침지, 다만지 字로도 읽히고 있으나 조선31대본산이었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제11교구인 함월산 기림사의 연기설화이기 때문에 ‘기림사연기문’이라 해야 옳다. 이러한 실수는 이수자, 「지림사 연기설화의 설화적 성격과 의의」, 『제주도연구』 10집, 1993. 그리고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p.249 각주10)에서도 드러나 있다.

기문'이 보다 신화적 신성성을 유지했는데 반해 '이공본풀이'는 세속화·현실화되었다고 하여 속화된 '이공본풀이'가 후대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81)</sup>. 그러나 이러한 점은 불교설화와 무가의 차이거나 지역적 특색일 수도 있다. 특히 현재까지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제주도 무가는 세속적이고 현실화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비교에 의한 결론 도출은 신뢰성이 희박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주근 또한 안락국태자경에서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의 연원을 찾았다<sup>82)</sup>. 그러나 강창·화청으로서의 '안락국태자경'이 후대 문학의 산과역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서사무가와 불교계 국문소설들은 어느 것이 강창에서 먼저 생겼는지, 각각 따로 파생했는지는 지금 분명하게 가릴 길이 없다<sup>83)</sup>고 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연원과 전승에서 사재동의 논의를 거의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있으면서도 몇 가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 첫째 의문은 '기림사 연기설화', '기림고적', '안락국태자경'들은 다 같은 내용으로서, 확실하게 언제 성립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라 선덕여왕(7세기 중엽) 이래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고, 둘째로는 중국 唐代 이래의 불교보급문예와 같은 우리말의 불교보급문예이던 화청이 우리에게도 신라 이래로 가창되고 있었는데 '안락국태자경'은 화청이기에 그 형성이 이미 신라 고려시대에 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국태자경'을 무가에 수용한 것도 월인석보 등의 편찬 이후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이전 고려, 신라 때부터의 가능성도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sup>84)</sup> 라고 하였다.

최진봉은 '태자전'이 '이공본'계 무가형성에 영향을 주었다<sup>85)</sup>고 한 점에서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으나 '태자전'과 '이공본'계 무가가 '안전'을 형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라는 주장 즉 '이공본'계 무가가 '안전'보다 선행하여 '안전'이 이들 두 계통의 작품들을 수용하였다<sup>86)</sup>는 입장은 앞의 선행

81) 김진영, 앞의 책, p.303.

82)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pp.272.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pp.85, 91.

83) 장주근, 앞의 책, p.275.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p.362.

84) 장주근, 앞의 책, pp.94~95.

85) 최진봉, 안락국전의 형성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1, pp.20, 74.

연구들과는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승 계맥을 다르게 보고있다. ‘태자전’이 ‘안전’ 형성의 모태가 되었으나 ‘안전’은 ‘태자전’보다 Plot면에서 확대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 같은 Plot의 변화에는 ‘이공본’계 무가의 영향이 컸다<sup>87)</sup>는 것이다.

윤찬주<sup>88)</sup>도 ‘안락국태자경’을 저본으로 하여 ‘이공본풀이’가 형성되었다고 하여 앞의 선행연구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강옥<sup>89)</sup>과 이현수<sup>90)</sup>는 불경계의 설화가 소설화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역시 ‘안락국태자전’에서 ‘안락국전’으로 발전되었다는 입장에 있으나 무가는 연구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승계맥을 종합해 보면 공통된 견해를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저본이 강창문학으로서의 ‘안락국태자경’이든 석보상절 소재 ‘안락국태자전’이든 불경계 설화가 이공본풀이계 무가, 사찰연기담, 안락국전 등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불경계 설화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고만 해야 하는가. 무가가 ‘안락국태자경’의 형성에 기여한 측면에 대해서 도외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무가와 불교계 변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상호간에 교섭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다음으로 ‘사라수탱’의 제작시기를 밝혀내어 ‘안락국태자경’이 고려시대 강창되었음을 실제적으로 밝혀 낼 것이다. 다음으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본 후 앞의 연구를 종합하여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승계맥을 추정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공본풀이’ 무가가 동계 서사체와는 다른 특징적인 성격을 보이는 이유를 지역적 특성과 결부시켜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

86) 최진봉, 앞의 책, pp.20, 32, 54~56.

87) 최진봉, 앞의 책, p.26.

88) 윤찬주,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1.

189) 이강옥,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4집, 1988, pp.147~148.

90) 이현수, 「불교설화의 소설문학적 수용」,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불교사상과 한국문학』, 아세아문화사, 2001, pp.30~32.

## 1. 불교계 변문과의 관련성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불경의 번역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變文이라는 문체를 파생시키게 되었다. 즉 인도의 불교가 중국식으로 정립되면서 불경경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평이한 문체로 기술하는 속문학이 당대唐代의 변문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변문은 산문과 운문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여기에 재미있게 이야기를 지어 첨가시켰다. 이렇게 하여 대중적 演行法話로 활용되었으며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불교의 세계를 이해시키는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창변문은 점차 대중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재를 찾게 되고 심지어 불교와 무관한 소재를 선택하여 대중의 오락적 욕구에 맞추기까지 했다.

사원내의 광장에 野檀法席을 마련하거나 도량 내의 강당에 講經法席을 차려놓고 권능과 화술을 갖춘 법사가 만장한 대중을 향하여 설법을 할 때, 거기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채용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속강승의 속강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sup>91)</sup>. 속강법사는 대중을 감동으로 교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한편의 서사문학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속강이라 하며 그 대본을 강경문 내지 변문이라 한다. 이는 속강승의 현장 문학적 예술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셈이다.

속문학·연행문학의 사적 전개에 있어서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던 불교계 변문은, 불교고사 이외에 중국의 역사·인물·민간고사 등을 활용하여 불교 선전의 도구로 삼으면서 그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이는 대중화·통속화를 초래하여 연행문학적 전개를 가속화한 것으로, 문학사상의 변화는 물론 중국문학사에서 그 비중이 매우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sup>9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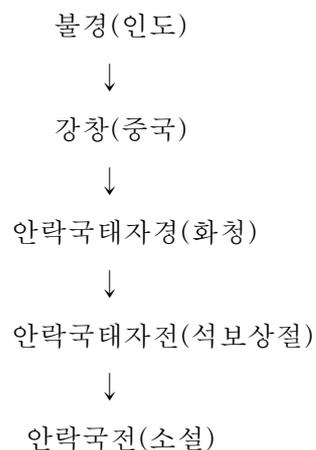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은 불교의 교류에 있어서 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중국불교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무관할 수가 없었다. 김진영은

91)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박이정, 1996, pp.306~307.

92) 김진영, 앞의 책, p.33.

그의 연구<sup>93)</sup>에서 신라의 강경의식에서 사용되었던 경문이 그 구조나 부연의 정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강경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강경문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신라의 경찬서는 각종 의식에서 활용되다가 속강사에 의한 대중교화에 활용되면서 통속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문이 존재했다는 근거로서 변상도를 들 수가 있다. 변상도는 무지한 대중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강설 내용의 핵심적인 장면을 압축시켜 그린 그림이다. 사재동<sup>94)</sup>은 중국에서 변문과 변상이 상보했던 점을 들어 원칙적인 면에서 변상이 있는 곳에 변문이 따르기 때문에 신라 시대에 이미 변문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상보는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어 만들어진 변문이라는 문학장르에 상응하는 한국적인 변문이 화청이라는 장르이며 이는 변문이 가지고 있는 향유 계층의 제한성을 극복한 문학장르<sup>95)</sup>라고 하였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母胎로 여겨지는 ‘안락국태자경’도 바로 이러한 속강적 계통을 밟아서 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과 분위기 속에서 ‘안락국태자경’은 강창되어 나가다가 조선조에 들어 〈석보상절〉에 수록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소설화의 과정을 거쳐 ‘안락국전’이 되었다. 이것을 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3) 김진영, 앞의 책.

94) 사재동, 앞의 책.

95) 이상보, 「고려말기가요발생설」, 『한국고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75.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락국태자경’이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하나의 계통을 따라 일률적으로 전승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는 무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안락국태자경’이 무가와도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전승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안락국태자경’은 변문의 형태로 전승되면서 타 장르의 문학과 교류·습합·기록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문학사에 있어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유전되어 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안락국태자경’과 같은 강창문학은 대중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강설되어 졌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변상도이다. 변상도는 대중들에게 변문이 설법될 때 사원전각 혹은 도량 법석 등의 적절한 곳에 걸려 변문의 서사적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 사재동의 연구<sup>96)</sup>에 따르면 변상과 변문은 불가분의 친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인 면에서 변상이 있는 곳에 변문이 따르고, 변문이 있는 곳에 변상이 따른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변상이 있으면 그에 부합되는 변문이 실존했음을 말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안락국태자경’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자경’의 핵심적 내용을 압축해서 그려낸 ‘사라수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변상도’가 있다는 것은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이 정해진 일정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서사 내용의 고정불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의 큰 뼈대는 있으나 현장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가감을 해가며 설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중들과 직접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이기에 구어체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월인석보〉에 구어적 문체로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무지한 백성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한문투는 그 뜻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니 우리말투로 불려졌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안락국태자경’은 현장문학으로서의 가변성과 순 우리말투의 구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록문학적 성격보다는 구비적 성격이 강한 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구비적 성격이 짙은 ‘안락국태자경’은

---

96) 사재동, 앞의 책, p.308.

조선조에 〈석보상절〉·〈월인석보〉에 수록되면서 문자화되고 이것이 다시 소설화되면서 기록문학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안락국태자경’은 또 다른 장르의 문학에서도 전승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가이다. 여기에는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로서 제주도의 ‘이공본풀이’는 물론이고 평북강계의 ‘신선세턴님청배’ 그리고 경남 김해의 ‘악양국왕자노래’, 부산 동래의 ‘오구대왕풀이’가 있다.

장주근은 그의 연구에서 강창·화청이 후대 문학들의 산과역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사무가와 불교계 국문소설들은 어느 것이 강창에서 먼저 생겼는지, 각각 따로 파생했는지는 지금 분명하게 가릴 길이 없다<sup>97)</sup>라고 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서사무가인 이공본풀이계 무가와 불교계 국문소설인 ‘안락국전’은 각각 따로 파생했음이 분명하고 ‘안락국전’에 비해 서사무가의 발생이 앞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의 연행시 완전 그 지역의 방언으로 불려진다는 것이다. 만약 국문소설인 ‘안락국전’이라는 기록물에 의존해서 전승되었다면 아무리 각 지방의 무격에 의해 불려졌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지역성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등장인물이나 구조, 분량 면에서 차이가 나고 ‘신선세턴님청배’의 경우에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만약 기록물에 의존했다면 이러한 차이는 그리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구비전승에 의존했기에 가능한 변화가 아닌가 한다. 즉 이들이 이처럼 동일한 텍스트를 무가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록물보다는 구비전승에 의존했기에 가능한 변화로 보아야함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국전’은 〈석보상절〉·〈월인석보〉를 모본으로 하여 형성된 소설이기 때문에 15세기 이후에 소설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시기의 무격들은 그 지위가 천민으로 떨어진 지가 오래였기 때문에 문자전승 할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비전승에 의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는 이미 〈석보상절〉·〈월인석보〉에 ‘안락국태자전’으로 수록되기 이전에 이미 무가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불

---

97)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p.275.

교와 巫는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활발한 교류를 하였고 그 결과로서 불교와 巫는 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일반 백성들도 불교와 무속을 구별하려 하지 않고 양 종교를 동시에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巫와 佛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무격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백성들은 불교신도인 동시에 무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당골이 알고 있고 관심 있는 것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화청으로 전승되던 ‘안락국태자경’이 巫에 전승되어 무가로 불렸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전적으로 구비전승에 의존한 서사물인 것이다.

화청으로서의 ‘안락국태자경’은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월인석보〉에 ‘안락국태자전’으로 수록되어 있어 어느 정도 그 당시의 형태를 알 수가 있다. 불교계 변문은 가창운문과 강설산문의 산운교직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월인석보〉 역시 운문과 산문의 반복·중첩으로 강창체제를 이루고 있는 방대한 산운교직의 강창변문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상의 동일성은 당시 화청으로 구비·전승되던 ‘안락국태자경’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줄 가능성을 높여 주는 장치이다. 때문에 〈월인석보〉 소재 ‘안락국태자전’의 표현형식과 문체를 탐구하는 것은 불교계 변문으로서 구전되던 화청 문학인 ‘안락국태자경’의 실상을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안락국태자전’은 가창운문 부분이 기 이백이십에서 이백오십까지 독립된 단락을 이루고 있으나 일관된 서사성을 유지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산문강설부가 협주세자(夾註細字)로 이어져 있다. 그런데 이 산문강설부 내에서도 네 편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어 강창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노래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왕생계라는 형태의 노래는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인과 대왕이 장자의 집에서 헤어지는 장면에서 원앙부인은 사라수대왕에게 왕생계를 잊지 말고 외울 것을 당부하고 이에 사라수대왕은 언제나 왕생계를 부르고 다닌다. 팔채녀 역시 항상 왕생계를 읊고 다니며 특히 안락국에게 있어서 왕생계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강을 건널 때에도 짚단 위에 올라 앉아

왕생계를 외워서 범마라국 땅에 도착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만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왕생계를 외니 왕이 태자인 줄을 알아차리는 장면, 그리고 죽은 어머니 사체 앞에서 계를 지어 부름으로써 극락세계에서 48용선이 내려와 그 부모가 벌써 서방에 가서 부처가 되었음을 전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안락국의 행위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면 언제나 왕생계를 불러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게끔 하는 장치가 왕생계인 것이다. 이러한 왕생계는 화청으로서의 ‘안락국태자경’에서는 생략되지 않고 불려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왕생계의 주술적 힘을 보여주는 것은 그 만큼 백성들을 감화시키기에 좋은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극적인 반전을 가져와 흥미를 추구했던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그만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생계를 실제로 암송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불법을 자각시킴과 동시에 긴장감과 생동감을 주는 것이다. 또한 범사는 이를 통해 자신의 노래 솜씨를 발휘할 수 있었으며 변문의 형식에도 맞출 수 있었기에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석보상절〉·〈월인석보〉에 문자로 정착되면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왕생계의 구체적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은 대왕과 부인이 헤어지는 장면에 단 한번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록문학으로서의 ‘안락국태자전’은 대중교화를 위한 것도 아니며 또한 범사가 자신의 재주를 발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왕생계를 일일이 기술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그저 사건 전개에 있어 소재로서의 역할만 있으면 족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왕생계를 불렀다라고만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구비문학으로서의 ‘안락국태자경’이 ‘안락국태자전’이라는 기록문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네 편의 노래는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남을 수 있었던 원인은 이들을 생략할 경우 사건 전개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노래의 내용이 사건 전개에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대로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안락국태자전’은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락국태자경’의 구어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들에게 사건을 보다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간결한 문체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 역시 대중들의 오락적 욕구에 편승하여 연희적 성격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법사는 더욱 연예승적 면모를 보이게 된 것이다. ‘안락국태자경’은 대중들 열렬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또한 널리 전승됨으로서 <석보상절> · <월인석보>에 편입된 것이다.

## 2. 사라수탱의 실상과 서사체와의 관계

### 가. 사라수탱 제작과 역사적 배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다양한 장르에 속해 있으며 또한 각각의 화소가 작품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이들이 동일 서사체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을 조직하는 서사구조체계가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작품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공본풀이계 작품들이 가지는 유사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앞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를 논함에 있어 빠져서는 안될 것이 불화로 전해지고 있는 ‘사라수탱<sup>98)</sup>’이다. 이 불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림의 내용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줄거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高知縣 佐川町 의 靑山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는 106.5×57.1cm 이고 재질은 絹本으로 되어 있다.

우선 이 불화와 서사체를 비교를 하기 전에 ‘사라수탱’의 제작시기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麗末鮮初의 불화의 특징과 ‘사라수탱’의 관계 등을 알아본 후 서사체와의 대비를 통해 ‘사라수탱’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사라수탱’은 1576년(선조 9년)에 제작되었으며, 그림의 상단부에 한문 金字

98) 일반적으로 ‘사라수탱’을 ‘안락국태자경변상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명명된 것은 일본인 학자 熊谷宣夫의 「청산문고장 안락국태자경변상」,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1969.에서 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져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사라수탱’ 화면 상단부에 분명히 ‘沙羅樹幀’이라 명기되어 있는 이상 당대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라수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로된 세로 31행에 ‘사라수탱’의 제작동기<sup>99)</sup>가 설명되어 있다.

혜국과 혜월 스님 등이 사라수 옛 탕화를 보니, 풍상을 많이 겪고, 좀벌레가 먹어 점차로 그 형상이 희미해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으니 이에 궁중에 염불신앙을 권장하여 재물을 얻어 새로이 그렸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라수탱’의 母本이 된 그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모되어 그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원본이 麻本인지 絹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재질에 그렸던 그림이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형상이 마모되었다면 제작된 지 2~3백년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라수탱’의 제작시기는 고려말까지 올려 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사재동은 〈淨土經〉·〈觀無量壽經〉계의 변상이 형성·전개된 계맥으로나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화풍으로 보아 조선초를 거슬러 고려대까지 육박하리라<sup>100)</sup>추측하고 있다.

화풍만으로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한 점<sup>101)</sup>이 있으나 형성·전개된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變相과 變文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원칙적인 면에서 변상이 있는 곳에 변문이 따르고 변문이 있는 곳에 변상이 따른다<sup>102)</sup>고

99) 萬曆四年丙子六月日 比丘尼 慧國 慧月等 見沙羅樹舊幀 多歷炎冷 塵昏蠹食 丹牘漫滅 形像隱隱 不可識矣 觀者病焉 於是普勸禁中 得若干財 卽倩良畫 改成新圖 掛諸金壁之上 形容森嚴 光彩百倍於前…〈중략〉…主上殿下 聖壽萬歲 …

만력사년병자유월 비구니 혜국 혜월 등이 사라수 옛 탕화를 보니 풍상을 많이 겪고, 좀벌레가 먹어 점차로 흐릿해지고 단화(단사-곱고 부드러운 빨간 빛깔의 흙)이 어지럽게 마멸되어 형상이 희미해져서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염불신앙을 권장하여 대궐에서 약간의 재물을 얻어 즉시 좋은 화공을 청하여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려 금벽 위에 걸었다. 형용이 삼엄하고 광채는 앞의 것보다 백 배나 더 하더라. …〈중략〉… 주상전하는 성수만세 하옵시고 …

100)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박이정, 1996, p.308.

101) 사라수탱은 서사적 줄거리에 맞춰 그려진 탕화로써 현존하는 우리나라 발원불화 중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서사적 줄거리를 거의 완벽하게 형상화해낸 탕화 중 유일한 현존 탕화 작품을 두고 화풍만으로 그 연대를 추정하기는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구도와 인물 표현, 문양, 색채와 필선 등으로 불화의 시기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라수탱이 사라수구탱을 模寫했다고는 하지만 색채와 필선까지 따라 했을 리는 없고 구도와 인물표현 등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것만으로 시대를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102)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p.308.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려시대에 불교경전의 심오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일반 백성들에게 불교 교리를 쉽게 이해시키거나 불심을 불러일으킬 목적<sup>103)</sup>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강창문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교세계의 신성성과 숭고함을 형상화·구체화하여 종교적 감동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교화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에 맞닿게 된다. ‘사라수탱’은 왕실발원불화라는 점이다. 반면에 ‘사라수구탱’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이용된 민중을 위한 불화이다.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두 불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라수탱’은 왕실시주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궁정관계불화의 큰 특징인 絹本불화이다<sup>104)</sup>. ‘사라수탱’이 왕실원조에 의한 絹本불화로서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사라수구탱’까지도 왕실과 관련되었으리라 추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적으로도 ‘사라수구탱’의 모델이 된 ‘안락국태자경’은 일반 서민들의 신앙인 미타신앙으로서 왕가를 중심으로한 지배계층이 신봉한 미륵신앙과는 거리가 멀다<sup>105)</sup>. ‘사라수탱’이 궁중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그려질 수 있었던 동인은 아마도 문정왕후와 보우대사의 불교 중흥책의 분위기에 힘입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565년 문정왕후는 그의 아들 명종의 장수와 선정, 왕실의 안녕 등을 바라며, 보화를 내어 탕화 400점을 제작케 하여, 회암사 중수 개안공양을 한다. 대불사가 이루어진지 11년 뒤인 1576년 왕실 시주로 ‘사라수탱’이 그려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의 척불정책에도 불구하고 400탱의 제작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

103) 그림의 이러한 효과는 사라수탱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 …使人人一見便知而能發菩提之心普與含生同樹善根其願力之知深誠意之懇至嗚呼至哉憑此良因…”

104) 박은경 교수는 조선 전기 불화의 특징으로서 궁정관계의 絹本불화와 민중관계의 麻本불화 두 계열로 나누고 있다.

박은경, 「麻本佛畫의 出現」, 『美術史學研究』, 199·200호, 1993. pp.79~85.

105) 미타신앙은 극락정토를 회구하는 미래지향적인 불교로서 영원한 삶의 세계를 위해 현세에서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서민 대중들에 의해 신봉되었다. 반면 지배계층에 의해 주로 신봉되었던 미륵신앙은 현세구복적인 불교로서 권력자들의 욕구 충족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원래 미륵신앙은 미륵상생과 미륵하생이 있으나 대부분의 당시 권력자들은 미륵의 하생을 수용하여 불국토로의 통일화합이라는 신라의 토속적 미륵신앙으로 탈바꿈시켰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내용을 보면 현세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대왕부부가 길을 떠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신으로 좌정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미타신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존하는 작품의 숫자로도 확인 할 수가 있다. 실제 현존하는 15·6세기 在名作品 47점 중 명종대(1545~1567) 작품은 17점, 선조대(1567~1608) 작품은 23점이나 달한다<sup>106)</sup>.

‘사라수구탱’은 중생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던 교화용 불화라는 점에서 본다면 궁중의 시주를 받아 그려진 견본불화인 ‘사라수탱’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라수구탱’이 고려 말엽에 제작되었다는 전제가 옳다면 두 불화 사이에는 회화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왜냐하면 고려불화와 조선불화 사이에는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07)</sup>.

‘사라수구탱’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라수탱’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사라수구탱’의 제작시기가 고려 말기임을 뒷받침 해줄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복식사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라는 것이다. 고구려나 신라 복식은 분묘의 벽화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고려시대는 화장을 하였기 때문에 분묘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고려시대 회화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 회화는 상상적인 표현의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졌던 시기와 회화상에 표현되어 있는 형상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구의 회화를 보면 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중세시대에 그려졌던 많은 회화 속에는 그리스·로마시대 사람과 의상 그리고 화가의 상상력에 의한 창조물 등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왜 서구중세회화에 그리스·로마시대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림은 이상을 추구한다. 서구중세사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106) 박은경, 「15·16세기 불교회화의 특색」, 『석당논집』 제20집, 동아대학교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4, p.267.

107) 고려불화가 찬란하고 화사한 색채와 문양, 귀족적이고 우아한 자태의 인물표현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조선불화는 ‘다양한 색채의 파노라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채색은 다양해지면서 문양은 점차 줄어들었다. ……색채는 문양과는 달리 전대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밝고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채색을 사용하여 고상한 품격을 보여 주며 여기에 호화찬란한 금색을 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호화롭고 고상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고려불화의 채색적 특징은 거의 사라지고 다양한 채색으로 화려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김정희, 조선시대지장시왕도연구, 일지사, 1996. pp.293~297.

여겼던 시기가 바로 그리스·로마시대였기에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회화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사라수탱’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의상이 송대의 옷이라고 해서 전혀 의아해 할 이유는 없다. 고려시대 이상적인 모델은 당시 문화선진국이었던 송나라였고 이것을 그림에 표현했던 것이다. 특히 ‘사라수구탱’은 민중교화용 불화였기에 더욱 더 이상적인 형상이 필요로 했고,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송대에 유행했던 의복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화면의 크기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에 더 근접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고려시대 불화 작품의 화면의 크기는 길이가 110cm 전후이고 넓이는 40~60cm 전후 크기의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108)</sup>. 그런데 16세기가 되면, 화면의 길이는 100cm이상이고, 폭은 100cm 넘는 방형에 가까운 화면으로 폭이 상당히 넓어져, 구도상에 있어서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sup>109)</sup>. ‘사라수탱’의 화면 크기가 106.5×57.1cm이니까 고려 불화 작품의 화면 크기(110cm전후×40~60cm전후)에 들어맞는다.

마지막으로 ‘사라수탱’이 고려시대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사라수탱’이라는 명칭이다. 앞의 II장에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1명의 주인공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제1노정기 → 수난기 → 제2노정기로 이어지면서 3명의 주동인물들이 차례대로 부각되고 있음을 살폈었다. 즉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주인공은 1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행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가까울수록 사라수대왕이 중심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원앙부인과 안락국이 부각되었다고 보아진다. ‘사라수탱’이 변상<sup>110)</sup>으로서의 기능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려시대 실달태자의 전

108) 박은경, 앞의 책, p.261.

109) 박은경, 앞의 책, p.262.

110) ‘탱화’와 ‘변상’은 구분되어 쓰이는 용어이다. ‘탱화’는 불, 보살, 성현들을 그려서 벽에 거는 그림을 일컫는 용어이고, 변상은 불도의 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정토나 지옥의 진상을 변화시켜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라수탱은 탱화와 변상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오백나한 등의 전생 모습을 그려 벽에 걸어두었기 때문에 탱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서천꽃밭이라는 정토의 모습을 변화시켜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원래의 명칭이 명확히 ‘사라수탱’이라 밝혀져 있는 이상 ‘사라수탱’이라 부르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생과 일대기를 쉽고 재미있게 변용하여 백성들의 교화용으로 이용된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그림이 바로 ‘사라수탱’인 것이다. 그런데 실달태자와 대응되는 인물이 바로 ‘안락국태자경’의 사라수대왕이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위경으로서 강창되었던 ‘안락국태자경’은 백성들에게 석가모니의 전생인 실달태자의 이야기를 변형시켜서 해준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안락국태자경’에서는 사라수대왕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사건을 주도해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로 전승됨에 따라 원앙부인과 안락국이 점차 부각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것은 ‘신선세턴님청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신선세턴님청배’에서의 주동인물은 오로지 산아수대왕이며 안낙동은 이름만 보인 뿐 등장하지조차 않는다. ‘오구대왕풀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사라수대왕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지만 안락국은 없어도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수탱이라는 명칭만으로도 <석보상절> · <월인석보> 소재 ‘안락국태자전’보다 시대가 앞섰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안락국태자전’은 이미 원앙부인이나 안락국이 부각된 후대에 생겨난 명칭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조선 후기 소설인 ‘안락국전’에 가면 더욱 심화되어 사라수대왕 보다는 원앙부인의 남편과 아들을 위한 순고한 희생정신과 정절 그리고 안락국의 효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조의 정책적 간행사업이었던 <석보상절> · <월인석보>에 수록되면서 유교적인 성격이 강화되어진 결과로 보아야 한다. 조선조 궁중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孝와 여성의 정절과 순고한 희생정신을 부각시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락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려시대에 백성들에게 강창될 당시에도 ‘안락국태자경’이었다면 ‘안락국탱’이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당대에는 사라수대왕이 주동인물이었기에 ‘사라수탱’이라 명명된 것이다. ‘사라수탱’의 각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서사체 내용은 제1노정기(사라수대왕이 주인공) - 수난기(원강암이 주인공) - 제2노정기(안락국이 주인공)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사라수탱’의 화면을 보면 사라수대왕의 노정기와 물길는 장면이 화면 중앙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원강암이 장자에게 고통을 받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안

락국의 노정기도 오른쪽 상단부 모퉁이에 할애되어 있는 정도이다. ‘사라수구탱’이 그려질 당시에는 사라수대왕이 주인공으로서 원강암과 안락국은 부차적 인물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화공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근거로 안락국이라는 명칭을 들 수가 있다. 각 장면마다 상세하게 한글설명이 붙어 있다. 이것은 ‘사라수탱’이 모사 되면서 삽입되어 진 것으로 이때까지도 화공은 안락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안락국’이라는 명칭이 불과 2회 나오는데 반해 ‘아기’라는 표현이 11회나 쓰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사체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만큼 ‘안락국’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웠던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이유를 통해 ‘사라수구탱’이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함을 확인하게 되었다<sup>111)</sup>.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라수구탱’의 형상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모되었다면 1576년에서 2~3백년은 거슬러 올려 잡을 수 있다. 둘째, 고려시대 유행했던 변문에는 변상이 따르게 마련이다. 석보상절에 수록된 ‘안락국태자전’도 고려시대 유행했던 변문인 ‘안락국태자경’을 문자화한 것이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사라수구탱’이기에 ‘사라수탱’의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라 할 수 있다. 셋째, ‘사라수탱’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 또한 고려시대 작품임을 확인 시켜 주고 있다. 넷째, 화면의 크기 또한 조선시대의 것보다는 고려시대 불화 크기에 맞아떨어지고 있다. 다섯째, 고려시대 강창문학으로서의 ‘안락국태자경’의 주인공은 사라수대왕이었다. 그래서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안락국탱’이라 하지 않고 ‘사라수탱’이라

111) ‘사라수구탱’을 고려시대로 추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 현존 고려시대 불화 중 ‘사라수탱’과 같이 서사내용을 그림으로 풀이하는 방식의 그림이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사라수탱’과 같은 방식의 그림이 전해지고 없다는 이유로 고려시대 존재 가능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보통의 불화는 실내에 고정적으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훼손이 적게 된 반면 ‘사라수탱’과 같은 민중 교화용 불화의 경우에는 법석이 있는 날은 실외로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동이 잦았을 것이고 이는 곧 그림의 빠른 훼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존 ‘사라수탱’과 같은 민중 교화용 변상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사라수탱’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궁중시주로 다시 그려졌기 때문이다. 조선조에는 억불정책으로 드러내놓고 야단법석을 설치하여 민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수 없었기에 ‘사라수탱’과 같은 불화가 그려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궁중발원 불화였기에 건본으로 정성껏 그려졌고 이것이 일본에서 귀중한 보물로 취급되어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한 것은 고려시대의 작품이라는 뜻이 된다. 1449년 편찬된 <석보상절> 소재 ‘안락태자전’과 관련되어 그려졌다면 ‘사라수탱’이라 했을 까닭이 전혀 없다. 이러한 이유로서 ‘사라수탱’이 ‘안락국태자전’보다 상당히 앞선 고형으로서 고려시대의 작품임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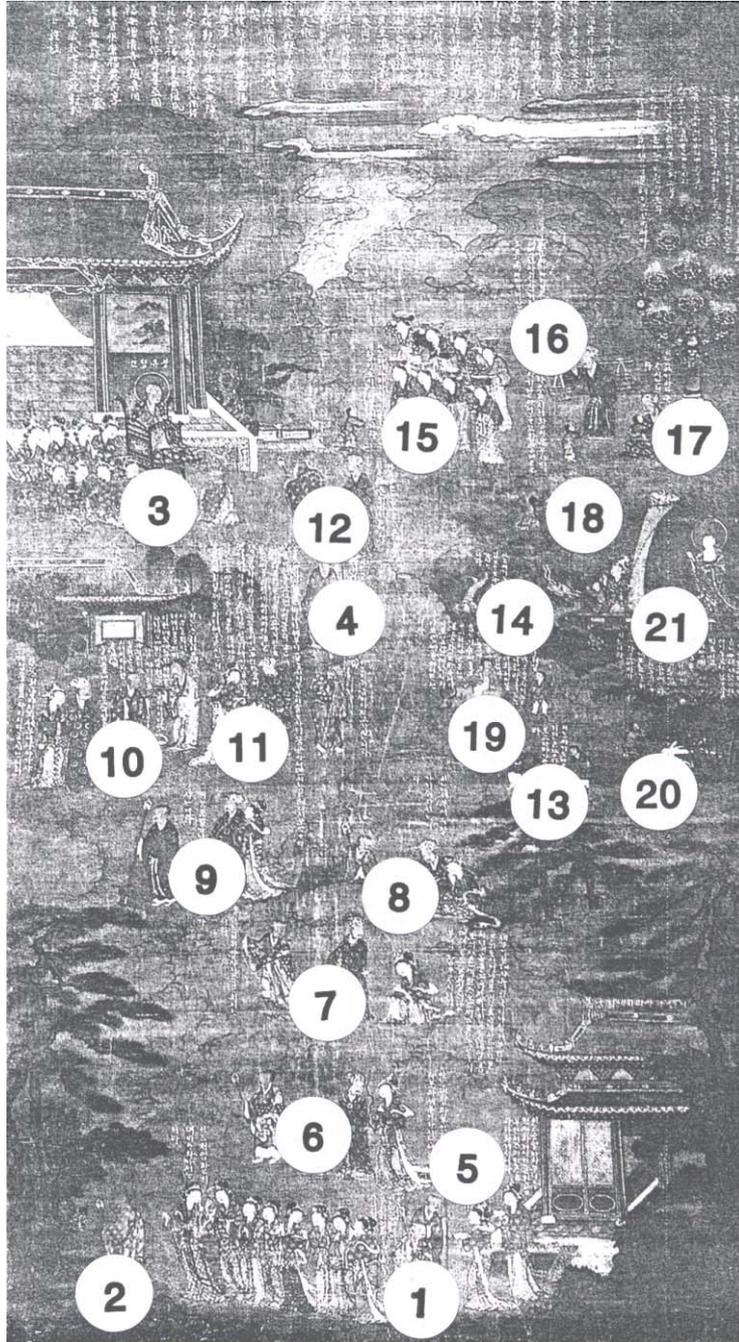
일본 靑山文庫 소장 〈沙羅樹幀〉, 絹本彩色, 106.5×57.1cm, 1576년<sup>112)</sup>

112) 본 논문에 게재된 사라수탱은 박은경 교수(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가 소장하고 있는 슬라이드 사진을 현상한 것이다.

## 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와의 비교

‘사라수탱’은 서사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표현한 보기 드문 형식의 탱화이다. 그림의 상단부에 다시 제작하게 된 경위가 한문 새로 양식으로 적혀 있고 각 장면마다 간단한 한글 설명이 있다. 총 21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폭의 그림에 많은 장면이 삽입됨으로써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사라수탱’은 각각의 장면이 평면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내용 순서대로 그림을 따라가 보면 감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 “左 → 上 → 下 → 上 → 下 → 上 → 右 → 下 → 上”으로 시선이 이동하게 된다. 광유성인이 있는 서천꽃밭은 상단부에 그려놓고, 사라수대왕의 궁은 하단부 오른쪽에 그려 넣어 화면 구성상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서천꽃밭과 사라수대왕의 궁을 멀리 배치하여 여정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이자 그림 기법상 적절한 화면 안배를 위한 고려라 할 수 있겠다. 이 두 공간 사이에 4개의 공간이 더 설정되어 있는데 화면 중간 좌측에 장자의 집이 중간 우측에 강이 설정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대나무 밭이 있으며 상단중앙에서 하단중앙까지 수직공간은 사라수대왕의 궁에서 서천까지 가는 과정과 거리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사라수탱’은 여섯 공간, 21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사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 입체적으로 표현한 탱화라 할 수 있겠다. 인물의 등장횟수는 광유성인 1회, 승렬바라문 12회, 사라수대왕 9회, 원앙부인 9회, 안락국 8회, 팔채녀 3회, 목동 1회, 48용선 1회, 장자 1회, 장자의 종 1회이다.



다음은 ‘사라수탱’의 21개 장면 한글설명인데 서사전개 순서에 따라 구성한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였으며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괄호 안에 추정되는 글자를 쓴 후 의문부호를 달았고, 식별불능인 글자는 ○으로 표기하였다.

- (1)이논원앙부인이쳐엄즈미받즈오라나와겨시니라
- (2)이논승열바라무니쳐엄팔치녀비귀오라시니라
- (3)이논비귀팔치녀드리습고와뵈습느니라
- (4)이논승열바라무니두번재셔턴구기가시느니라
- (5)이논승열바라무니두번재와겨시거늘원앙부인이즈미받즈오라나와겨시니라
- (6)이논대왕과부인과승열바라문과세부니가시느니라
- (7)세부니길네샤륙림국디나실제부인니뭇뫼드시니냥분씩솔오샤되사르민지블  
어더내뫼물포라지이다뫼나드샤내일홈조쳐성인씩받즈오쇼셔포롬도설우시  
부니ㄴ장우르시니라  
이논비귀당자집ㄴ르치시느니라
- (8)이논세부니초망가너셔자시느니라
- (9)이논초망가너자시고당자의지브로가시느니라
- (10)이논즈현당자지뵈세부니나아가샤겨집종을포라지이다호시느니라  
이논즈현당재들고세부늘뵈셔드려겨집종의비디언메잇짜부인이니르샤되  
내모매비디일천근금이니이다또니르샤되뵈온아기비디또일천근금이니이  
다이천근금을비드로내야냥분씩받좁느니라
- (11)호룻밤자시고문뵈씩나샤세부니슬호시니부인이솔오샤되쑤곧아니면어느길  
해다시보스오리샤르미션을뫼딛면리익글슈호느니왕싱게를ㄴ르치습시고아  
기일호뫼엇찌호리잇짜사비어미이셔일뫼호사이다왕이눈물흘리시고부인쁘  
들어엇찌너기샤아들웃나거든안락국기라호고쑤라시든효양이라호라문뵈씩  
셔겨사냥부니여희실제술하디여우르시느니라

- (12)이눈부인느란프르시고대왕이비구와들히가시느니라
- (13)이눈아기도망하샤가거시놀당자집종이보고자바가습느니라
- (14)이눈아기도망하샤아바님보속오라딤동토크고가시느니라
- (15)이눈아기나아가시다가치녀보시니대왕이오신다하시느니라
- (16)이눈아기아바님(만?)나시니두허튀롤안아우르시니왕이무르샤디네엇던아히  
완디허튀롤아나우는다아기말아니호고왕성게틀외오신대아바니미안으시니  
라
- (17)이눈아기아나우르시느니라  
대왕이아기드려니르시디아래네어미나를여희여시름으로사니거늘오늘네어  
미너를여희여눈물로사느니라아기하디하야여희실제눈므을흘리시니사바니  
미슬흐샤아기보내실제놀애를브르시니아래너리그촌이런이븐길혜누를보리  
라우러곰온다태자비원앙도와공덕단논내몸이정각길혜마조보리어다
- (18)이눈아기도라오시느니라
- (19)아기도라올제길혜쇼칠아이를보시니놀애를브른니안락국기논아비논보와니  
와어미몸보와시르미집거다당재노호아부인늘주기압드니놀새를브르시니어  
다고븐님몸보속와술하우니다니오늘랄애닉시라마로렛짜하야니르느니라
- (20)부인니(엿?)○(셔?)삼동에도○샤즈게아래더덜사니아기우르샤삼동을피호  
시고셔방애합장하시니
- (21)극락세계엿스십팔로셔니공둥에느라오시니점인중시하시느체대보살들히스  
즈좌로마자가시느니라

우선 이 탕화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을 선정해야겠는데 그 대표형은 ‘안락국태자전’으로 삼도록 하겠다. 그것은 ‘안락국태자전’이 석보상절에 수록되어 있는데 석보상절의 제작이 1449년에 이루어졌고 ‘사라수탱’이 1576년에 이루어 졌다는 점 때문이다. ‘사라수탱’보다 앞선 ‘사라수구탱’이 ‘사라수탱’보다 2~3백년 앞섰다고 본다면 ‘안락국태자전’과 ‘사라수구탱’간에는 시기적으로 아주 근접해 있으며 이는 곧 상호간에 어떤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그 만큼 확대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락국태자전’의 서사내용과 ‘사라수탱’의 21장면을 대비시켜 본 후 필요에 따라 나머

지 작품과도 연결시키도록 할 것이다.

다음은 ‘사라수탱’의 21장면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것이다. 이는 ‘사라수탱’의 그림과 각 장면마다 적혀 있는 한글 해설 그리고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라수탱’의 전개과정을 풀이한 것이다.

- (1) 승렬바라문이 사라수대왕의 궁에 찾아와서 원앙부인에게 광유성인의 말씀을 전한다.
- (2) 승렬바라문이 팔채녀를 데리고 서천으로 향한다.
- (3) 광유성인이 승렬바라문에게 사라수대왕을 직접 청하여 데려 오라 명한다.
- (4) 승렬바라문이 광유성인의 명을 받고 다시 사라수대왕을 향하여 길을 떠난다.
- (5) 승렬바라문이 원앙부인을 만나 광유성인의 말씀을 전한다.
- (6) 승렬바라문이 사라수대왕과 원앙부인을 데리고 서천으로 향한다.
- (7) 도중에 원앙부인이 발병이 나서 주저 않는다.
- (8) 원앙부인이 더 이상 갈 수 없으므로 자신과 뱃속 아이를 장자의 종으로 팔아 그 값을 팔아 시주하겠다고 한다.
- (9) 승렬바라문, 사라수대왕, 원앙부인은 장자의 집으로 향한다.
- (10) 장자의 집에 당도하여 장자와 흥정을 한다.
- (11) 원앙부인은 종으로 팔리게 되어 사라수대왕과 이별을 하게 된다.
- (12) 승렬바라문과 사라수대왕은 서천꽃밭에 도착하게 된다.
- (13) 안락국은 장자의 집을 탈출하였으나 장자의 종에게 붙잡힌다.
- (14) 장자의 집을 재차 탈출하여 강가에 이르러 하늘을 향해 왕생계를 외운 즉 쥘동을 내려준다.
- (15) 범마라국에 도착하여 팔채녀와 만나게 된다.
- (16) 이어 아버지와 상봉하여 왕생계를 외니 대왕이 아들임을 알아본다.
- (17) 대왕은 아기를 안고 우시고 안락국은 아버지에게 안겨 어릴 때 못해본 재물을 부린다.
- (18) 다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되돌아간다.

- (19) 도중에 소치는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어머니가 버려진 곳을 알게 된다.
- (20) 대나무 밭에서 어머니의 주검을 대하고 울며 계를 지어 부르니 극락세계에서 48용선이 내려와 그 부모가 벌써 서방에 가서 부처가 되었음을 전한다.
- (21) 안락국은 48용선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사자좌에 올라 극락세계로 간다.

‘사라수탱’과 ‘안락국태자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원앙부인이 장자로부터 받는 수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제1노정기와 제2노정기의 중간에 원앙부인이 김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려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수난기가 상당히 부각되어 있다. 즉 원앙부인이 장자로부터 받는 핍박이 구체적이어서 장자의 악행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안락국태자전’과 ‘사라수탱’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난기가 약화되거나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이 시기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4·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라수대왕과 원앙부인이 자신들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선행을 위해 광유성인이 있는 범마라국 임정사로 길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부처가 되었다는 원인과 결과의 내용구조였다. 그러나 이것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흥미성이 강조됨에 따라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과정이 중요시되고 필연적으로 원앙부인과 안락국의 수난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인 - 과정 - 결과의 내용구조로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수난기의 약화는 장자의 악행을 부각시킬 수가 없게 되었고 이는 장자의 현세적 징치 장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둘째, 재생모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통곡을 하니 극락세계에서 48용선이 내려와서 그 부모가 이미 서방에 가서 부처가 되었음을 전해 주고 안락국은 사자좌에 올라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셋째, 주요등장인물의 명칭에 있어서도 일치하고 있다. ‘사라수탱’에서 등장인물과 명칭을 들어 보면 “광유성인, 대왕, 원앙부인, 팔채녀, 승열바라문,

자현장자, 안락국, 장자의 중” 이는 ‘안락국태자전’과 일치되고 있다. ‘안락국태자전’을 직접적인 모본으로 하고 있는 ‘안락국전’도 이러한 정도로까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중 ‘사라수탱’과 가장 친연성이 강한 작품은 ‘안락국태자전’이라 할 수 있다.

### 3. 사상적 배경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사상의 巫·佛·仙·儒 사상의 습합양상을 보이고 있다. 4교 사상의 습합양상과 습합배경을 알아봄으로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승계맥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 우선 주요등장인물의 명칭으로 본 사상의 습합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호	이공본풀이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	신선세턴님칭배	기림사사적	오구대왕풀이
기준인물	㉑	할락궁	안락국	안락국	악양국	안낙동	안락국	오구대왕
㉑의 아버지	㉒	사라도령	사라수대왕	사라수대왕	대왕님	산아수대왕	사라수대왕	대왕님
㉑의 어머니	㉓	원강암	원앙부인	원앙부인	왕후	원앙성부인	원광부인	대비마마
㉒를 천상계로 부르는 역할	㉔	옥황	광유성인	석가세존	부처님	옥황님	광유성인	.
㉔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	㉕	옥황의 사자	승열바라문비구	승여래바라문	비구승	금부나장	승열바라문	시주승
㉑와 ㉓에게 고통을 주는 인물	㉖	김장자	자현장자	자현장자	자인장자	.	자현장자	산적
㉖를 도와 주는 역할	㉗	천리통, 만리통	장자의 중	장자의 중	문지기	.	사십리를 보는 자와 뛰는 자	산적부하와 여종

노정기의 되풀이를 통해 보았듯이 ㉠뿐만 아니라 ㉡㉢도 주인공으로서 사건 진행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작품도 있었고 더군다나 ‘신선세턴님칭배’의 경우 ㉠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기준 인물로 설정한 것은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품의 제목으로 ㉠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를 중심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곱 편의 대상 작품 중에는 위에 제시한 이외의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사건 진행에 긴요치 않은 인물은 제외시켰다.

등장인물의 명칭만으로도 몇 가지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첫째가 인물명칭 대비에서도 여전히 ‘오구대왕풀이’는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이 불교식 명명인데 ‘이공본풀이’와 ‘신선세턴님칭배’는 ㉡와 ㉢가 도교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서사무가인데도 ‘악양국왕자노래’는 불교식 명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등장인물 명칭에서도 불교계 서사체와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은 ㉡의 명칭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이 동일한 점<sup>113)</sup>으로 보아 ‘안락국전’은 서사무가의 영향보다는 ‘안락국태자전’을 직접 계승한 흔적을 보인다.

‘안락국태자경’은 본생담으로 석가전생의 고행담이라 할 수 있다. 선업을 쌓음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었다는 인과응보적 사상과 윤회전생적 사상이 그 바탕을 이루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조의 정책적인 간행 사업이었던 석보상절·월인석보에 수록되면서 유교사상의 강한 영향을 받아 원강암의 희생과 정절 그리고 안락국의 효가 부각된다. ‘안락국태자전’의 사라수대왕이 장자집에서 원앙부인과 헤어질 때 딸을 낳으면 ‘효양’이라 지어라 한다. 여기에서의 ‘효양’도 분명 유교적 색채를 띤 명칭으로서 僞經이 석보상절에 수용되면서 유교적 사상이 스며든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석가모니 전생담인 ‘안락국태자경’이 조선시대에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등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역

113) 안락국태자전의 ‘승열바라문’과 안락국전의 ‘승여래바라문’은 동일 대상의 표기상의 차이로 보아 동일대상의 지칭으로 보았다.

시 사라수대왕의 비중이 줄어들고 원강암과 안락국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원앙부인의 남편과 아들을 위한 자기희생과 인고 그리고 정절은 조선조의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이상적인 여인상이었으며, 안락국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한 탈출과 이미 죽은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는 행위 역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효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가 이렇게 사상적인 습합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안락국태자경’은 다른 장르의 문학과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전승되어 나갔는가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성격규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불교계 변문, 즉 화청은 구비적으로 전개된 문학이다. 법사가 교화를 위해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화청은 불경의 고사를 연역·부연하여 쉽게 풀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속적인 내용까지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사는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허구적 성격을 지닌 구비서사물을 창작해 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화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가 내지 향가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僞經인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의 관계로 보아 화청과 무가의 관계는 쉽게 수궁을 할 수가 있겠으나, 향가와 무가 혹은 향가와 화청과의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생소하고 의아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천착해 보면 이들은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우선 향가와 무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들은 각기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향가와 무가는 모두 시가 영역에 속하며, 향가의 전성시기였던 신라시대에도 무가는 존재했었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비록 제정일치의 시대는 아니었다고 해도 祭를 담당했던 주체는 여전히 상층에 속해 있었으므로 향가 향유층과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상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여러 향가 작품에서 무속적 사상과 의식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향가와 불경의 관계인데 현재 전승되고 있는

향가 대부분이 승려작이거나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향가가 일반대중들에게 불교의 진파·교화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상호 무관할 수 없으리라 여겨진다.

무가는 무속의례가 행해지는 굿판에서 무당에 의해 불려지는 ‘노래’이다. 무당의 노래인 무가는 무당만이 부르며 무당들 사이에서만 전승되는 제한적 전승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 무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서 무속의례가 행해지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무가를 부르는 것을 몹시 꺼린다는 것이다. 이는 무가를 부르면 신이 내린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것으로 보아 무당들은 무가를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가에는 주술적 성격이 강하게 묻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가에 새로운 바람이 일었으니 그것이 바로 향가이다. 조동일은 그의 문학사에서 향가의 발생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굿노래를 부르며 주술을 행하던 전통 또한 새롭게 계승될 필요가 있으며, 화랑제도가 창안되고 산천을 찾아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면서 수련을 일삼는 기풍이 고조되자 사뇌가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sup>114)</sup>.

이와 같이 향가는 굿과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굿의 특징인 주술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대중성을 획득한 향가는 불교의 포교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불교가 뿌리를 내림에 따라 더욱 성행하게 된 것이다. 현전 향가의 경우 대다수가 승려에 의해 창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향가가 주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유를 불교의 呪密思想에 있다고 파악하는 경우<sup>115)</sup>가 있다. 물론 타당성 있는 견해이긴 하지만 주밀사상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무속적 사상이 전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무속적 사상과 성격에서 가장 근접한 주밀사상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

11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2, p.124.

115) 김승찬 편, 「향가의 주사적 성격」,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특보살은 수용 초기부터 화랑도와 결부되면서 鎭護國家하는 불보살로 정착, 잡밈화하였고, 그 신앙에 있어서는 현세 이익적인 주밈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무속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밈교의 잡밈화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결국 향가의 주술적 성격은 무가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향가와 불교계 변문 그리고 무가는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며 교섭하면서 전승되어 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향유·전승되어 졌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여기에 대해 사재동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향가전설은 강창으로 구연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가요전설은 강설되고 가창 되는 게 원칙이다. 이 가요전설은 절실하게 구연하면 자연 이야기와 노래로 조화되어 강창 상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런 향가 강설은 강창을 위하여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강창 양식을 통해서만 그 효능이 극대화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요전설은 강창을 위한 대본이 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구연자는 이 대본에 의존하는 게 원칙이나 결국은 그 대본을 초월하여 능력껏 부연·강설하고 목청껏 강조·가창 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sup>116)</sup>. (밈줄 필자)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향가와 그 배경설화가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연행문학이기 때문에 구술성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구술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비적 성격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밈줄 친 부분은 향가와 배경설화가 연행됨에 있어 구비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일정한 대본을 바탕으로 강창 되더라도 강창자의 기지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말이다. 구비문학의 특성이 그런 것처럼 향가와 배경설화의 연행에 있어서도 즉흥성을 띠면서 현장적 가변성을 지닌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가와 배경설화의 가창

116)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p.44.

은 문자에 의존하되 그것을 초월하는 구비성을 첨가시킨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창자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구비성을 지녔다고 해서 전승될 때에도 구비성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전달의 매체는 말이지만 전승의 매체는 문자이며 작자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 기록문학인 것이다.

다음은 무가와 향가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헌화가〉와 〈해가〉는 굿을 하면서 부른 굿노래일 수 있다. 두 번이나 등장하는 노인도 그 정체를 두고 지나친 풀이를 할 것이 아니라 굿에서 설정한 인물이라고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굿을 여러 차례 했을 것이며, 꽃거리라 이름짓고 싶은 대목에서는 〈헌화가〉를 부르고, 용거리라고 해야 할 대목에서는 〈해가〉를 불렀다고 보면 전후의 문맥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굿노래야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나라에서 보낸 무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했기에 향가에 편입되거나 한역되어 남아 있는 예외적인 처우를 받은 듯하다. 하나는 향가이고, 또 하나는 한역가인 차이점까지 이해하고자 한다면, 〈헌화가〉는 상층의 굿에 이미 수용되었던 노래이지만, 〈해가〉는 현장에서 받아들여 한번 불렀기에 자료만 기록해 두면 그만이지 구태여 향찰로 표기할 필요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sup>117)</sup>.

신라의 지배층은 불교적 이념에 유교적 제도를 택하였으나, 당대를 지배하고 있던 무속의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특히 민심을 수습하거나 자연재해 등이 있을 때에는 굿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풍속은 그 뿌리가 심원하기 때문에 신라 말기에 이르러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처용가〉는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김열규<sup>118)</sup>는 『삼국유사』 소재 처용랑의 전승을 일종의 ‘신성전설’이라 하고 역신을 驅逐하는 기능을 지닌 한 주술사의 내력과

11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97, pp.154~155.

118) 김열규, 「향가의 문학사적연구」, 『향가문학론』, 김승찬편, 새문사, 1986.

그가 행한 주술의 가무와 그 결과로서 그가 벽사진경의 門神이 된 사실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처용은 역신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의료 주술사, 곧 醫巫라는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벽사진경의 주력을 지니고도 있었기에 보다 포괄적으로 降魔師 내지 주술사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무속은 한국인의 신앙관에 뿌리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巫의 원형을 단순히 현재의 무속과 일치시킬 수는 없다. 우리의 巫는 오랜 세월을 외래 종교와 교섭하면서 많은 변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외래종교 유입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서 고유신앙이 있었고, 그 고유신앙이 바로 우리 무속의 기본이 되었으며, 이것이 외래적 요소와의 혼합 속에서 지속과 변화를 거듭한 것이 한국 무속사가 되는 셈이다<sup>119)</sup>.

한국 무교는 외래종교를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그뿐 아니라 외래의 것을 표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잠적하여 음성화해 버린다. 말하자면 태극에서 음양과도 같이 둘로 구별되면서도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외래종교를 양성화시키고 자기는 사라진 듯이 음성화함으로써 대립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융합한다. 그러면서도 무교는 사라지지 아니했다<sup>120)</sup>.

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巫는 불교의 기층으로 숨어들어 불교에 예속되는 듯 하면서 불교를 무속화 시키는 과정을 밟았다.

전승 향가의 대부분이 불교적 색채를 띤 작품이거나 승려작 향가이면서도 주술성이 많이 배여 있는 것도 巫의 이러한 특성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초기 발생기의 향가는 巫와 깊은 관련성 하에서 시작되었으나 막강한 외래종교인 불교가 들어와 향가를 교화와 포교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자 불교라는 거대한 물결 속으로 잠적하여 음성화해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巫는 사라지지 않고 향가 속에서도 주술적 면모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

119) 박경신, 「한국무가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5집, 한국구비문학회, 박이정, 1991.

120)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p.142.

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신라시대의 불교는 두 가지 양식의 문학 즉 서정문학으로서의 향가와 산운교직으로서의 변문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문학을 이용하여 대중 교화를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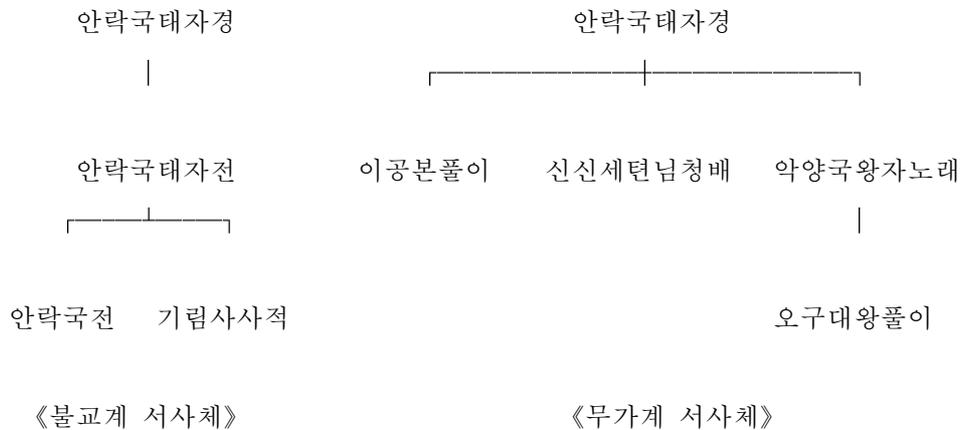
무속은 이미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무속의례에서 불려졌던 노래인 무가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인 향가를 낳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향가 중에 더러는 인도의 불경이 도착화되어 변형된 화청과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무속에서 받아들여 무가화시키는 과정을 밟은 것들이 있다.

인도의 불경이 중국으로 전승되면서 대중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한 것이 강창이고 이것이 다시 신라에 영향을 주어 화청이라는 한국화된 강창문학을 낳게 된 것이다. ‘안락국태자경’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화 된 불경으로서 정식불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위경이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승려들에게 향가와 화청은 민중교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되었고 어떤 형태로든 상호교섭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상적인 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던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전승계맥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획일적으로 계통도를 그려서 절대적 영향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계통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복합적인 영향관계 아래에 있었겠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러한 관계 하에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일 따름이다.

크게 두 계통으로 나누었다. 불교계 서사체 계통과 무가계 서사체 계통이 그것이다. 두 계통 모두 ‘안락국태자경’을 모태로 하여 전승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불교계 서사체의 경우 조선조의 석보상절·월인석보에 ‘안락국태자전’으로 전승되어 여기에서 ‘안락국전’과 ‘기림사사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공본풀이계 무가가 들어서게 되면 양상은 복잡하게 변하고 많다<sup>121)</sup>. 그러나 이공본풀이계 무가는 ‘안락국태자전’이나 ‘안락국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락국태자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각 지역의 지역색에 맞게끔 재창조되어 수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당시 ‘안락국태자경’은 일반 백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유일한 방식으로 남아 있는 ‘사라수탱’이 16세기에 다시 그려졌다는 점이 그러하고, 석보상절에 수록되었다 점 역시 15세기 중엽까지 그 내용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고려시대에도 일반민중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널리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토록 일반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을 당시의 무격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당시의 백성들

121) 사재동은 “안락국태자경→안락국태자전→이공본풀이계 무가”로 전승되었다고 하여 무가를 가장 후대형으로 보았고, 서대석은 “안락국태자경에서 안락국전으로 전승되었으나 ‘이공본풀이’와 ‘신신세턴님청배’는 ‘안락국태자경’이 설화화를 거쳐 전승되었거나 ‘안락국전’이 설화화되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김진영은 ‘안락국태자전’에서 이공본풀이계 무가가 파생되었을 것으로 보았고 이는 또 ‘안락국태자전’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이공본풀이계열과 설화화 과정을 겪은 것을 수용한 ‘신신세턴님청배’, ‘오구대왕풀이’, ‘악양국왕자노래’로 나누었다. 최진봉은 안락국태자전과 이공본풀이계 무가가 안락국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입장이다. 즉 이공본풀이계 무가가 안락국전보다 선행하여 안락국전이 이들 두 계통의 작품들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은 불교와 무속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믿었기에 무격들도 이것을 받아들여 무속신앙화함으로서 당골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당시의 무격들은 문자전승의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무격들이 석보상절에 수록된 ‘안락국태자전’을 접하거나 읽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선행연구자에 의해 제기된 ‘안락국태자전’에서 이공본풀이계 무가가 전파되었다는 설은 설득력을 지닐 수가 없다. 문헌에 기록된 이야기는 좀처럼 변이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러한 기록물이 민간에 전승되어 민담화 혹은 무속화됨으로서 변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신선세턴님청배’나 ‘이공본풀이’의 경우 본래의 텍스트에서 대폭적인 변이를 거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공본풀이계 무가가 어떤 기록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본래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구심력에 의해 현재와 같은 대폭적인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안락국태자전’ 혹은 ‘안락국전’이 설화화 과정을 거쳐 이공본풀이계 무가로 전승되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설화화가 이루어 졌다면 그 시기는 고려시대로 보아야 한다. 고려시대에는 강창문학이 널리 유행한 시기였으나, 조선시대는 드러내놓고 사원내의 광장에 야단법석을 마련하거나 도량 내의 강당에 강경법석을 차려놓고 법사가 설파할 기회가 적었다. 때문에 만약 설화화라는 중간단계를 거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선시대보다는 고려시대에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은 조선시대 작품이기 때문에 이들이 설화화를 거쳐 이공본풀이계 무가로 전승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셋째, ‘악양국왕자노래’의 조사기록을 보면 무녀 강분이는 ‘악양국왕자노래’를 ‘관음보살 전생록’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經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sup>122)</sup>.

이러한 이유로 이공본풀이계 무가는 고려시대 강창문학의 직접적인 전승으로 볼 수 있으며 ‘안락국태자전’이나 ‘안락국전’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122)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8-9(경상남도 김해시·김해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어문연구실, 1983, p.123.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sup>123)</sup>.

‘안락국태자경’에 의해 태어난 이공본풀이계 무가는 각 지방의 무가적 특성에 맞게 재창조되어 졌기 때문에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악양국왕자노래’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안락국태자전’과 상당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안락국태자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안락국태자전’은 ‘안락국태자경’의 거의 그대로 문자화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라수탱’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사라수탱’은 ‘사라수구탱’을 그대로 모사한 그림<sup>124)</sup>이고, ‘사라수구탱’은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내용상 “안락국태자경 = 사라수구탱 = 사라수탱 = 안락국태자전”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양국왕자노래’가 ‘안락국태자전’과 유사하다는 것은 ‘안락국태자경’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유독 ‘악양국왕자노래’만 ‘안락국태자경’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제주도와 평안도는 무가의 지역적 특수성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본풀이’는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의 일반적이 특성에 맞게끔 재창조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신선세턴님청배’ 역시 평안도 무가에 수용되면서 그에 맞게 재창조된 것으로 여겨진다<sup>125)</sup>. 즉 무가로 전승되면서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그대로 간직하려는 구심력보다는 제주도와 평안도 무가의 특수성에 부합하려는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남 김해 지방의 무격은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변형시킬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123) 이공본풀이계 무가는 ‘안락국태자경’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조선조 석보상절에 수록되면서 부터 안락국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안락국과 유사명칭(할락궁, 악양국, 안낙동)이 이공본풀이계 무가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안락국전’의 유행으로 이것을 무가에서 재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24) ‘사라수구탱’이 마멸이 심해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라수탱이 모본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사라수구탱’에는 없던 그림에 대한 설명이 ‘사라수탱’에는 한글로 각각의 그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화공은 이 그림의 내용을 꿰뚫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세부적인 화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변화를 주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25) 연구자가 아직 평안도 무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못해 단언은 할 수 없으나 손진태의 <청구학총22호>에 수록된 무가들을 보면 거의 ‘신선세턴님청배’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오구대왕풀이’는 ‘악양국왕자노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김해와 동래는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산의 무격은 ‘바리공주’ 무가에 이것을 일부 수용하여 무가의 내용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였던 것이다.

부산 동래 김경남 구송본인 ‘오구대왕풀이’는 ‘바리공주’ 무가에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여러 화소를 변이 수용하였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오구대왕의 부모 이야기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을 그렇지 않다. 본격적인 바리공주 일대기 부분에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화소가 수용되어 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린다. → 이공본풀이, 기림사사적과 동일.

둘째, 시주승이 자신의 절에서 백일공을 드리면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여 그렇게 한다. → 악양국왕자노래와 동일, 기림사사적에서는 자신이 있는 절에서 물 공양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어렸을 때 못해 본 어리광을 어머니를 만나서 푼다. → 이공본풀이는 아버지에게 푼다.

넷째, 부처님이 바리태기의 고난을 덜어준다. → 이공본풀이, 안락국전에서 아버지가 母子의 고난을 덜어주며 기림사사적에서는 천녀와 천인이 같은 역할을 한다.

다섯째, 바리태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문을 외워 위기를 모면한다. → 안락국태자전, 악양국왕자노래에서는 왕생계를 외워 하늘의 도움을 받으며, 기림사사적에서는 바라문이 왕생계로 부인을 축원해 준다.

여섯째, 아버지가 죽은 것을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알게 된다. →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에서는 소치는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어머니가 죽은 것을 알게 되거나 버려진 장소를 알게 된

다.

일곱째, 꽃으로 아버지를 재생시킨다. → 이공본풀이, 안락국전, 기림사사적에서는 꽃으로 어머니를 재생시킨다.

이것으로 보아 ‘오구대왕풀이’는 전반부의 오구대왕 부모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바리공주 일대기에서도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화소가 일부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부산동래와 가까운 김해지방에 이공본풀이계 서사무가인 ‘악양국왕자노래’가 전승되고 있고 또 조선후기에는 안락국전이 널리 읽혔기 때문에 부산의 세습무들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를 받아들여 ‘바리공주’ 무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섭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승계맥에 있어 김경남본 ‘오구대왕풀이’가 가장 하위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 4. 이공본풀이 무가의 지역적 특성

제주도 무속 신화인 〈본풀이〉 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 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화를 향유하는 신앙민 집단의 미의식이 발현되고 있다<sup>126)</sup>. 이와 같이 신화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삶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바다로 둘러 쌓여 고립된 제주도 사람들에게 신은 그들의 편에 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제주사람들의 신에 대한 애착은 1만 8천의 신들이 그들과 함께 하게 했으며 이러한 삶에서 중심이 된 것이 〈본풀이〉이다. 제주도는 본토와는 다른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상황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독자적인 신화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본토와 동계서사물로 전승되고 있는 ‘이공본풀이’도 제주도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변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고 결국은 그들만의 신화로 만들어 나갔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장에서는 본토무가와

126) 문무병, 「제주도 토속신들의 역할과 기능」 『제주어문』 제2집, 영주어문연구회, 2002.

는 다른 제주도 무가만의 특성이 있음에 기인하여 ‘이공본풀이’ 무가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제주도는 매우 좁은 지역에 기기묘묘한 지형경관이 집중되어 있고, 기후와 토지가 척박한 위에 바다생활을 전통적으로 행해왔다. 이러한 환경이 제주 사람들로 하여금 고대 그리스 사람들 못지 않게 수많은 신화를 창조하도록 하여 세계인들은 제주도를 ‘신(神)들의 고향’이라 부르기도 한다<sup>127)</sup>. 이렇듯 제주도는 아직도 신화가 살아서 생동하는 땅으로서 우리나라 구비문학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부가 서울이라면 무가에 있어서의 중심부는 제주도이며 가히 신화의 수도권이라 할만하다.

961년에 편찬된 唐會要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당시 탐라국의 인구는 약 8천명 정도였으며, 성곽이 없는 五部落으로 구성되어 있고 칼·방패·긴 창이 있었으나 문자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鬼神들을 섬겼다 한다<sup>128)</sup>. 이것으로 보아 제주도는 이미 고대시대부터 많은 무속신화가 창조되어 활발히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신화의 땅이면서 남방계통의 신화와 북방계통의 신화가 융합되는 곳이기도 하다. 현용준<sup>129)</sup>은 제주도의 신들을 天降神, 大地湧出神, 바다로부터의 來訪神으로 나누고 천강신화와 그 의례 방식은 북방아시아로부터 한반도를 거쳐 유입한 것으로, 대지용출신화, 바다로부터의 내방신화와 그에 대응하는 의례방식은 동남아시아로부터 유입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화와 의례형식이 남·북방 계통의 것이 융합되어 있는 사실은 제주도가 남방문화와 북방문화의 교차지점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문화적 영향권 속에서 북방계 신화의 영향도 컸지만 남방계 신화의 유입도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주도는 남·북방 신화의 융합지역으로서 다양한 신화를 섭렵하면서 방대한 양의 신화를 전승

127) 송성대, 「삼다의 지역성과 삼무의 전통문화」,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p.123.

128) <간접인용>, 고창석, 「탐라의 명칭과 대외관계」,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p.142.

129) 현용준, 「제주도 신화와 의례 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남·북 신화의 융합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평안도·함경도의 신화와 같은 유형이 많다<sup>130)</sup>는 점이다.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북 양극의 지역에서 동일유형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제주도의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도와 고구려와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음이 여러 고고학 자료와 문헌 자료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북부지역과 제주도 무가의 친연성은 고구려와 탐라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찾음이 옳을 것 같다.

홍순만<sup>131)</sup>은 제주도의 원주족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서 어느 한 시대에 한 계통에서 흘러들어 온 종족집단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여러 계통에서 흘러 들어온 종족들로 형성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 루트는 대체로 세 가지

---

130) 허남춘은 제석본풀이는 부여족의 신화와 깊은 연관을 맺는다고 보았다. 부여족의 신화에는 특히 고구려 건국신화에서처럼 1대 주몽과 2대 유리에 걸친 시조전승이 서술되는데, 호남지역에서는 제석본풀이가 전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에는 제석본풀이가 일공본풀이란 제명으로 전승되고 있고, 여타의 일반신본풀이 속에도 주몽·유리의 신화소가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제주의 서사무가는 고구려계의 신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제21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0.

서대석도 《제석본풀이형》에 생긋(함경도)과 초공본풀이(제주도), 《강남도령형》에 체사본풀이(제주도)와 집가제긋(함경도), 《할락궁형》에 이공본풀이(제주도)와 신선세턴님청배(평안도), 《백년해골형》에 멩감본(제주도)과 황천훈시·훈쉬긋(함경도)을 시킨바 있다. 이것을 두고 그는 “함경도와 평안도가 같은 유형의 무가를 전승하고 있음은 그 지역의 인접성으로 보아 이해가 가능하나, 제주도와 평안도, 또는 제주도와 함경도의 서사무가가 같은 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 서사무가가 전국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나 아직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에서 발견되지 않는 무가가 제주도와 평안도, 또는 제주도와 함경도에서 전승되고 있음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제8집, 국문학연구회, 1968.

임석제도 서대석과 유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함경도의 무가에는 신화와 설화가 담긴 것이 많이 있다. 제주도의 무가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짜임새 있는 천지개벽신화가 제주도와 함경도에서만 채록되고 양 지역의 중간지대에서는 채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문화 구멍에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함경도 망목긋』, 열화당, 1985, p.90.

김현선도 함경도와 제주도의 무속서사시의 내용이 공유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현선, 「함경도 무속서사시연구」, 『구비문학연구』, 제8집, 한국구비문화회, 1999, p.250.

131) 홍순만, 「탐라의 원주족」,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방향<sup>132)</sup>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종을 이룬 것은 한반도를 거쳐온 무리였는데 그들은 주로 예맥족이었고 뒤에 기원 전후해서는 부여족이 대거 흘러들어 왔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부여족이 들어오면서 선주족을 밀어내고 강력한 집단으로 등장하여 원주족으로 부각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濊貊族의 한 갈래인 부여족이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하였고 이들이 제주도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전에도 한반도에는 여러 종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들은 점차 축출 당하고 이들의 지배족이 되었으며 바로 韓族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학자들 간에는 한족과 예맥족을 구별하는 경향도 있다. 한반도 북부지역의 예맥족과 삼한지역의 한족을 별개의 종족으로 보고 한족은 남방으로부터 북상해 온 종족으로 보는 태도이다. 어쨌든 이 예맥족 가운데 강력한 집단을 형성한 부여족이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고구려, 백제와 같은 강력한 고대 국가들을 건설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후일의 한민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여족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지배족이 되었음은 물론이다<sup>133)</sup>.

고구려와 탐라국이 5세기 무렵에도 밀접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아래 제시한 자료는 백제의 동성왕이 탐라국을 복속시킨 약 6년 뒤에 고구려 사신 芮悉弗이 北魏의 세종을引見하면서 아뢴 말이다.

正始 연간에 세종이 동당에서 고구려의 사신 예실불을 인견하니, 실불이 말하기를, “고(구)려는 (北魏에)하늘과 같은 정성으로 여러

---

132) 첫째, 한반도를 거쳐 들어온 부여족. 둘째, 고대 중국의 진한(秦漢)시대의 해외망명에 의한 루트. 셋째, 동남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로 북상한 해상문화 루트. 홍순만, 앞의 책.

133) 홍순만, 앞의 책, pp.129~130.

대에 걸쳐 충성하여 땅에서 나거나 거두어들이는 것을 조공에 빠뜨리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珂<sup>134)</sup>는 涉羅에서 생산됩니다. 이제 부여는 勿吉에게 쫓겨났고 涉라는 백제에게 합병되었는데, (고구려)國의 왕인 臣 雲은 끊어진 나라를 잇는 의리를 생각하여 (부여나 涉라의 사람들을)모두 저희나라로 옮겨 살게 하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물건을 王府에 올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두 도적들 때문입니다.”<sup>135)</sup>

正始中，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悉弗進曰：「高麗係誠天極，累葉純誠，地產土毛，無愆王貢。但黃金自夫餘，珂則涉羅所產。今夫餘爲勿吉所逐，涉羅爲百濟所并，國王臣雲惟繼絕之義，悉遷于境內。二品所以不登王府，實兩賊是爲<sup>136)</sup>。

이것은 고구려 문자왕(文咨王)13년(504)에 백제가 탐라를 복속시키고 6년이 흐른 뒤의 일이다. 탐라국이 백제에 복속되기 전까지 고구려가 탐라국으로부터 珂를 수입하여 북위에 조공해 왔다는 것이다. 고구려는 적대국인 백제를 사이에 두고도 탐라국과 교역을 해온 것이다.

박종성은 고대 탐라에는 북부여계 출자집단과 고구려계 출자 집단이 입도하여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판단아래 그 근거가 되는 탐라 고대사 관련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하였다. 그는 탐라가 백제와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조공하지 않고 고구려에 조공한 이유는 고구려와 탐라의 특별한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탐라에는 북부여계 출자 집단과 고구려계 출자 집단이 입도하였기에 제주의 창세서사시가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시조전승인 동명(주몽)전승이나 같은 계통인 「제석본풀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변천하였<sup>137)</sup>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나아가 언어적인 측면도 천착을 하여 탐라의 시조 전승에서 고구려와 부여의 성씨를 사용했<sup>138)</sup>을 밝히고

134) 珂玉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나는 소라 종류로서 중국 당 나라시대에 말재갈의 장식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35) 『中國正史 朝鮮傳』1, 국사편찬위원회, 천풍인쇄주식회사, 1987, p.517.

136) 위의 책, p.507.

137)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pp.301~307.

138) 박종성, 앞의 책, 307~338.

있어 이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이것은 창세서사시의 전승 집단이 부여 및 고구려 계통이라는 점을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지명으로 제주도의 언어가 부여계 언어에 속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로는 현평효<sup>139)</sup>가 있는데 그는 지명과 부족명을 통해 보았을 때 제주말은 원시 고구려계 언어, 곧 부여계 언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김공철<sup>140)</sup>도 제주도지명과 인명, 어휘 등을 고려할 때 제주언어는 고구려어와 가라어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김홍식<sup>141)</sup>의 논의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고고학적 유물들도 제주도가 북방지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제주도 용담동의 석곽묘는 압록강 유역 고구려 지역의 무덤 형식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리고 석곽 무덤 안에서 출토된 철제 장검은 만주·한반도 지역에서는 대동강 유역의 西北韓지역과 멀리 중국 길림성의 묵관·묵곽묘 유적에서 다량 발견된 바 있다고 한다<sup>142)</sup>. 여기에서 출토된 철기는 부장유물 자체로 보면 비교적 우월한 지위에 속하는 사람의 무덤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우월한 신분은 농기구를 통한 농업생산력보다는 무기구를 통한 무력식 권위로 상징화된다고 볼 수 있다<sup>143)</sup>. 이러한 유물들은 북

‘乙那;라고 하는호칭이 탐라 고유의 말이기보다는 부여·고구려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現傳 「三乙那傳承」의 三乙那 가운데 高乙那와 夫乙那는 제주의 토착 세력이 아니라 고구려와 부여에 族源을 둔 집단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즉 토착 세력인 梁乙那와 입도 세력인 高乙那·夫乙那가 연합하여 탐라의 역사를 열었다고 하는 시조 전승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p.313.

高乙那의 姓을 高라 하여 고구려계 출자 세력이라는 標識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夫乙那는 부여족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乙那’와 같은 부여·고구려계 칭호가 탐라의 성씨 시조의 칭호로 나타남으로써 現傳하는 「三乙那傳承」이 후대에 재편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즉, 高·夫의 二姓, ‘乙那’의 언어 계통에서 볼 때, 탐라 시조 전승의 내용은 그대로 지속시키고 姓氏와 ‘乙那’라는 標識을 통해 耽羅의 두 성씨 시조가 부여·고구려계에 族源을 두었다고 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p.320.

139) 현평효,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 『濟友文化』 4호, 한국방송통신대 제주총학생회, 1990.

140) 김공철, 탐라어 연구, 한국문화사, 1999.

141) 김홍식, 「제주도지방의 지명어휘고(2)」, 『논문집』 인문학편26집, 제주대, 1986.

142) <간접인용>,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탐라문화』 제21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0, p.28.

143) 이청규, 「탐라국의 형성과 문화」,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p.60.

방계 집단이 제주도에 들어와 선주족을 밀어내고 강력한 지배집단으로 등장하여 원주족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라 할 수 있겠다.

역사·문헌적, 언어학적 동질성, 고고학적 유물 등을 고려해 볼 때 탐라국은 북방계 집단, 곧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명료하다 하겠다. 고구려와 탐라국은 이미 고대국가 형성기부터 깊은 관련을 맺었고, 태생적 친연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와 탐라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함경·평안도무가와 제주도무가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전혀 의아해할 이유가 없게된다. 제주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고구려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북방계 신화와 활발한 교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북방계 신화를 수용하였으나 그들만의 독특한 신화로 변화시켜 나갔고 결국 본토와는 구별되는 제주도 신화만의 특징 있는 신화를 형성하게 된다.

제주도의 독자적 문화형성은 환경적 특성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제주도는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최남단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본토와 접촉의 기회가 적은 외부사회이며, 한반도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와 최다강수지대의 환경과 토질의 차이에서 오는 작물과 생산기술 등의 차이는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독특한 문화를 지니게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해 왔고<sup>144)</sup> 이는 남녀간의 역할을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제주도의 척박한 화산회토지대로 인해 밭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민들은 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화를 필연적으로 바다에서 구해야만 했다. 해녀들의 어로에의 참여는 자신의 소득을 가질 수 있었기에 일찍부터 여성들은 남성과 대등한 지위를 누려왔다. 이는 유교적인 다른 동양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으로, 제주도에서는 다른 동양사회에서 여성급 지구역인 유교 교당을 여성도 들어가 남자와 동등하게 예를 올린다<sup>145)</sup>.

144) 제주의 전작 농업에는 잡초제거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었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잡초제거의 노동력을 여성들이 담당함으로써 제주농업은 육지부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남성주도의 영농패턴과 상당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 이기욱, 「환경과 제주문화」,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p.76.

145) 송성대, 「삼다의 지역성과 삼무의 전통 문화」,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

제주도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독립된 경제단위를 이룬다는 점과 이것이 여자의 평생 계속된다고 한다. 노부모가 노쇠하여도 며느리가 취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만 남아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sup>146)</sup>. 이러한 제주도 문화의 특수성, 특히 남녀 평등사회의 문화는 제주도만의 독자적 성격을 간직한 독특한 무가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공본풀이는 제주도 특유의 신화적 환경 속에서 본토와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으나 본장에서는 나머지 여섯 편의 서사체와의 확연하게 변별되는 것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

우선 이공본풀이는 시작부분에서 주동인물들의 등장 이전에 이들의 부모가 등장하여 사라도령과 원강암을 낳게되는 과정이 서술된다. 반면 나머지 동계 서사체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제주도 무가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하는데 이공본풀이도 역시 제주도 무가의 이러한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몇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옛적에 임정국대감과 김진국부인이 부부가 되어 부자로 태평스럽게 살았으나 50이 가깝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이 컸는데 수록불공으로 자지명아기를 얻었다.

-초공본풀이-

김정나라 김정국은 윗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임정나라 임정국은 아랫녘에서 천하거부로 살았는데 둘 다 늦도록 자식이 없어 수록불공을 드린 후 김정국은 아들을 낳고 임정국은 딸을 낳는다.

-이공본풀이-

옷상실에 살던 한림수좌와 알상실에 살던 궁예궁전궁납이 흥년

---

사업추진협의회, 1998, p.126.

146) 이광규, 「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위치」,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p.201.

에 걸식을 하다가 만나 부부인연을 맺는데 셋째 딸을 낳고 부자가 되었다

-삼공본풀이-

옛날옛적 김진국대감님과 조진국부인님이 부부가 되어 부유하게 살았으나 오십이 가까워오도록 자식이 없다가 수록제를 지내고 자청비를 낳는다.

-세경본풀이-

장나라의 장설용대감 송나라의 송설용부인님이 오십이 가깝도록 자식이 없어 원불수록을 드리고 예궁예를 낳는다.

-칠성본풀이-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신본풀이의 시작은 공식적인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것은 제주도 서사무가의 전통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공본풀이’가 동계 서사체와 상이함을 보이는 이유는 제주도에 전승되면서 제주도 무가의 형식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의 명칭을 보면 ‘이공본풀이’만이 이름 끝에 ‘-도령’이 붙고, 나머지 서사체는 ‘-대왕’이 붙는다. 이것은 ‘이공본풀이’의 주동인물만이 신분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다른 서사체들은 일국의 대왕으로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던 존귀한 신분이었으나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은 차사에게 점심 대접할 쌀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신분이었다. 이것은 제주도민의 변방의식의 발현인 것으로 여겨진다.

길떠남의 성격도 상이함을 보인다. 사라도령은 옥황의 명령을 세 번이나 받고도 가질 않다가 삼차사가 잡으러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떠난다. 그러나 나머지 동계 서사체의 ‘대왕’은 기뻐하며 자신의 현실적 부귀영화를 기꺼이 버리고 길을 나선다<sup>147)</sup>.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의 일생담이 대체로 본토

147) 기림사사적에서는 바라문이 대왕에게 가서 성인의 말을 고하니 왕이 이르기를 “일이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하의 주인이기에 쉽게 그 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머뭇거리는 장면이 있다. 이러한 세속적 고뇌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부인의 말을 듣고 기꺼이 길을 떠나게 된다. 이것은 사라도령이 세 번이나 회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는 것과는 그 성격에 있어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의 무가에 비해 숭고한 신성성이 약화되고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

셋째, 활락궁에 의한 복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에도 장자의 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48)</sup>. 그러나 ‘무간지옥행’ 혹은 ‘벼락에 맞았다’ 정도의 단편적인 사실만을 알려줄 뿐 구체적인 장면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반면 ‘이공본풀이’에서는 활락궁에 의한 복수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악양국왕자노래’에서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의한 징치는 있으되 활락궁에 의한 복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도 역시 제주도 전승 무가의 특수성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는 복수의 장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는 원수를 갚기 위해 동해바다의 쇠철이 아들을 불러와서 일흔다섯 자 되는 칼을 만든다. 하인(下人)을 죽이는 칼은 다섯 자이면 되고, 중인(中人)을 죽이는 칼은 서른다섯 자면 되고, 양반을 죽이는 칼은 일흔다섯 자의 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삼형제는 일흔다섯자 되는 칼로 삼천 선비의 목을 일시에 벤다. 삼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한 과정이 상세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문전본풀이도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죽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한 막내아들의 과정과 지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결국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일곱 아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어 죽임을 당한다<sup>149)</sup>.

넷째, ‘이공본풀이’에서 제2노정기의 주동인물인 활락궁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지를 발휘하여 모면하게 된다. 이에 반해 다른 동계 서사체에서는 왕생계에 의한 다분히 주술적인 방법을 쓰거나 하늘과 신령의 도움을 받는 기

148) 안락국태자전에서 자현장자는 무간지옥행이라고 했고, 안락국전에서는 장자의 징치가 보이지 않으나 목동이·부동이는 벼락을 맞고 장자의 집은 청정소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장자 역시 징치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악양국왕자노래에서는 자인장자가 벼락을 맞았다고 했다. 그런데 신선세턴님청배, 기림사사적, 오구대왕풀이는 장자의 징치가 없다. 신선세턴님청배는 방해자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치 장면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구대왕풀이는 도적들이 깊은 산 속으로 숨어들어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149) 이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일곱형제들에 의해 흥계가 드러나자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으로 도망가 목을 매어 죽었다는 이본도 있다.

적적인 방법에 의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공본풀이’의 활락궁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인간적 영웅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역시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의 무속신의 인간 영웅으로서의 모습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안락국태자경’이 이공본풀이로 전승되면서 표현 형식적인 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안락국태자경’을 저본으로 하는 ‘안락국태자전’과 ‘안락국전’은 율독되었으나<sup>150)</sup> ‘이공본풀이’는 노래로 불려진다. 이것은 분명히 문장 형식의 차이를 불리오게 마련이다.

‘이공본풀이’의 표현형식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원적 대립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이공본풀이’의 서사단락 분석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김정나라 김정국은 윗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임정나라 임정국은 아랫녘에서 천하거부로 살았다.
- (2) 김정국과 임정국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수륙불공을 드린 후 김정국은 아들을 낳고 임정국은 딸을 낳는다.
- (3) 사라도령과 원강암은 혼인을 하였는데 사라도령은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오라는 연락을 세 번이나 받고도 가질 않는다.
- (4) 서천꽃밭에서 삼차사가 왔으나 점심 대접을 못하여 혼이 나고 차사님은 먼저 가버린다.
- (5) 길을 떠나는 도중 원강암의 발병으로 천년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리기를 원하여 장자의 첫째, 둘째 딸은 이를 거부했으나 셋째 딸이 찬성하여 종으로 팔리게 된다.
- (6) 작별을 할 때 사라도령은 사내를 낳거든 ‘활락궁이’, 계집애를 낳거든 ‘활락댁이’라 지어라 한 후 신표를 맡긴다.

---

150) ‘안락국태자경’은 산운교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산문은 강설하고 운문은 강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안락국태자경’을 <석보상절> · <월인석보>에 기록한 것이 ‘안락국태자전’이라면 이 역시 노래 불려졌을 것이라 오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석보상절> · <월인석보>는 <용비어천가>와는 달리 권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래로 불려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 (7) 장자가 여러 차례 동침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한다.
- (8) 이에 화가 나서 죽이려 하지만 셋째 딸이 만류한다.
- (9) 母子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키지만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 (10)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탈출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눈치챈 장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 (11) 장자는 할락궁이를 잡기 위해 천리통, 만리통을 보내지만 이를 따돌리고 서천서역국에 도착한다.
- (12) 신표로써 아들임을 인정받고 어머니를 살릴 꽃과 장자일가를 죽일 꽃을 가지고 되돌아간다.
- (13) 장자가 죽이려하자 할락궁이는 피로써 장자 일가를 한곳에 모이게 한 후, 멸망꽃으로 죽이고 큰딸에게는 가난한 꽃을, 둘째 딸에게는 멸망 꽃을, 마귀할멈에게는 부자될 꽃을 주었다.
- (14) 뼈를 모아 놓고 꽃으로 어머니를 재생시킨 후 셋째 딸을 데리고 모자는 서천꽃밭으로 간다.
- (15) 원강암은 저승어미가 되고, 사라도령은 저승아버가 되며, 할락궁이는 꽃감관이 되었다.

각 단락소를 유심히 살펴보면 각각의 개별단락소마다 이원적 대립항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총15개항으로 나눈 단락소 중 (1)~(13)까지는 각 단락소 안에 두 개의 대립항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표현형식에 있어 두 개의 대립항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고리에 연결되어 굴러가는 쳄바퀴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 (1)에서 보면 윗녘(上)/아랫녘(下), 가난(貧)/부자 (富).
- (2)의 자식이 없음(결핍)/아들·딸을 낳음(충족).
- (3)의 꽃감관으로 오라는 명(요구)/가지 않음(거부).
- (4)의 삼차사의 도착/삼차사의 떠남.
- (5)의 원강암을 종으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한 첫째·둘째딸의 반대/셋째딸의 찬성.

- (6)의 사라도령의 작별 인사(이별)/신표(만남의 암시).
- (7)의 장자의 동침요구/원강암의 거절.
- (8)의 원강암을 죽이려함(위기)/셋째딸의 만류(모면).
- (9)의 母子의 혹독한 노동(고통)/저절로 이루어짐(해결).
- (10)의 할락궁이의 탈출(해방)/어머니의 죽음(시련).
- (11)의 천리통, 만리통의 추격/할락궁의 따돌림.
- (12)의 어머니를 살릴 꽃/장자일가를 죽일 꽃.
- (13)의 장자에게 죽을 고비/장자를 죽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단락소 안에서 앞의 항과 뒤의 항이 대립적으로 이원화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나가듯 들은 긴밀한 연결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단락소만을 보았을 때는 이원적 대립이라는 형식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공본풀이’의 구조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에서 이원적 대립항의 반복은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중요한 공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4), (15)는 예외적으로 이원적 대립항을 이루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14), (15)는 이야기의 종결부에 해당하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립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안락국태자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식이다. ‘이공본풀이’의 이원적 대립항은 구비적 성격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이원적 대립항의 반복구조로 인해 무속인은 그만큼 쉽게 내용을 암기하여 구송할 수 있게 되고, 청자에게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국태자경’에서 무가화하면서 구비적 성격을 더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동계 무가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공본풀이’만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V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고려시대 유행했던 ‘안락국태자경’에 그 연원을 두

고 분과하여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으로 전승되었다. 그런데 “이공본풀이, 신신세턴님청배, 악양국왕자노래”는 이미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이전에 형성되어 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 조선조의 무격들은 문자전승의 능력을 지니지 못한 점을 들었다.

‘안락국태자경’은 고려조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변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의 석보상절·월인석보에 수록되어 진 것이다. 널리 전승되었다는 것은 대중들 사이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무격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그들은 이를 받아들여 무속신화로 재창조하게 된 것이다.

‘안락국태자경’의 연행년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라수구탱’의 제작시기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까지는 ‘사라수구탱’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모되었다는 기록에만 근거를 두어 2~3백년은 거슬러 올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막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사라수탱’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과 화면의 크기, 사라수탱이라는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라수구탱’은 고려 중~말까지 올려 잡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상이 있으면 변문도 따르기 마련이므로 ‘안락국태자경’ 역시 ‘사라수구탱’과 마찬가지로 고려 중~말에 이미 대중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이다.

‘사라수탱’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곱 편의 동계 서사체 중 ‘안락국태자전’과 가장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장자로부터 받는 수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재생모티브가 없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등장인물의 명칭을 살펴보면 서사무가의 경우 불교계 서사체와는 달리 오히려 도교식 명칭이 많다. 그런데 동계 서사무가임에도 불구하고 ‘악양국왕자노래’는 불교식 명칭 그대로 인 것으로 보아 앞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의 친연성<sup>151)</sup>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고 있다.

---

151) 다른 동계서사체와는 달리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는 부인에 대해 장자의 동침요구가 없으며 부인의 수난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다른 동계서사체에서는 부인의 재생모티브가 나타나고 있으나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에는 재생모티브가 없으며, 조력자의 성격까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안락국태자경’을 저본으로 전파되었다고 해서 불교적인 색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巫·佛·仙·儒 사상이 혼용되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강창문학이 중국에서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무속사상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창문학은 무속적 영향을 받아 토착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으로 전승되면서 유교사상이 덧붙여지게 된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승 계맥을 추정해 보았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안락국태자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안락국태자경’에서 두 계통으로 전승되었으니 ‘안락국태자경’에서 ‘안락국태자전’으로 전승되었으며 여기에서 ‘안락국전’과 ‘기림사사적’으로 이어진 계통이 그 하나이고, 다음으로 ‘안락국태자경’에서 바로 ‘이공본풀이’, ‘신선세턴님청배’, ‘악양국왕자노래’로의 전승이다. 그리고 ‘오구대왕풀이’는 ‘악양국왕자노래’의 직접적인 영향과 ‘안락국전’의 간접적 영향 등으로 근래에 ‘바리공주’ 무가와 습합된 것으로 보았다.

제주도는 환경적·문화적·역사적으로 본토와는 다른 경험을 하면서 그들만의 생활방식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신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제주도 무가만의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우선 제주도 무가와 함경·평안도무가와와의 친연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반도의 남·북 양극단의 지역에서 동일유형의 신화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주도의 역사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고학적 자료, 문헌적 자료, 언어학적 자료를 제시하여 고구려와 탐라국의 역사적 관계를 해명하였다.

둘째, 시작부분에서 사라도령과 원강암의 부모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린 후 이들을 낳았다는 내용이 전개된다. 이러한 서사과정은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공본풀이’는 이러한 제주도 무가의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셋째, 사라도령의 신분과 길을 떠나는 성격도 역시 ‘이공본풀이’만이 상이

---

다. 이와 같이 ‘악양국왕자노래’는 ‘이공본풀이’와 동계서사무가임에도 불구하고 무가적 색채보다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특히 ‘안락국태자전’과 친연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관계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다.

넷째, 장자에 대한 할락궁의 복수가 있으며 복수의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섯째, 할락궁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다른 동계서사체에서와 같이 주술적인 방법을 쓰거나 신적 존재에 의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기지를 이용한다. 이를 통해 할락궁의 인간적 영웅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이상의 것들은 동계 서사체와 비교했을 때 ‘이공본풀이’만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공본풀이’는 전제적 줄거리에 있어서는 본토와 동계 서사체라 할 수 있으나 제주도에 전승됨으로써 제주도 무가만의 전형적 모습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외에도 표현 형식적인 면에서 이원적 대립항의 연속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것 또한 다른 동계서사체에서는 볼 수 없는 ‘이공본풀이’만의 특징으로 보았다.

## VI. 결 론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전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방향은 몇몇 작품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구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II장·III장에서는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일곱 편 각각의 대비를 통해 서로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으며, IV장에서는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만의 독특한 공간구조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불교계 변문과의 관련성을 천착하였고, ‘사라수탱’을 통한 ‘안락국태자경’의 연대 파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사상적 측면까지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연원과 전승계맥을 추정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공본풀이’무가의 지역적 특성으로서 함경·평안도 무가와와의 친연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고구려와 탐라국의 역사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토의 동계서사체와는 다른 ‘이공본풀이’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일곱 편의 서사단락을 비교해본 결과 도입부가 둘로 나누어짐을 확인하였다. 서사무가는 주인공의 가족이 먼저 등장하는데 반해 불교계 서사체는 비현실계의 신성한 인물이 먼저 등장한다.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서사무가의 특징인 반면에 불교계 서사체는 이러한 모티브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구대왕풀이’는 바리공주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내용을 수용하였으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종합적 연구를 위해 ‘오구대왕풀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안락국태자경’에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석가모니의 전생담인 실달태자의 일대기를 변형시킨 위경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실달태자의 일대기를 전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 서사구조의 틀 안에서 재창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1인의 주인공에 의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주인공이 순차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즉 에피소드단위의 연망으로서 제1노정기 - 수난기 - 제2노정기 - 좌정기로 이어지면서 각 에피소드마다 사라도령, 원강암, 활락궁이 순차적으로 주인공으로 부각되었다.

2) ‘이공본풀이’ 무가는 제1노정기 주동인물인 사라도령의 신분이 다른 동계 서사체와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공본풀이’에서의 사라도령은 쌀이 없어 차사에게 점심 대접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 반면에 동계 서사체의 제1노정기의 주동인물들은 한 나라의 대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고귀한 신분이었다. ‘이공본풀이’는 이러한 신분적 차이뿐만 아니라 천상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성격에서도 아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사라도령은 옥황의 명을 세 번이나 받고도 회피하다가 삼차사가 잡으러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떠난다. 그러나 다른 동계 서사체는 대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길을 떠난다.

수난기의 주동인물인 부인은 한결같이 남편과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웅이 지니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적극적·진취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 여성영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2노정기의 주동인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공본풀이’의 활락궁의 성격이다. 다른 동계 서사체의 주동인물의 위기 모면책은 다분히 주술적·기적적인데 반해 활락궁은 천리통·만리통이 추격해 올 것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여 탈출에 성공한다. 이것은 활락궁을 인간적 영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것으로 보아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과 활락궁의 성격을 다른 동계서사체에 비해 현실적인 인간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반동인물의 명칭에서 한결같이 ‘장자’라고 불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민중들의 부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정적 인물에 투영된 것으로 보았다.

조력자의 성격은 대체로 소극적·수동적이었는데 이는 주동인물의 영웅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나타나는 공간은 아주 특징적이다.

우선 장자의 집을 악의 공간으로, 서천꽃밭은 선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현실계의 가치중립적 공간 → 현실계의 악의 공간 → 비현실계의 선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공간이동 경로에 따라 두 계열로 나누었다. 수평적 공간이동과 수직적 공간이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안락국태자전, 악양국왕자노래, 기림사사적”, 수평적 공간이동만 보이는 “이공본풀이, 안락국전, 오구대왕풀이”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비현실계로서의 서천꽃밭은 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현실계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었다. 이곳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의 최종지향점은 아니다. 이들의 목적은 서천꽃밭에서 선행을 쌓아 결국은 신으로 좌정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은 신으로 좌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기착지인 것이다. 또한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의 서천이라는 공간은 불교의 중음계가 변모되어 새롭게 창조된 공간임을 밝혔다.

서천꽃밭은 인간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꽃이 있는 곳으로서 생명의 공간으로 상징하였다. 꽃과 인간의 생명을 관련지어 생각한 것은 우리의 오랜 사유체계 속에 잠재되어 있었음을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여 증명하였다.

4)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고려시대 유행했던 ‘안락국태자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무가로서의 ‘이공본풀이’와 ‘신선세턴님청배’는 이미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 이전에 형성되어 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 조선조의 무격들은 문자전승의 능력을 지니지 못한 점을 들었다. ‘안락국태자경’은 당시

널리 전승되어 대중들 사이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것을 무격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그들은 이를 받아들여 무속신화로 재창조하게 된 것이다.

‘안락국태자경’의 연행년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라수구탱’의 제작시기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까지는 ‘사라수구탱’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모되었다는 기록에만 근거를 두어 2~3백년은 거슬러 올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막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사라수탱’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과 화면의 크기, 사라수탱이라는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라수구탱’은 고려 중~말까지 올려 잡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라수탱’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곱 편의 동계 서사체 중 ‘안락국태자전’과 가장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장자로부터 받는 수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재생모티브가 없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등장인물의 명칭을 살펴보면 서사무가의 경우 불교계 서사체와는 달리 오히려 도교식 명칭이 많다. 그런데 동계 서사무가임에도 불구하고 ‘악양국왕자노래’는 불교식 명칭 그대로 인 것으로 보아 앞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안락국태자전’과 ‘악양국왕자노래’의 친연성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고 있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안락국태자경’을 저본으로 전파되었다고 해서 불교적인 색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巫·佛·仙·儒 사상이 혼용되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강창문학이 중국에서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무속사상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창문학은 무속적 영향을 받아 토착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안락국태자전’, ‘안락국전’으로 전승되면서 유교사상이 덧붙여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앞에서 논의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승 계맥을 추정해 보았다. 이공본풀이계 서사체는 ‘안락국태자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안락국태자경’에서 두 계통으로 전승되었으니 ‘안락국태자경’에서 ‘안락국태자전’으로 전승되어 ‘안락국전’과 ‘기림사사적’으로 이어진 계통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안락국태자경’에서 바로

‘이공본풀이’, ‘신선세턴님청배’, ‘악양국왕자노래’로의 전승이다. 그리고 ‘오구대왕풀이’는 ‘악양국왕자노래’의 직접적인 영향과 ‘안락국전’의 간접적 영향 등으로 근래에 ‘바리공주’ 무가와 습합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무가와 함경·평안도무가와의 친연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반도의 남·북 양극단의 지역에서 동일유형의 신화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주도의 역사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고학적 자료, 문헌적 자료, 언어학적 자료를 제시하여 고구려와 탐라국의 역사적 관계를 해명하였다.

다음으로 동계 서사체와 비교했을 때 ‘이공본풀이’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공본풀이’는 전체적 즐거리에 있어서는 본토와 동계 서사체였으나 제주도에 전승됨으로써 제주도무가만의 전형적 모습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외에도 표현 형식적인 면에서 이원적 대립항의 연속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것 또한 다른 동계서사체에서는 볼 수 없는 ‘이공본풀이’만의 특징으로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실상이 대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다양한 각편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각편적 차원에서 좀더 정치하게 검증해 감으로써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그리고 장르간의 영향 관계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하권),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소, 1994
- 김승찬, 구비문학대계 경남편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김진영·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2, 민속원, 1997
- 『別本祇林寺事蹟』중의 「寺中古記」
- 사라수탱, 일본 靑山文庫 소장
- 손진태, 청구학총22其二, 경인문화사, 1982
- 신역 삼국유사, 최호 역, 홍신문화사, 1997
- 안락국전(국립중앙도서관본)
- 안락국전, 김기동 편, 서문당, 1984
- 월인석보 제8·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천풍전산인쇄사, 1993
-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제주도민속 V,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8
- 『中國正史 朝鮮傳』1, 국사편찬위원회, 천풍인쇄주식회사, 1987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최길성, 「오구대왕풀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2. 논문

-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부속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7
- 경일남, 고려조 강창문학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9

- 권영택, 「신라 불교수용에서의 밀교의 역할」, 『석당논총』 제28집, 동아대학교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9
- 권우행, 「한국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죽음인식의 변이양상」, 『동남어문논집』 제11집, 2000
- \_\_\_\_\_, 「삼국유사에 나타난 죽음 설화 연구」, 『죽음의식 연구』,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제1회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유인물, 1994
- 고창석, 「탐라의 명칭과 대외관계」,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 김명진, 「바리데기 연구」, 『경상어문』 제7집, 경상어문학회, 2001
- 김무조, 「신라정토설화의 時間攷」, 『최정석박사회갑기념논총』, 최정석박사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4
- 김문태, 「헌화가·해가와 제의문맥」, 논총간행위원회편, 『林下崔珍源博士停年紀念論叢:古典詩歌의 理念과 表象』, 대한, 1991
- 김봉옥, 「탐라의 명칭과 대외관계」,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 김상환, 서사무가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1989
- 김영일, 「무속의 서사와 의례의 등가성에 대한 연구」, 『경남어문논집』 창간호, 1988
- \_\_\_\_\_, 「무가의 주술적 기능과 서사구조」, 『加羅文化』 제2집, 경남대학교가라문화연구소, 1983
- 김정교, 「조선초기변문식불화 안락국태자경변상도」, 『韓國美術史散考』 (1), 공간, 1984
- 김태기, 「오구긋의 원리」, 『배달말』 24, 배달말학회, 1996
- 김현선, 「함경도 무속서사시연구」, 『구비문학연구』 제8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 김홍식, 「제주도지방의 지명어휘고(2)」, 『논문집』 (인문학편)26집, 제주대, 1986
- 류병일, 「재생 설화의 유형 분석」, 『동아어문논집』 제2호, 동아어문학회, 1992

- \_\_\_\_\_, 「설화의 소설화 연구」, 『국어국문학』 제15집, 동아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96
- \_\_\_\_\_, 「재생설화의 고소설적 변이 수용 양상과 의미」, 『동남어문논집』 제6집, 1996
- 문무병, 「제주도 토속신들의 역할과 기능」, 『영주어문』 제2집, 영주어문연구회, 2002
- 박경신, 「무가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5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 \_\_\_\_\_, 「일반무가의 작시 방법」,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 박계홍, 「무가 중세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민속학』 창간호, 한국민속학연구회, 1969
- 박노원, 석보상절의 서사문학적 성격, 동아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2
- 박병동, 석가여래십지수행기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8
- 박영선, 「기차대상신 미륵의 설화문학적 전승연구」, 『문창어문논집』 제36집, 문창어문학회, 1999
- 박은경, 「麻本佛畫의 出現」, 『미술사학연구』 199·200호, 이화문화출판사, 1993
- \_\_\_\_\_, 「조선전기 선묘불화」, 『미술사학연구』 206호, 백산문화, 1995
- \_\_\_\_\_, 「15·16세기 불교회화의 특색」, 『석당논총』 제20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4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제8집, 국문학연구회, 1968
- 석당전통문화연구원 공저, 한국인의 죽음관, 『석당논총』 제29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0
- 송성대, 「삼다의 지역성과 삼무의 전통 문화」,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 신지연, 「서사텍스트로서의 월인석보 권8 안락국전의 응집성」, 『목원국어국문학』 제6집, 목원대학교국어국문학과, 2000

- 엄국현, 「수로보인 설화의 고대의례적 성격」, 『송암정교환박사화갑기념논총』, 송암정교환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5
- 여기현, 「헌화가의 제의성」, 반교어문학회 편, 『신라가요의 기반과 작품의 이해』, 보고서, 1998
- 윤찬주,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1
- 이강옥, 「삼국유사 불교설화의 서술원리」, 『영남국어교육』 제6호, 영남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1999
- 이광규, 「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위치」,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 이기욱, 「환경과 제주문화」,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 이성후, 「헌화가 설화 소고」, 『최정석박사회갑기념논총』, 수우제최정석박사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4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9
- \_\_\_\_\_,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 이용조·우종윤 편저, 선사유적 발굴도록, 충북대 박물관, 1998
- 이재철, 한국 설화문학에 나타난 생사유형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8
- 이청규, 「탐라국의 형성과 문화」,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 이현수, 「불교설화의 소설문학적 수용」,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불교사상과 한국문학』, 2001
- 이흥중, 수로신화의 원형적 의미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7, 6
- 이희주, 바리공주 무가의 텍스트 구성원리 연구, 동아대학교석사논문, 1999
- 인권환, 「동양문학의 뿌리, 불교설화」, 『금강』, 월간금강사, 1985, 5
- 임재혜, 「구비문학의 연행론, 그 문학적 생산과 수용의 역동성」, 『구비문학연구』 제7집, 한국구비문학회, 박이정, 1991

- 전재강, 「월인천강지곡의 서사적 구조와 주제 형성의 다층성」, 『안동어문학』 제4집, 안동어문학회, 1999
- 진영일, 「고대탐라국의 형성」,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 채기원, 안락국태자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0
- 채원기, 신라향가의 배경설화에 나타난 무교사상 연구,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1, 6
- 천병식, 「석보상절의 전기문학적 가치」, 『고전문학연구』 제3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 최원오,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 최진봉, 안락국전의 형성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1, 6
- 최호철,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소설사적 전개,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3
- 態谷宣夫, 「청산문고장 안락국태자경변상도」,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1969
- 표인주, 「호남지역 상장례와 구비문학에 나타난 죽음관」, 『한국민속학』 제32호, 민속학회, 2000
- 허남춘, 「제주도 서사무가와 한국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제21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0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 현용준, 「제주도 신화와 의례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 현평효,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 『濟友文化』 4호, 한국방송통신대 제주총학생회, 1990
- 홍순만, 「탐라의 원주족」,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 홍승례, 재생설화의 원초의식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3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7

### 3. 단행본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9

김승찬·이현홍 외, 한국의 문학사상, 세종출판사, 1998

\_\_\_\_\_, 신라 향가론,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김성배, 한국 불교가요의 연구, 문왕사, 1973

김열규, 「서사체로서의 한국상고대신화」, 『한국서사문학사연구Ⅱ』, 중앙문화사, 1995

\_\_\_\_\_, 朱鉦, 「민담과 문학에 있어서의 입사식담」, 『민담학개론』, 일조각, 1997

김정희, 조선시대지장시왕도연구, 일지사, 1996

김진영, 한국서사문학의 연행양상, 이회, 1999

김태곤, 한국구비문학개론, 민속원, 1996

\_\_\_\_\_,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5

\_\_\_\_\_,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남기심, 텍스트이론, 아르케, 1999

로버트 솔저·로버트 켈로그, 임병권역, 서사의 본질, 예림기획, 2001

류병일, 한국서사문학의 재생화소 연구, 보고서, 2000

박경신, 「무가와 서사문학」,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I』, 중앙문화사, 1995

\_\_\_\_\_, 「무가의 역사」, 『한국민속사업문』, 지식산업사, 1996

\_\_\_\_\_, 김현선, 「무가의 이해」,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박성익, 한국문학배경연구(상), 선명문화사, 1973

박용식, 「한국 서사문학의 전개와 신앙사상」,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I』, 중앙문화사, 1995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블라디미르 프롭, 홍인덕역, 민담형태론, 예림기획, 1998

- 서대석, 「서사무가의 문학사적 맥락」,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98
-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 \_\_\_\_\_, 한국문학유통사의 연구 I · II, 중앙인문사, 1999
- \_\_\_\_\_,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 \_\_\_\_\_, 「안락국태자경의 연구」, 『불교계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 \_\_\_\_\_, 「월인천강지곡의 불교서사시적 국면」, 『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98
- 송호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97
- 여기현, 신라음악상과 사뇌가, 월인, 1999
-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 이경엽, 무가문학연구, 박이정, 1998
- 이상보, 한국고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75
- 이수자,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窓, 1992
- 이은봉,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 임재해, 「한국의 장례놀이에 나타난 죽음과 삶의 형상」,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민속원, 2001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8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 \_\_\_\_\_,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 \_\_\_\_\_,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장철수, 「한국의 평생의례에 나타난 생사관」,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민속원, 2001
- 정승석, 「죽음은 곧 삶이요 열반」,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窓,

199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2·3권, 지식산업사, 1997
- \_\_\_\_\_,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 조흥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본풀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주강현, 「한국무속의 생사관」,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민속원, 2001
- 천혜숙, 「설화의 이해」,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 한국고전문학회 역음, 국문학의 구비성과 기록성, 태학사, 1999
- 현길언, 「제주 무속 설화의 장르적 성격」,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고대신화와 한국문학의 원류」,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  
사, 1998
-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99
- 황패강, 「불교수용과 한국문학」,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98

## ABSTRACT

### Research on the Narrative Style of Egonbonpuri Type

by  
*Kim, Chang-Il*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As a matter of fact, the course of study has been done concentrating on just a few works and in a limited extent despite the narrative style of Egongbonpuri type is transmitting in various genres. So in this thes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the narrative style of Egongbonpuri type I investigated its overall and comprehensive feature with various ways.

In second chapter, I divided narrative paragraphs into six parts and figured out the similarity and the difference of the seven narrative style of Egongbonpuri type. And then I certified that the narrative style of Egongbonpuri type didn't stop just imitating the previous life of Buddha, but recreated in the frame of our traditional narrative structure. In addition to that, I found the story is not proceeded by one hero but by embossing the three main characters in order.

In third chapter, I examined each character of the great king Sarasu as a leading figure of the first route period, the lady Wanang as a leading figure of the ordeal period, and Anrakguk as a leading figure of the second route period.

In forth chapter, I could figure out the fact that as a unrealistic world, Seocheon flower garden is a God's area and at the same time it's a

reachable place for men in the real world. And this Seocheon flower garden is not the hero's final destination but the mid-course that he should take to raise his status to God. The reason of setting the Seocheon flower garden as a place of life has already been thought that there is relation between flower and men's life, and regarded it as a revelation that was subconscious beneath the speculation system.

In the fifth chapter, I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as a dance music, Egongbonpuri and Sinsunsetyunimchungbae have already been made before the formation of Anrakguktaejajeon and Anrakgukjeon. And the next step can be done by defining the time of manufacture of Sarasugutaeng, which can be the indisputable evidence of the fact that Anrakguktaejakyung was sung in Korea era. However, till now, the research is just staying in the vague assumption because we based on the records that Sarasugutaeng was unrecognizably worn out in 1576, at the time its copying and estimated the time up to 2 ~ 3 hundred years. So in the main chapter, as a result of searching totally for the characters' dress style, the size of the screen, the name of Sarasutaeng and so on, I certified that we could assume the manufacture date of Sarasutaeng up to mid to end of Korea era.

Anrakguktaejakyung was transmitted in two kinds of narrative styles, the one style is the Buddhistic narrave style that led to Anrakguktaejajeon, Anrakgukjeon, and Kirimsasajeok, And the other style is the narrative dance music style that led to Egongbonpuri, Sinsunsetyunimchungbae, and Akyangguk prince song.

Egonbonpuri dance music has a peculiar character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narrative styles, I could find the reason in the typical character only in Cheju dance music.